

연구서 2013-02

# 미디어교육 현안과 미래전략

황치성 · 박한철 · 정완규 · 조진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미디어교육 현안과 미래전략

연구서 2013-02

책임연구 황치성(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박한철(덕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정완규(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  
조진화(부산 교육연수원 전임교수)  
보조연구 김민정(한국언론진흥재단 NIE 강사)

발행인 이성준  
편집인 김성수  
발행일 2013년 9월 30일 초판 제1쇄 발행

### 한국언론진흥재단

100-75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전화 (02) 2001-7745 팩스 (02) 2001-7740  
[www.kpf.or.kr](http://www.kpf.or.kr)

편집·제작 / 커뮤니케이션북스(주)  
121-869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571-17 청원빌딩 3층  
전화 (02) 7474-001 팩스 (02) 736-5047  
[www.commbooks.com](http://www.commbooks.com)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연구 결과임을 밝힙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3

ISBN 978-89-5711-355-4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 차례

- 01 연구배경**
  -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 1
  - 2. 연구의 구성 … 4
  
- 02 미디어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 1. 미디어교육의 개념 … 6
  - 2.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 15
  
- 03 주요 국가의 미디어교육 현황 및 동향**
  - 1. EU … 20
  - 2. 영국 … 25
  - 3. 프랑스 … 32
  - 4. 벨기에 … 39
  - 5. 핀란드 … 42
  - 6. 미국 … 53
  
- 04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문제점**
  - 1. 학교 미디어교육 … 72
  - 2. 사회 미디어교육 … 112
  
- 05 결론 및 제언 … 164**
  
- 참고문헌 … 185
- 부록 … 191

## 표 차례

〈표 2-1〉 헨리 젠킨스의 뉴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요소 ...	15
〈표 3-1〉 멘토 프로젝트의 미디어교육 개념과 내용 ...	24
〈표 4-1〉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의 종합계획 비교 ...	77
〈표 4-2〉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목 교육과정의 미디어교육 요소 ...	85
〈표 4-3〉 초등학교 전학년 국어과목 교육과정의 미디어교육 요소 ...	86
〈표 4-4〉 중학교 전학년 국어과목 교육과정의 미디어교육 요소 ...	87
〈표 4-5〉 고등학교 전학년 사회문화과목 교육과정의 미디어교육 요소 ...	88
〈표 4-6〉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 ...	92
〈표 4-7〉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 ...	93
〈표 4-8〉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 ...	95
〈표 4-9〉 ‘신문제작을 통한 멋진 지역사회 만들기’ 동아리 프로그램 개요 ...	99
〈표 4-10〉 창의와 인성의 숲에서 만난 미디어 교과서 목차 ...	107
〈표 4-11〉 미디어교육 지원 공공기관 내역 ...	117
〈표 4-12〉 주요 사회 미디어교육 기관의 유형 ...	119
〈표 4-13〉 지역별 미디어센터 설립 현황 ...	121
〈표 4-14〉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영역 ...	123
〈표 4-15〉 미디어센터의 사업 영역 ...	124
〈표 4-16〉 분석대상 미디어센터 ...	127

## 그림 차례

- 〈그림 2-1〉 EAVI가 제시한 미디어 리터러시 평가체계 ... 13
- 〈그림 4-1〉 ‘신문제작을 통한 멋진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그램 흐름도 ... 101
- 〈그림 4-2〉 사회 미디어교육의 주요 교육대상 ... 131
- 〈그림 4-3〉 사회 미디어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적 ... 135
- 〈그림 4-4〉 사회 미디어교육의 주요 결과물 ... 136
- 〈그림 4-5〉 사회 미디어교육 강사·주체 ... 139
- 〈그림 4-6〉 사회 미디어교육의 이상적인 모델 ... 163



# 01

## 연구배경

###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1970년대 천주교에 의해 한국에 처음 소개된 미디어교육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구가해 왔다(권주만, 2007). 초기의 미디어교육은 정치·사회적인 변동 그리고 그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와 맞물리면서 ‘교육’적 맥락보다는 언론 수용자 ‘운동’ 맥락이 강조되었다. 1986년 KBS의 편파·왜곡 보도와 프로그램의 선정성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시청료 거부운동이 대표적 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디어교육의 내용 역시 시민단체 중심의 모니터 활동과 수용자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 90년대 중반에 들어 미디어교육의 내용, 주체 및 대상 등이 점차 다변화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지역 단위의 미디어센터들이 설립되면서 미디어교육은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2002년 5월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 개관에 이어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31개의 지역 단위 미디어센터가 운영될 정도로 확산일로에 있다(홍교훈, 2012). 2013년에도 인천과 충청남도에서 광역 자치단체 차원의 미디어 복합센터

를 개관한 데 이어 한국전파통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부산, 광주에 이어 대전, 인천, 춘천에 확대되는 등 지역 단위 미디어센터는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2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적게는 48.2%에서 많게는 85.4%까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교육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우·황치성 외, 2012). 특히 2009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신문활용교육과 미디어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교육 활용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sup>1)</sup> 2012년 조사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61.0%(‘다소 확대’ 52.8%, ‘대폭 확대’ 8.2%)가 ‘향후 학교 교육에서 미디어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미디어교육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노력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012년 8월 3일 ‘미디어교육지원법’을 발의한 데 이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도 2013년 9월 17일 ‘미디어교육지원법’을 발의,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런 국가 단위의 노력은 특히 학생이나 청소년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차원의 미디어교육을 지향하고 있어서 국내 미디어교육의 체계화와 일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디어교육의 외연 확대, 국가 차원의 입법 및 정책화 노력은 한국의 미디어교육을 더 한층 발전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만으로 미디어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미디어교육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회 미디어교육이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미

---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문활용 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학술활동) 영역에 편입되었고 미디어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학습을 할 수 있는 범교과학습 영역의 하나로 편입되었다.



디어교육의 형태와 모습이 공존되기는 하지만 자칫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못한 답보 상태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박진우·황치성 외, 2012).

그런가 하면 한국의 미디어교육은 인프라, 콘텐츠, 프로그램, 인적 자원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미디어교육의 가치와 잠재력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반응이 극히 수동적인 점은 미디어교육을 더 한층 발전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 각국은 미디어교육을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설정하고 각국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 각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외에 유럽위원회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래 정보 사회의 제1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현장' 제정과 함께 멘토 프로젝트, 유로메독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미디어교육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정책적으로 느긋한 반응을 보여 왔던 미국 역시 적극적인 기저로 선회하고 있다. 뉴멕시코주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법안<sup>2)</sup>을 제정했는가 하면 미국 템플대학교 르니 홉스(Renee Hobbs) 교수는 백악관을 포함, 지역·주·연방 단위의 교육관계자, 공공도서관 관계자, 시민사회 기관 및 단체, 언론사 및 IT 분야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10개항의 미디어 리터러시 액션플랜을 제시했다(Hobbs, 2010). 거기 에다 제이 록펠러(Jay Rockefeller) 상원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1억 달러에 이르는 예

---

2) 뉴멕시코주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매일 수없이 접하는 미디어 이미지들과 메시지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다'는 전제에서 2009년 공립학교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필수교과로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hoosierpreventionpoint.ning.com/group/publicpolicy/forum/topics/indiana-needs-a-media-literacy> 참조.

산을 지원하는 ‘21세기 핵심능력을 위한 인센티브 펀드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두 개의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미디어교육에 대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논의는 많았지만 미디어교육의 질적 성장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는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중장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과 정책적 플랜을 제시하고자 했다.

## 2. 연구의 구성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 분석과 함께 향후 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 이 연구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미디어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을 개략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소개하고 이러한 변화가 미디어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서술했다.

둘째는 외국의 미디어교육 동향과 정책사례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했다. 미디어교육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기존의 외국 사례들이 시의성이 떨어지고 내용 면에서 표피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하에 각국의 최신 미디어교육 동향과 정책동향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국내 다양한 미디어교육 관계자들이 이론 및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에 역점을 두었다.

셋째,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을 심층 분석한 것으로 학교 미디어교육과 사회 미디어교육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먼저 학교 미디어교육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을 분석하여 미디어교육이 공식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사회 미디어교육 부분에서는 2002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역 단위 미디어 센터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점과 극복방안들을 제시했다.

넷째는 결론 및 정책 제안 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전체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함의를 바탕으로 미디어교육의 지속 발전을 위한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

# 02

## 미디어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 1. 미디어교육의 개념

미디어는 ‘중재하는 수단, 도구 혹은 매개체’로서, 메시지나 정보가 운반되거나 전달되는 물질 혹은 경로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저명한 미디어교육학자인 버킹엄(David Buckingham) 교수는 미디어를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라디오, 사진, 광고, 신문, 잡지, 음악, 컴퓨터 게임, 그리고 인터넷처럼 다양한 종류의 현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망라하며, 미디어 텍스트는 이러한 여러 다른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해 전달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된 영화나 영상작품, 이미지, 웹사이트”로 정의했다(데이비드 버킹엄, 2004). 병행해서 미디어 텍스트를 “여러 종류의 ‘언어들’ 혹은 의사소통의 다양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 이미지(정지된 이미지 혹은 동영상), 오디오(음향, 음악 혹은 말), 그리고 문자언어를 결합한 것”으로 개념화했다.

미디어 리터러시<sup>3)</sup>는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한 교육으로

---

3) 정현선(2007)에 따르면 미디어교육은 ‘미디어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비

신문, 잡지와 같은 미디어에 적용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영상미디어가 등장한 이후 리터러시 개념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중심으로 초점이 옮겨갔다. 영화나 텔레비전 같은 영상미디어가 사용하는 언어는 글자나 문자가 아니라 영상이미지다. 영상 이미지 언어는 문자 언어와는 다른 방식의 문법과 해석법을 필요로 한다. 텔레비전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은 비판적 시청 기술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다(안정임, 2010). 이와 같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은 유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의 변화와 일치한다.

1960~1970년대 영화가 일반화되면서 이를 교육용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유럽 전역에 나타나기 시작했다.<sup>4)</sup> 영국에서는 영국영화연구소(BFI, British Film Institute)의 설립과 함께 1933년부터 오랜 기간 미디어 교육을 시켜왔는데, 영화사조인 프리 시네마의 등장으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프랑스에서는 영화제작자들을 중심으로 이론 및 교육학 그리고 미적 확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탈리아의 경우 영화의 네오리얼리즘, 독일과 폴란드는 영화의 시대사조가 주목을 받았다. 당시 미디어 연구에 접근하는 방식은 영화클럽 활동, 영화 이미지 교육과 영화의 미적, 언어적 기회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박지선, 2013).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는 TV에 관심이 모아졌고, 특히 새롭게 등장한 소비사회와 광고비평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었다. 미디어교육은 더욱 비판적이 되었는데, 프랑스의 68운동의 영향을 받은 비판적 이데올로기 주장 혹은 영국의 문화연구 주장에서처럼 프랑스 기호학의 비판적

---

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고 미디어교육의 핵심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소통능력을 뜻하는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다(이미나, 2009, 142~143쪽에서 재인용). 이렇게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연구서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했다.

4) '박지선(2013). 유럽의 미디어교육 동향과 사례.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구축』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서'에서 재인용.

경험이 접목되기도 했다.

1980년대 미디어교육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대안을 찾기 위한 경향이 강해졌는데, 이때 비디오가 등장하고, 지역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향은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두드러졌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는 미디어 규제완화와 함께 공영 TV 채널의 독점이 끝이 나면서 민영 TV 채널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폭력성과 선정성, 어린이들에 대한 영향력, 소비지상주의, 광고의 영향력 등과 같이 'TV 프로그램의 유해한 영향'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인터넷과 웹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가 생겨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 특히 미디어의 디지털화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초점을 미디어 조작 능력과 누구나 평등하게 뉴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보 격차 해소에 맞추게 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유럽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비평을 근간으로 하는 유럽식 전통에서 정보사회 도입에 따라, 도구적 관점을 강조하는 미국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박지선, 2013).

2000년대 초에 들어 미디어 컨버전스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전통적인 시청각 리터러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21세기 초부터는 기존 전자매체와 디지털 매체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모든 미디어는 디지털화되기 시작했으며, 디지털화와 뉴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컨버전스와 멀티미디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술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기존 미디어에 관련된 옛 기술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은 리터러시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 왔다. 텔레비전 등의 기존 미디어에서는 '정보 파악 능력'이 중

요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뉴미디어의 등장은 정보를 수집, 활용, 변형, 생산해 내는 이용자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상호작용성, 네트워크화, 정보의 통합화로 대변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은 네트워크 및 컴퓨터에 대한 접근 능력, 콘텐츠 활용 능력, 지식 정보의 공유 능력, 그리고 정보에 대한 선택 능력이 강조되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출현시켰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들이 각각의 정보 형태를 이해하고 활용한 통합적인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은희, 2006; 안정임, 2002; 2006).

다양한 리터러시의 개념들은 언어별, 매체별로 한정적으로 정의되면서 영상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네트워크 리터러시 등으로 구분되어 왔다. 김아미(2008)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가 매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한 후,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재개념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강진숙(2007) 또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이용하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구성·제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미디어 능력을 디지털 매체가 요구하는 능력으로 구체화해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할 때 필요한 기술적, 문화적, 사회적, 성찰적 능력”으로 정의되는 “디지털 능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UCC, 플리커, 블로그 등 통합적인 표현 통로가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소비자의 위치를 넘어 ‘생비자(prosumer)’로 탈바꿈했고 자기표현 및 상호소통의 한 방법으로서 콘텐츠 제작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한 능력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교육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안정임, 2010).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미디어는 미디어의 소통 범위와 속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리터러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소통은 물론 가능했지만 모바일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소통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다. 특히 집단적으로는 커뮤니티 중심의 인터넷 이용이 소셜네트워크로 발전하면서 콘텐츠 공유와 콘텐츠 생산의 협업까지 가능해졌고 개인들 간의 다대다 상호작용까지 극대화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소셜네트워크 미디어에서는 소통과 관련된 리터러시적 관심사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안정임, 2010).

과거 미디어교육의 개념은 주도적인 미디어와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지만 최근 들어 미디어가 융합 현상을 보이면서 그 개념 또한 대체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버킹엄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 미디어교육의 개념과 그 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데이비드 버킹엄, 2004).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교육의 결과물로서 학습자들이 획득하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읽기(reading)’와 미디어 텍스트를 제작하는 ‘쓰기(writing)’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그리고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제작 모두를 목표로 한다. 미디어교육은 청소년들이 미디어의 소비자로서 미디어를 해석하고 정보에 근거한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제작자가 될 수 있게 한다. 궁극적으로 미디어교육은 청소년들의 비판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제임스 포터(W. James Potter)는 “융합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가 모든 형태의 정보 공유 기술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합의된 개념적 정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는 인지적(cognitive), 감정적(emotional), 미적(aesthetic), 도덕적(moral) 차원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기술 능력, 지식, 행위,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관행 등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능력은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라고 언급했다(Potter, 2010, p. 680).

소니아 리빙스톤(Sonia Livingstone)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됨으로써 개념의 혼동이 야기되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미디어들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해서 분석 평가하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ability to access, analyze, evaluate, and create message in a variety of forms)”으로 정의했다. 리빙스톤이 제시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Livingstone, 2004, pp. 5~8).

- 접근 능력(Access): 미디어 콘텐츠 및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지속적 인 접근조건
- 분석 능력(Analyze): 상징적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 평가 능력(Evaluate): 미디어 콘텐츠가 생산되는 맥락에 대한 지식체계 및 지식의 객관성과 품질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능력
- 창조 능력(Create): 참여, 사회자본, 시민문화와 관련된 콘텐츠 생산

리빙스톤은 “다양한 미디어가 함께 사용되는 현재의 미디어(pan-media) 이용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개념으로 복수형인 ‘리터러시즈(literacies)’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Livingstone, 2004, p. 8). 그는 또 “시청각 미디어가 지배적이었던 시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용자의 수용성(audience reception)’과 ‘해석(interpretation)’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누구나 콘텐츠를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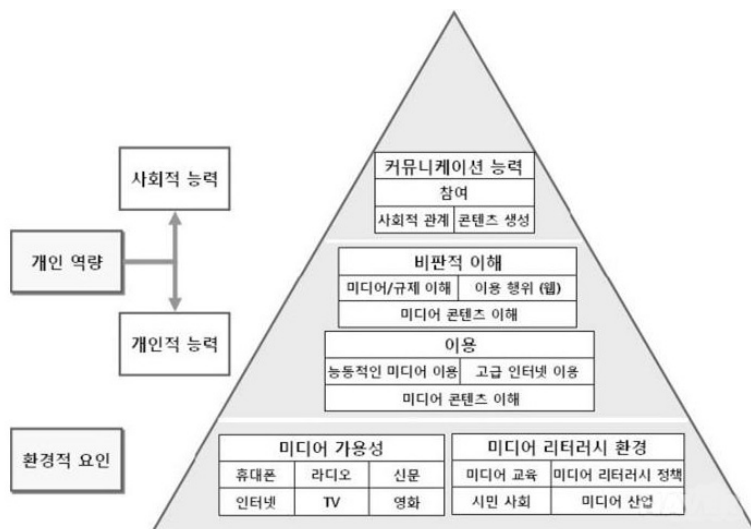
산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현재의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는 참여적, 비판적 능력이 반영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사회적 참여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고하는 목적은 ‘미디어 이용자를 수동적인 위치에서 적극적인 위치로, 수용자에서 참여자로, 그리고 소비자에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Livingstone, 2004, p. 20).

한편, 르니 홉스 교수는 미디어가 편재되어 있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는 현재의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사회적 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일련의 생활능력(life skills)으로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digital and media literacy)”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핵심적인 능력들을 제시했다(Hobbs, 2010, p. 18).

홉스가 제시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리빙스톤이 제시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에 ‘성찰(reflect)’과 ‘행동(act)’을 추가한 것인데,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접근(access)’은 미디어와 관련 서비스를 능숙하게 찾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분석 및 평가(analyze and evaluate)’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메시지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효과나 결과를 고려하면서 메시지의 품질, 신뢰성, 관점을 분석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의미한다. ‘창조(create)’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수용자 등을 인식해서 자기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콘텐츠를 구성 또는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성찰(reflect)’은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성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act)’은 지식을 공유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를 수행한 유럽 시청자권익위원회(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 2009, 이하

〈그림 2-1〉 EAVI가 제시한 미디어 리터러시 평가체계



출처: EAVI(2009, 8p). Study on assessment criteria for media literacy levels.

‘EAVI’는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문화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시청각 리터러시 등과 같은 다양한 리터러시 개념들이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개인의 비판적 이해와 시민 참여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제시했다. EAVI는 통합 개념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시하고 “정보 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미디어가 제공하는 메시지를 해석, 분석, 처리, 맥락화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정의했다(EAVI, 2009, p. 22).

EAVI가 제시한 미디어 리터러시 평가 체계는 크게 두 개의 차원, 즉 개인 역량(individual competences) 차원과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s) 차원으로 구분되며, 각 차원들은 세부적인 평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환경적 요인은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개인 역량에 영향을 주는 선

행 조건으로 다섯 개의 핵심 요인, 즉 ‘미디어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미디어 산업’, ‘시민사회’, ‘미디어 가용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개인 역량은 미디어 접근과 이용에 관한 이용 능력과 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비판적 이해로 구성된 개인적 능력과 콘텐츠 생성, 사회적 관계 형성, 시민적 참여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구성된다. EAVI는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평가하고 개인의 비판적 이해와 시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는 디지털 세대인 10대 청소년들의 미디어 생산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리터러시를 개발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뉴미디어 리터러시(new media literacies)”로 개념화했다(Jenkins, et al., 2006). 젠킨스는 예술적 표현과 참여가 용이하고 창작과 공유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일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갖는 문화를 ‘참여 문화(participatory culture)’로 명명하고 뉴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디어를 매개로 공동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으로 정의했다(Jenkins, et al., 2006, p. 3).

젠킨스에 따르면 참여문화는 ‘소속(affiliations)’, ‘표현(expressions)’, ‘집단적 문제해결(collective problem-solving)’, ‘배포(circulations)’에 핵심을 둔 개념으로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와 함께 등장한 다양한 미디어 도구를 통하여 표현되는 창의적이고, 협력적 상호작용의 문화를 일컫는 개념이다. 디지털 세대는 바로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또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순환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젠킨스(Jenkins, 2006)는 이에 따라 디지털 세대는 사회·문화적 공유와 의미의 확산까지 포함된, 즉 재개념화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다. <표 2-1>에 제시된 11가지 미디어 리터

〈표 2-1〉 헨리 젠킨스의 뉴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요소

핵심 능력(Core Skills)	내용(Contents)
역할수행(Play)	문제해결의 방법으로써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이용해 실험할 수 있는 능력
시뮬레이션(Simulation)	실제 세계의 역동적인 모델을 구성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퍼포먼스(Performance)	새로운 발견과 즉흥적 적응을 위해 대안적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능력
전용(Appropriation)	미디어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재조합할 수 있는 능력
멀티태스킹(Multitasking)	자신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특정 목적의 중요한 세부사항에 집중을 옮겨가는 능력
분산된 인지 (Distributed Cognition)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 의미있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모으고 서로의 지식을 비교하는 능력
판단력(Judgement)	서로 다른 정보원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능력
범미디어 네비게이션 (Transmedia Navigation)	다양한 미디어의 이야기와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
네트워킹(Networking)	정보를 검색하고, 종합하며,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
협상력(Negotiation)	다양한 커뮤니티를 넘나들며 다양한 관점을 식별하고 존중하며 대안적인 규범들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

자료: Jenkins. H. et al.,(2006).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Media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The MacHrther Foundation.

러시 능력은 이와 같은 젠킨스의 생각을 담고 있는 핵심적 요소들이다.

## 2.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의 등장과 확산으로 대변되는 정보화의 거대한 물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를 야기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정보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최첨단 정보기술의 발달과 전자 유통의 급속한 성장은 그동안 경험해 왔던 삶과 일의 방식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에는 결국 디지털 관련 지식과 정보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생활에 적절히 활용하느냐가 곧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접근과 활용의 가능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무서운 속도로 등장하고 보급되는 각종 디지털 정보 미디어에 접근성을 지닌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새로운 디지털 정보 미디어에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생존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단순히 개인의 취향과 흥미에 따라 디지털 정보 미디어에의 접근과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 상황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생존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김기태, 2007).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압축,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용(善用)능력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5시간 23분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이는 잠을 자고 일하는 것을 제외하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미디어가 삶의 중요한 수단이자 생활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미디어가 중요한 생활양식이 되었지만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용하는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삶의 발달 단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읽기,

쓰기, 말하기 교육과 같이 미디어는 아동기에서부터 하나의 필수적인 문화기술로서 그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는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사회적 관계양식에도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특성상 개인화, 즉시성, 중독성 등과 같은 폐해를 낳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용능력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정립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둘째,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나 의견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의사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흔히 미디어를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창(窓)’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디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나 의견이 항상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 아니다. 특히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커뮤니케이션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미디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나 의견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다. 이런 능력은 더 나아가 기성 미디어(신문, 방송, 인터넷 등)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제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미디어교육은 21세기 인재상에 걸맞은 정보활용 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

21세기에 들어 과거 산업사회와는 다른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기능 인력 중심의 인재 양성이 창의 인재 육성 중심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창의적인 능력이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필수적

이다. 그러나 교과서 중심의 교육체계에서는 이런 체험적 지식을 습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미디어는 사회 각 분야의 현실 모습과 이슈를 생생하게 전해 준다는 점에서 교과서를 넘어 이론과 현실, 특정 분야와 다른 분야를 연결 지어 생각하게 하는 주요 학습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신문을 포함, 미디어를 ‘살아있는 교과서’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21세기 인재상에 걸맞은 정보활용 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미디어교육은 또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미디어 소비자’ 양상의 기반이기도 하다. 최근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용자들이 직접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것은 곧 미디어 이용자들이 동시에 생산자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미디어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 및 생산 능력의 향상은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토대 와도 직결된다(박진우·황치성 외, 2012). 최근 국내외 미디어교육 연구는 각종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출현에 따른 어린이·청소년들의 향유 능력 및 창의적 생산 능력 향상에 점차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위한 미래의 인력 자원 교육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미디어교육 연구와 실천 속에 적극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박진우·황치성 외, 2012).

넷째,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에 의해 표상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인성과 가치관 확립에 필요하다.

미디어는 사회 각 분야의 현실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때론 우울하고 부정적인 뉴스도 제공되지만 감동적이고 따뜻한 뉴스 또한 적지 않다. 이런 삶의 모습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 즉 이웃을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학교의 경우



극심한 입시경쟁에 매몰되어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있다. 최근 들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왕따’, ‘자살’ 등과 같은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인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결과적으로 미디어교육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힘’을 키워줌과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03

## 주요 국가의 미디어교육 현황 및 동향

### 1. EU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이 유럽이다. 이런 배경에는 예산을 포함, 유럽 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원동력이 되었다. 1979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여, 유네스코와 유럽연합은 유럽의 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그 영역을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전문인들까지도 포함하는 평생교육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박지선, 2013). 이와 함께 다양한 방법론 제공을 위해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까지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 개발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EU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채택한 규정과 명령들이 회원국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EU(European Union)에 대한 연구 및 기술에 대한 일반정책, 정책예산 책정 등에 대한 운영을 맡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의회의 지원 아래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2004년 5월 유럽위원회 주관으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열린 “유럽의 미디어교육(Media Education in Europe) 컨퍼런스”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미디어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sup>5)</sup> 첫 번째 영역은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과 틀을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영역은 학교 교과 과정 속에 미디어교육을 추가하고, 국가 간 지식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교사 양성 방법을 개발하는 부분이다. 세 번째 영역은 실제적인 제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미디어교육 실시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미디어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전략을 자금 지원과 서로 다른 배경으로부터 이익의 결합이라고 인식하고, 관련 정부부처, 지방 및 지역 당국, 미디어 산업, 유럽 자금과 개인의 동기(교사, 학습자, 전문가, 연구원 및 조력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박지선, 2013).

2009년 8월 20일, 유럽위원회는 유럽 시민들에게 광고, 영화,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 향상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EU 국가들과 미디어산업체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사업 추진을 권장했다.<sup>6)</sup> 핵심목표는 TV, 영화, 라디오, 음악, 인쇄매체 인터넷, 그리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등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접근권 실현과, 미디어들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 각국은 지속적인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고,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시스템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커리큘럼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유럽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적인 인식 향상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인 정보 유통과 관련된 위험 고지 등이 권고되었다.

---

5) MediaEd : <http://www.mediaed.org.uk>

6) Ofcom(2009). Ofcom Media Literacy Bulletin Issue 24.

미디어 산업의 경우에는 콘텐츠 생산과 유통, 창조경제와 저작권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고, 이에 대한 캠페인 장려가 권장되었다.

유럽위원회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가 매일 같이 접하는 것으로서 현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인 이미지, 사운드, 메시지에 접근하고, 분석하며, 그것들의 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아미, 2009).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음악, 인쇄 매체 그리고 인터넷, 여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모두 연관이 되어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유럽 시민들이 정보사회를 즐기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공공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최근 들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정책 중의 하나가 멘토 프로젝트(Project Mentor)다. 이 프로젝트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산시키는 최선의 전략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공교육화’라고 전제하고 유럽위원회와 유네스코가 유럽 남부와 동부 지역 나라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핵심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박지선, 2013).<sup>7)</sup>

- 미디어를 통한 문화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교류에 있어서 중심역할을 한다.
-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에서 일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행사나 활동을 조직한다.
- 미디어 관련 종사자들과 공무원들에게까지 시너지효과가 미치도록 한다.
- 멘토 프로젝트와 유사하거나 상호보완적인 목표를 가진 주체들과 공

---

7) 2006년 기준으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사이프러스, 슬로베니아, 말트,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터키, 리비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라이트,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로 구성된 21개 지중해연안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통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멘토 프로젝트 협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무를 수립한다.

- 미디어교육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관련 협회들을 위한 중심체 역할을 한다.
- 미디어교육 체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각 국가별 전문가들 외에 주요 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럽위원회는 보조금 지원과 함께 집행을 맡고 있으며 유네스코는 멘토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한다. 프랑스 교육부 산하기관인 교육정보미디어센터(CLEMI; Centre de liaison d'enseignement et des médias d'information)는 프로젝트의 연구와 교수법을 책임지고 있다. 스페인의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인 미자르(MIZAR)는 멀티미디어센터, 제품, 서비스와 다국어 지원을 실현하고 있고, 멘토 프로젝트 본부에서는 기획과 정보기기 발전, 운영 및 사이트 관리를 맡고 있다.

멘토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사양성 프로세스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중등교원의 기본 자질을 갖추 수 있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원형을 제안하고 있다(박지선, 2013). 멘토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지중해 연안 회원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미디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다. 각 국가들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 있으며,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미디어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차이를 바탕으로 멘토 프로젝트는 ‘기초·일반과정’과 ‘고급과정’의 2단계로 구분된 통일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기초·일반 과정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기본 교육방침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급과정에서는 언어, 사회과학, 예술 등의 교과 내에서 미디어교육에 관련된 교육

프로세스를 혼합한 것이다.

미디어교육의 기본구성은 6개 단위로 구성되었는데, 각 나라 혹은 교육기관들은 학생들의 능력이나 지역적 여건에 맞게 이 단위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할 수 있고, 각 단위는 최소 12시간의 수업이 되어야 하며, 25시간 수업을 권하고 있다. 미디어교육 개념에 대한 6가지 단위와 그 세부범주는 <표 3-1>과 같다.

<표 3-1> 멘토 프로젝트의 미디어교육 개념과 내용

미디어교육 개념	세부내용	교육시간
문화적 범주	청소년들의 삶 속에서의 미디어(미디어의 사회적 영향), 문화적 실천, 미디어의 사회화	하루 평균 5시간 일주일 분량(주5일) 총 25시간
미디어 관련 지식	미디어 정의, 미디어사와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미디어교육(시스템, 법, 경제), 미디어와 사회, 대중의 권리	주 2회 총 50시간
미디어 언어	문자언어 · 시각언어 · 소리언어, 미디어간의 인터랙티브티(시청각, 멀티미디어 등), 미디어언어 적용 및 비정형 기술 습득	주 1회 총 25시간
장르와 콘텐츠	미디어의 다양성, 장르와 콘텐츠(내용), 장르 혼합(정보, 픽션, 다큐멘터리,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 장르의 유형(사실, 픽션, 가상현실, 현실/사실임직함)	1주 총 25시간
제작과 수용	미디어제작 프로세스(테크놀로지와 직업의 중요성), 프로세스와 수용의 조건, 청중 해석능력, 비평과 시민분석	1주 총 25시간
교육학적 단계	구성된 과목 교과과정 속에서 프로젝트 완성, 목적 묘사, 특수 미디어 장치, 기본 주제와 미디어제작 결과를 이용한 교육활동 개발(정보지, 오디오, 비디오, 디지털 신문 등), 시험 및 결과 평가	1주 총 25시간

출처: 박지선(2013). 유럽의 미디어교육 동향과 사례.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구축』.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서.

## 2. 영국

### 1) 학교 미디어교육

영국의 학교 미디어교육은 독립교과와 통합교과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정현선·심상민·박수경, 2005). 독립교과로서의 미디어교육은 교육과정 내용과 평가에 관한 교사들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발전했다. 1970년대 이후 ‘이론’과 ‘제작 실습’으로 양분되었던 미디어교육은 1988년대 말부터 공교육으로 편입되어 영국과 웨일즈의 초등학교(5~11세), 중학교(11~16세) 그리고 고등학교(16~19세) 학생들에게 적용되었다.

미디어 교과는 중등교육과정 국가시험(GCSE)과 대학준비과정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A-level의 ‘AS’와 A2학년에서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었으며, ‘미디어연구’, ‘영화연구’, ‘커뮤니케이션 연구’ 과목 등이 교과과정에 마련되어 있다(은혜정 외, 2001). 미디어교육은 예술이나 국어(영어)과목 등 국가교육과정의 다양한 과목 내에서 통합적으로 시도되어 오다가 1998년부터 14~16세 대상 영어 과목에 독립된 ‘미디어’ 요소가 추가되었다.

영국에서 미디어 교과는 GCSE 국가시험과 A-level 대학입학자격 국가시험의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험주관 및 평가기관이 존재한다. 미디어 분야의 주요 시험주관기관으로는 OCR(Oxford Cambridge and RSA Examinations),<sup>8)</sup> WJEC(Welsh Joint Education Committee),<sup>9)</sup> AQA(Assessment and Qualifications Alliance)<sup>10)</sup> 등이 있으며, 그중 OCR이 가장 인정받는 평가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험주관기관들은 나름대로 미디어연구 교과와 각 단계마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교과과정

8) OCR : <http://www.ocr.org.uk/> 홈페이지 참조.

9) WJEC : <http://www.wjec.co.uk/> 홈페이지 참조.

10) AQA : <http://www.aqa.org.uk/> 홈페이지 참조.

의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교육의 큰 틀을 구성해 각 단계마다 학습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미디어연구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OCR의 GCSE 단계에서는 ‘미디어 언어와 범주’, ‘미디어 메시지와 가치’, ‘미디어 제작자(생산자)와 수용자’를 학습하고, A-level(AS/A2)에서는 ‘미디어 형식과 관습’, ‘미디어 재현(표상)’, ‘미디어 제도’와 ‘미디어 수용자’를 학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박지선, 2013). 또한 WJEC에서는 단계별로 ‘현대 미디어 형식’, ‘미디어 재현(표상)과 수용’, ‘미디어 텍스트 만들기’, ‘미디어 텍스트 탐구하기’,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 ‘텍스트와 맥락’ 등을 학습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 미디어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교과서를 통한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각 학교의 미디어 장비나 특성화교육 방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미디어 교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정현선, 2003). 영국영화연구소(BFI)나 영어미디어센터(EMC), 미디어 분야의 전문출판사에서 발행된 교재나 교사용 가이드북, OCR과 같은 시험주관기관 등의 교과과정 안을 참조해 각 학교마다 자율적이며 실험적인 미디어교육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정회경, 2005).

2000년 영국영화연구소가 발간한 “중등학교 교사를 위한 영상이미지 교육 가이드(Moving Images in the Classroom: A Secondary Teachers' Guide to Using Film and Television)”는 다양한 교과활동 속에서 영상 언어를 활용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교재로 알려져 있다. 각 교과를 가르치는 데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미디어를 도구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영상제작을 리터러시의 통합적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밖에 미디어교육 면허증을 부여하는 교육기관 중 하나인 국립 열린 대학 네트워크(The National Open College Network)는 오프콤(Ofcom, Office of Communication)과 연계하여 실무자와 교육생이 함께 미디어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양한 뉴미디어 포맷의 이미지와 정보를 해석하고 직접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1)</sup>

## 2) 미디어교육 기관

유럽에서도 미디어교육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영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문적인 미디어 교사 교육 분야의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하지만 몇몇 시험주관기관들을 통해 실시되는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시험제도와 자체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은 주목할 만하며, 영어미디어센터(EMC), 영국영화연구소(BFI), 런던대학교 교육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 등의 기관에서도 교사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박지선, 2013). 이들 단체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영어미디어센터

영어미디어센터(EMC, English & Media Centre)<sup>12)</sup>는 영어와 미디어를 전공하는 학생 및 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대학준비과정인 고등학교 A-level 학생들을 위한 계간지, e매거진과 미디어매거진을 발행하기도 한다. 컨설팅과 자문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영어미디어센터는 또 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주로 단기과정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일에서 1주 과정의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정현선·심상민·박수경, 2005).

---

11) Ofcom(2009). *Op. cit.*

12) English & Media Centre <http://www.englishandmedia.co.uk/>

- Newly Qualified Teachers' Induction Course (6일): 신입교사들을 위한 도입 과정
- Teaching Media at A-level (6일): A-level '미디어 연구' 교육을 위한 과정
- How to Teach Media Studies at GCSE (3일): GCSE '미디어 연구' 교육을 위한 과정
- Teaching Film Studies at A-level (2일): A-level '영화 연구' 교육을 위한 과정
- Doing Radio at GCSE and A-level (2일): A-level과 GCSE 단계의 라디오 교육을 위한 과정
- Teaching the OCR Specifications for Media Studies A-level (2일): OCR에서 제공하는 A-level 과정
- Improving Your Students' Video Production Workshop (2일): 학생들의 비디오 제작 수준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 Running a Media Department (하루/종일): '미디어부' 운영에 대한 과정
- Basic Video Editing (하루/종일): 비디오 편집 기초
- World Cinema (하루/종일): 세계 영화
- Developing Your Video Editing Skills (하루/종일): 비디오 편집 심화 과정
- Storytelling in Written and Film Texts for KS 3 & 4 (하루/종일): Key Stage 3, 4 단계 교육을 위한 인쇄매체와 영화에서의 스토리텔링
- Animation for KS 3: Exciting Ways to Meet Framework, Media and ICT Objectives (하루/종일): Key Stage 3 단계 교육을 위한 애니메이션 과정
- New Approaches to Media in English at KS 4 (하루/종일): Key

Stage 4 단계의 영어 과목 내 미디어교육을 위한 과정

- Key Topics for AS and A2 Media and Film Study (하루/종일): As와 A2 단계의 ‘미디어 연구’와 ‘영화 연구’ 수업에서 다룰 주요 주제들에 대한 과정

2013년에는 교사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가이드북인 *Spotlight on Literacy: Creative Intervention in English and Across the Curriculum*을 발간했다. 이 책은 미디어 리터러시 티칭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론과 관련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 (2) 영국영화연구소

영국영화연구소(BFI, British Film Institute)는 1933년에 세워진 일종의 정부기관으로 BFI 국립 아카이브와 BFI 루벤 도서관 운영, 영화 배급 등 다양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미디어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박지선, 2013). 사업의 범주에는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및 판매’, ‘정규 교과목에 나와 있는 미디어교육을 위한 부교재(support pack) 제작’, ‘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개발’,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컨퍼런스 개최’, ‘심의 관련 제도 연구’, ‘교재 개발 연구’, ‘정책 개발’, ‘교사 워크숍’, ‘영상 페스티벌 개최’ 등이 포함되어 있다(은혜정 외, 2001).

영화연구소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는 일반인 대상 영화 이해 강좌와 학교의 미디어 교사를 위한 강좌가 있다. 미디어교육 교사 연수에서는 교육기간과 내용에 따라 약 30파운드에서 100파운드까지의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이 비용은 교사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지불한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많고 실험적인 시도가 많아 모든 교사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연구소 산하의 국립영화극장(National Film Theatre)과 연계하여 매우 흥미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정현선 · 심상민 · 박수경, 2005).

- Story Shorts Cinema Session (1일 2시간): Key Stage 1~2 단계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교육 세션
- Reading Films INSET Day (1일): 중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영상언어 읽기 교육
- Representation, Realism and Fantasy INSET Day (1일): Key Stage 4/GCSE 영어교사들을 위한 영상교육
- Screening Stories INSET Day (1일): Key Stage 3단계 영어교사들을 위한 단편영화교육
- Music and Film (1일): GCSE 단계의 음악 교사들을 위한 영화음악교육
- Women and Film INSET (1일): 영화 속 아이콘, 스타, 재현의 대상 및 제작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교육
- Art and Film INSET (2일): 영화와 비디오아트를 중심으로 한 예술과 영화의 관계에 대한 고급 과정

### (3) 런던대학교 교육연구소

런던대학교 교육연구소(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에서는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와 함께 ‘미디어,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전일제 학생의 경우 1년, 파트타임 학생의 경우 2~4년에 걸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정현선 · 심상민 · 박수경, 2005). 그 목표는 미디어, 문화, 뉴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으로, 런던대학교 교육연구소 내의 다양한 교육 분야 석사과정에서 제공하는 모듈과의 결합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런던대학교 교육연구소가 2013년 현재 개설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관련 석사과정의 주제는 ‘읽기 리터러시의 실제(Literacy Practice in Writing and Comprehension)’, ‘미디어 · 문화 교육이론(Media, Cultural Theory and Education)’ 등이다.

#### (4) 오프콤

오프콤(OFCOM, Office of Communication)은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규제 기관이다. TV, 라디오, 유선전화, 휴대전화, 우편산업, 무선기기의 (방송) 전파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을 맡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사기 및 위험으로부터 시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김아미, 2009). 오프콤은 브로드밴드와 같은 초고속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주임무로 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연구 · 교육 · 네트워크 활동 등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 2005년 런던대학 교육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의 데이비드 버킹엄 교수와 런던 정경대학의 소니아 리빙스턴 교수가 각각 수행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성인들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다. 또 2008년에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사용자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연구는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책임, 개인정보의 보호,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사용자들의 온라인 콘텐츠 평가방법(How people assess online contents and services)』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접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것의 신뢰도, 정확도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고, 공식적인 온라인 규제

의 존재 유무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사람들의 온라인 행동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제적인 연구 외에도, 오프컴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바람직한 실천 사례를 발굴, 소개한다. 일례로 온라인 안전의식에 대한 유럽 네트워크가 2009년 9월 8일 시작한 백투스쿨(back 2 school)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였는데, 이 캠페인의 목적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인식 확대였다.<sup>13)</sup>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개입된 관계자들이 네트워킹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 3. 프랑스<sup>14)</sup>

프랑스 미디어교육은 1983년, 교육정보미디어센터(CLEM)가 창설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특히 프랑스에서 미디어교육이 학교교육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는 2005년 ‘학교 미래를 위한 방향과 프로그램(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e pour l’avenir de l’école)’<sup>15)</sup>에서 “지식과 능력에 대한 공통기반(Le socle commun de connaissances et de compétences)”의 필요성이 언급되면서이다(박지선, 2013).

이 법의 제9항은 ‘의무교육은 최소한 모든 학생들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 전반으로 이루어진 공통기반을 습득

---

13) Ofcom(2009). *Op. Cit.*

14) 프랑스 편 자료는 ‘박지선(2013). 유럽의 미디어교육과 동향과 사례 -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구축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내용 일부를 발췌, 재구성한 것이다.

15)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e pour l’avenir de l’école, L. n° 2005-380 du 23-4-2005 / JO du 24-4-2005 / NOR : MENX0400282L

하는 데 필요한 방식을 보장해야 하며, 개인의 미래와 직업적 미래를 구축하고, 사회 속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16)</sup>고 규정하고 있다. 지식과 능력에 대한 공통기반은 모든 학생들이 취학기간 동안 습득해야 하는 학습의 기본을 의미하는데, 개정 내용은 초등학교의 경우 2008년부터, 중학교는 2009년부터 교과과정에 반영되었다.

이 법은 ‘프랑스어 숙달’, ‘외국어 습득’, ‘수학과 과학기술문화의 주요 요소’, ‘정보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상용화된 기술 숙달’, ‘인문’, ‘사회적·시민적 능력’, ‘자율성과 자주성’ 등 7개 항에 기초해서 학생들이 지식, 가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정보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상용화된 기술 숙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정보에 대한 비판과 성찰적 태도, 현실에 대한 의미부여 능력, 미디어교육, 미디어의 사회적 위상과 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교육정보미디어센터를 축으로 실천되고 있는데, 핵심 내용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연수 강화’, ‘미디어사 및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학생들의 미디어 표현에 대한 관심 증진과 참여 유도’ 등이다.

## 1) 학교 미디어교육

프랑스 초·중·고등학교의 정규과목에 등장하는 미디어교육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박지선, 2013).

- 시민권 · 세계에 대한 이해, 미디어교육에 대한 개방성

---

16) “La scolarité obligatoire doit au moins garantir à chaque élève les moyens nécessaires à l’acquisition d’un socle commun constitué d’un ensemble de connaissances et de compétences qu’il est indispensable de maîtriser pour accomplir avec succès sa scolarité, poursuivre sa formation, construire son avenir personnel et professionnel et réussir sa vie en société”.

- 이미지 읽기, 영상, 시각
- 학습 목표로서의 미디어
- 정보자료 혹은 교육적 지원물로서의 미디어

첫째, ‘시민권, 세계에 대한 이해, 미디어교육에 대한 개방성’ 요소는 불어 교육에서 교육의 목적을 인성교육, 시민교육(여론에 대한 사고와 논증에 대한 능력)에 두고, 인성과 시민성 양성, 비판의식 고양, 여론에 대한 성찰이 가능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윤리의식을 갖춘 올바른 시민상 구현을 위해 교사들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예술적인 삶을 인간의 활동영역으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정보에 대한 연구와 정보원천에 대해 관심 갖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외국어교육에서 시민교육으로서 타문화에 대한 개방을 통해 진정한 다문화교육 혹은 간문화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픽션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한 구두메시지 이해로 진행되기도 한다. 예술과목의 경우는 영화와 시청각 도구들을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매개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술 방법론적 요소를 분석하여 비판력을 고취시키기도 한다.

지리·역사 과목인 사회과 교육에서는 동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비판적이고도 능동적인 민주시민의 자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이 요소들은 명석하고, 문화적이며, 자율적인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며, 문화실행 과정 속에서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이미지 읽기, 영상, 시각’ 요소는 불어교육에서는 이미지·담화와 같은 다른 언어들과 비교해보고, 예술과목, 문화역사, 이미지 분석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는 언어가 문자언어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의



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며 미디어의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읽기교육은 이미지 교육에 관한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스틸 이미지나 동영상상을 사용하기도 하며, 이미지 분석은 예술과목과 함께 학습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술교육에서 영화와 시청각분야는 계획, 시각, 현실의 재현, 영화문화의 접근과 시청각 접근, 이미지와 소리에 대한 특수 언어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으며, 음악 분야에서는 광고 필름 등을 통해 소리와 이미지와의 관계를 학습한다.

언어영역에서는 영상, 시청각 자료의 사용(광고, 만화, 위성사진, 사진, 도표 재현 등), 비디오자료, 영화 요약을 통해 언어의 다양한 형태들을 살펴보는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영어 과목에서는 문화적 목적을 가지고 영화 언어를 학습하기도 하는데, 영어로 된 결과물을 비디오로 제작하는 등, 현실에 관한 다큐멘터리, 픽션 영화 프로그램을 시각화하고 있다. 과학 과목은 ‘미디어를 통한 교육’이 대부분이며 영상재현을 통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학습목표로서의 미디어’ 요소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그 효과(인터넷, 전자메일 포함) 이해를 강조한다.

불어과목에서는 학생들의 문학적, 문화적 현실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기 위해 신문기자들과 연계한 수업을 직접 실행하고 있다. 이는 제작수업인 아틀리에 프로젝트 수업 내에서 가능하며 지역의 신문기자들을 초청하여 신문을 이해하는 수업을 교사와 함께 진행한다.

역사 과목에서는 19세기에 대한 설명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스포츠에 기인하여 대중문화 탄생을 보여 주고 있으며, 사회 과목의 “소비” 단원에서는 소득, 국가유산, 유행, 미디어, 문화의 영향에 따른 행동에 관한 학습을 한다.

넷째, ‘교육적 지원물의 형태인 정보자료’ 요소는 불어과목에서 문학적 텍스트와 비문학적 텍스트, 문자와 다른 언어들과의 관계 맺기, 창작물 쓰

기 연습, 영상물 같은 보충 자료 사용, 언론 기사와 이미지들 사용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 외에 최근 들어서는 ‘활동, 능력, 제작’ 요소가 추가되어 정규 교과에 반영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미디어교육 요소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연구과학기술부를 신설해서, 교육용 멀티미디어 및 시청각 교재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용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요구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2) 미디어교육 기관

### (1) 교육정보미디어센터

1983년에 창설된 교육정보미디어센터는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프랑스 미디어교육의 산실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3월 28일 법령에 의해 명칭을 ‘교육·정보센터(centre de liaison de l’enseignement et des moyens d’information)’에서 ‘교육정보미디어센터(CLEMI, centre de liaison de l’enseignement et des médias d’information)’로 변경했다. 교육정보미디어센터의 주요 업무는 미디어교육의 이해관계자들 대표 64명으로 구성된 ‘결정개선위원회(Conseil d’orientation et de perfectionnement)’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1년에 2번 전체회의가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며, 4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

교육정보미디어센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기관, 특히 교사 교육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2011~2012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연수 대상 교사가 2,700명에 달했다(박지선, 2013). 연수유형은 ‘통합 인턴십 과정’, ‘분할 인턴십 과정’, ‘코디네이터 연수’, ‘특수 연수’, ‘지역별 코디네이터 세미나’, ‘국가 교원양성 계획에 따른 연수’ 등이 있다.

교육기관에서 열리는 미디어교육 이수를 위한 ‘통합 인턴십 과정’은 센

터 내에서 5일간 실시되고, 두 차례의 연수가 봄과 가을에 각각 15개 기관에서 열린다. 이 연수의 강사는 기자, 교수, 법률가, 미디어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분할 인턴십 과정’은 미디어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미디어교육 지원사업과 실천의 변화를 위해 실시되는 연수과정이다. 통상 3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며, 아카데미 코디네이터가 실시한 니즈 분석에 따라 지역 미디어에 대한 수업이 포함된다. ‘학술 코디네이터 연수(Stage de prise de fonction du coordonnateur academique)’는 지역 단위에서 새로운 코디네이터 양성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2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진다. ‘특수 연수’는 학교 단위의 신청을 받아 실시되는 연수이다.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주제는 해마다 달라진다. 지역 코디네이터 세미나는 미디어교육에 관한 현황 정보와 노하우를 교류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수로 매년 6월과 11월에 2일 동안 개최된다. 국가교원양성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연수는 ‘미디어 능력과 미디어문화’를 주제로 강의식으로 실시된다.

교육정보미디어센터는 또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디어 관련 직업 현장에 관한 교육정보’, ‘뉴미디어 및 특수기술에 대한 설명 자료’, ‘일상생활과 관련된 미디어의 세계’ 등이다. 또 학습용 DVD를 제작, 보급하고 있는데, ‘TV 배우기: TV뉴스편(Apprendre la télé: le JT)’은<sup>17)</sup> 교육부의 지원 아래 INA,<sup>18)</sup> CLEMI,<sup>19)</sup> CEMEA<sup>20)</sup>가 공동으로 제작한 학습 자료로 TV 뉴스 분석을 통해 TV 매체의 현실을 학습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중등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 대학의 정보과학대학 1, 2학년 학생들 그리고 미디어교육 관련 교사양성 과정에서 교재로 활용된다. 이 DVD는 미디어교육에서 교사들이

17) 박지선(2004a). 위의 책.

18)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19) Le Centre de liaison de l'enseignement et des moyens d'information

20) Association nationale France

현실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자료의 수집과 기술적인 면을 충족시켜주었으며, 미디어와 영상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사용된 어휘에 대한 학습은 자국어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정보미디어센터는 또 ‘학교신문 미디어 주간(la Semaine de la Presse et des Médias dans l'École)’ 행사를 주관한다. 24회 째를 맞는 2013년 행사에서는 15,375개 학교 350만 명의 학생들과 함께 23만 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참가했는데, 참가 교사들은 1,900여 개의 미디어 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활동을 수행했다.

학교신문 미디어 주간 동안의 미디어교육 활동은 미디어 분석과 미디어 제작의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기사쓰기, 다른 미디어와 같은 사건 비교하기, 외국어로 된 신문 읽기, 신문이나 TV에서 정보를 다룰 때 사용되는 이미지 분량, 잡보, 신문이나 TV에서의 정보취급 등 주제에 따라 나누어진 미디어 분석 아틀리에에 참여하게 된다. 라운드 테이블이나 신문기자들과 함께하는 아틀리에에서 토론에 참여하기도 하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알아보거나 블로그 등을 만들어보기도 한다. 라디오 세계에 빠져보거나, 직접 신문을 제작하기도 한다.

일간·주간·월간 정보지들과 비교하면서 신문잡지를 제작해 보고, 신문 편집국이나 학교가 조직한 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을 격려하는 신문기자들에게 구두 혹은 신문 기사를 통해 대답을 해보기도 한다. 또한, 신문사진의 역사, 정보의 순환, 어제와 오늘날의 신문 등을 주제로 전시를 계획해 보는 활동도 이루어진다.

## 4. 벨기에<sup>21)</sup>

### 1) 미디어교육위원회

벨기에 프랑스어 공동체 정부는 1995년 교육 및 미디어 분야(교육계, 학계, 전 세계 미디어교육 전문가, 정부, 행정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미디어교육위원회(CEM, Conseil de l'éducation aux médias)<sup>22)</sup>를 조직했다. 미디어교육위원회는 미디어정보센터로서의 위상을 가지면서 벨기에의 미디어교육 현실을 파악하면서 미디어, 사회문화 단체, 학부모 협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 직무연수와 관련하여 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박지선, 2013).

미디어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는 첫째, 정부에게 미디어교육의 당면과제, 교사 기초교육과 계속교육에 미디어교육 통합, 필수과목으로서의 미디어교육 도입, 교육자료센터로서의 활동, 연구사업, 체험활동 장려에 대해 조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둘째, 미디어교육의 체험, 연구 그리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을 장려하고, 평가해야 할 임무를 지닌다. 셋째, 정보센터, 보급센터, 문자 및 시청각 미디어, 사회문화 협회, 학부모 협회 등 여러 후원기관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 유지의 의무가 있다.

미디어교육위원회는 수준 높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보센터 교사들의 요구에 맞춰 교사양성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교육에 멀티미디어 도입에 따른 사회적·교육적 영향력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출판물도 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에는 『미디어교육에 대

---

21) 벨기에 편 자료는 '박지선(2013). 유럽의 미디어교육 동향과 사례-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구축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내용 일부를 발췌, 재구성한 것이다.

22) Robert Wangermée, Le rôle du conseil de l'éducation aux médias: <http://www.csem.cfwb.be>

한 12가지 제안』 보고서를 만들어 초·중·등 교사들에게 배포했는데, 이 자료는 미디어교육의 목표와 시청각 도구를 사용하는 수업 내용을 재설정하여, 미디어교육위원회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방식과 수업 내에서의 교수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일련의 제안을 담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은 인간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디어교육위원회는 저작권, 학교 라디오, 미디어교육의 통합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의 시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2) 리에주 시청각센터

1975년 창설 이후 리에주 시청각센터(Le Centre Audiovisuel de la Ville de Liège)<sup>23)</sup>는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특히, 리에주 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센터는 정보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사과정(3학년)이나 중·고등교육 교수자격시험(agrégation)에 등록한 학생들을 주로 수용하고 있다. 매년 많은 커뮤니케이션 전공 학생들이 이 센터에서 직업실습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두 달간 제작물의 촬영이나 편집을 한다. 학생들은 영화와 시각예술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을 이곳에서 적용하여 실습할 수 있으며, 자신들만의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 센터는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센터의 제작 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루면서, 더 구체화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1998년 미디어도서관에 만화를 주제로 논문을 쓰는 실습생이 들어오자 만화 섹션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청각센터와 리에주 대학 간의 협조관계는 중·고등교육 교수자격시험과정에서도 이루어진다. 리에주 시청각센터는 학생들에게 실습

---

23) Michel Clarembeaux, Le Centre Audiovisuel de la Ville de Liège:  
<http://www.csem.cfwb.be>

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며, 미래의 교사들과 ‘교사교육 간학문센터 (Centre Interfacultaire de Formation des Enseignants)’의 학습 지도자들에게 수업장소를 제공해 준다. 수업에는 종이신문, 이미지 언어, 소리언어, 광고, 기업 커뮤니케이션, 기계 조작 등에 대한 학습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리에주 시청각센터는 미디어 도서관에 수십만 개의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슬라이드, 사진자료, 비디오, 언어학습 관련 CD롬(Rom)이나 멀티미디어 자료 등 문자매체 및 시청각 매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센터의 도서관은 기호학, 경제학, 사학, 심리사회학, 미디어 방법론 등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활동에 관한 자료 약 2천권을 소장하고 있다.

이렇듯 리에주 시청각센터는 교육정보자료센터로서 공식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특히, 미디어도서관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리에주 시청각센터는 대학과 고등교육기관과의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활동들은 미디어를 통한 교육에서 나오지만, 미디어교육의 가치를 비롯하여 분석대상이자 사고의 방식으로 미디어에 대한 고찰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 3) 미디어교육자원센터

미디어교육자원센터(Le centre de ressources pour l'Éducation aux Médias)는<sup>24)</sup> 1995년 프랑스어공동체 정부법령 제7조에 의해 미디어교육

---

24) Jean-Marie Martin(Directeur du Centre d'autoformation et de formation continuée de l'enseignement de la Communauté française), 프랑스어공동체가 주관하는 교육을 위한 미디어교육 정보자료 센터 Le Centre de Ressources en matière

위원회의 창설되고 미디어교육 자료에 대한 자원센터가 승인되면서 조직되었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에 협력하고, 초·중·고등 교육기관 교사들을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한다.

둘째, 미디어교육의 확산을 위해 학교장, 감독기관 구성원, 프랑스어공동체 조직의 교육책임자들의 인력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프랑스어 공동체 교사를 위한 미디어교육 프로젝트 회의를 지원하고 개최한다.

넷째, 미디어교육 계속교육 수혜자들을 위한 자료를 제작하고, 교육받는 교사들에게 자료와 필요한 수업교재를 제공한다.

다섯째, 미디어교육을 실행하는 다른 조직과 연계하여 함께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 5. 핀란드<sup>25)</sup>

### 1) 미디어교육 정책의 발전과정

핀란드에서 미디어교육은 국가 정책 전략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오랫동안 미디어 리터러시와 안전한 미디어 환경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관심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왔다.

---

d'Education aux médias pour l'enseignement organisé par la communauté française

25) 핀란드 편의 주요 내용은 'Finnish Society on Media Education(2012), Finnish Media Education Politics: Approaches in culture and education, Finnish Society on Media Education'의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미디어교육에 관한 사안들은 교육부의 두 부서에서 다루어진다. 하나는 교육과학정책부(Th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cience Policy)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체육·청소년부(The Department for Cultural, Sport and Youth Policy)다. 국가기구인 핀란드교육위원회(The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는 교육 영역에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등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2003년 반하넨(Vanhanen) 초대 내각에서 정부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은 폭력물 시청 제한에 주목표를 두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07). 2003년에 교육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미디어환경 구축에 초점을 둔 광범위한 영역에 달하는 프로젝트 어린이와 미디어 프로그램(the Children and Media programme)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해로운 유해환경과 범죄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입법, 새로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교류 활성화와 연구 촉진, 품격 있는 콘텐츠 제작 독려, 미디어산업에 대한 책임 부여 부모와 가정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이후 어린이와 미디어 프로그램은 미디어교육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으로 어린이와 교육자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프로그램의 핵심 테마는 어린이들에 대한 미디어교육의 장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장에 미치는 미디어의 효과와 관련 정보의 배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이전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정책 초점이 안전한 환경 구축에서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에 핀란드 교육부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했다. 그 위원회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그 제안 중에는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법조항의 개정, 핵심 커리큘럼 개정 및 교사연구 강화 등을 포함한다. 전국 단위의 미디어교육 연구소 설립, 학습자료의 조사, 수집, 제작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위원회는 또한 다학제 간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과 국제 교류 강화를 제안했다. 위원회의 제안들은 교육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그대로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2007~2012 연구개발 계획’에서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연구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성취도 측정자료 및 방법론을 개발했으며 핀란드 교육위원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또한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별도로 분리되었던 부서들이 통합되었다. 미디어정책 관련 부서, 어린이보호와 관련된 부서, 미디어교육 분야의 교육부서와 현장 연구자 등의 토론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활성화와 안전한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미디어 제작자들의 협조 하에 수행되었다.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교육은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중요한 영역으로 취급되었다. 부모들과 교육자들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영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미디어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관한 것을 알려주고 숙지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 연구와 교사들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역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핀란드어로 미디어교육을 의미하는 미디어 카투보투스(Mediakasvatus)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에게 다양한 미디어를 교육하는 데 교육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을 대표하는 말이다. 이러한 교육 작업은 미디어에 대한 교습과 미디어를 통합 교습을 포함한다. 이것은 미디어가 교육적인 콘텐츠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학습 목표이자 교습도구(teaching tool)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교육의 목표는 개인이 미디어 리터러시 스킬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디어를 제작하고 미디어 콘텐츠와 표현방식을 이해하고 미디어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자기표현력을 높이고 비판적 사고에 응용하는 것을 포함한다(Kotilainen, S, 2005).

## 2) 미디어교육에 관한 교수 및 학습

미디어교육은 핀란드 교수 및 학습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일단 주간 타아센터를 통해 수행된다. 미디어교육은 하나의 과목이라기보다는 티칭과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교육 및 티칭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연수는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되고 있다. 미디어의 진화와 뉴미디어교육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핀란드에서 부쩍 강조되고 있다. 당연히 그 연구는 다학제적인 특징을 띤다. 인문학, 사회학, 교육학, 정보학 등이다. 핀란드에서 대학들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강조한다. 몇몇 대학들은 미디어교육을 응용학문의 한 과정으로 그리고 특수 연구프로그램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핀란드의 휴마크 응용과학부(the HUMAK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와 다이아코니아 대학(Diaconia University)의 응용과학부는 미디어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0학점짜리 특수 과정의 미디어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Suoranta, J. & Vaden, T., 2008).

## 3) 대학에서의 미디어교육과 교사 연수

핀란드에서 교사연수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다. 교습방법에 관한 연구는 석사학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교사연수에서 미디어교육의 총량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미디어교육을 완전한 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보통 미디어교육 콘텐츠는 소수과목 과정이나 독립형 과목으로 연구될 수 있다. 많은 미디어교육 과정들이 석사 후 연구과정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있다.

## (1) 티칭시스템

미디어교육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학과(과목)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4년제 대학에서 정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시각 예술교사들은 예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야 한다.

둘째, 교실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대학의 석사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그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에서 다학제간 연구를 포함해야 한다. 교실 수업을 전제로 한 미디어교사 프로그램은 1997년 랍랜드 대학(University of Lapland)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셋째, 유치원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학사학위를 받아야 한다.

넷째, 가이던스 카운슬러(상담교사 혹은 카운슬러)가 되려는 사람들은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데, 지도학과 교수학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섯째, 휴가기간 학교 교사 혹은 산업정보(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관련된 분야의 현장 경험을 가지거나 석사프로그램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에도 교습학은 필수적이다.

## (2) 유아 돌봄 시설에서의 미디어교육

핀란드의 유아 교육과 돌봄은 주간탁아돌봄과 목표지향의 어린이교육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핀란드 유아법에 따르면 7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조건 없이 주간탁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시스템은 공적 서비스와 사적 서비스로 구성된다. 시 유아교육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90% 이상은 무료로 제공된다.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6세 이하에 해당하는 예비학교에 참여한다.

유아에 대한 미디어교육은 21세기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유아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문화를 통한 생활능력을

함양하고 미디어와의 관계, 그리고 연령 발달단계에 적합한 행동 양식을 배우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미디어교육은 사건, 경험, 그리고 역할놀이 형태로 학습하는 것에 기초를 둔다.

미디어교육은 또 다른 어린이교육 속으로 통합되었다. 2006년과 2007년에 국립건강복지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된 교육부의 미디어머핀 프로그램(Media Muffin Program)은 미디어교육을 위한 국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 가이드북은 책으로도 출판되었는데 핀란드 주간탁아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디어머핀은 유아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07).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미디어교육 문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체 없이 다뤄졌는데 어린 아이들에 대한 미디어교육 장려 프로젝트인 미디어머핀은 그중 하나다. 미디어머핀 프로젝트는 미디어교육을 핀란드 유아 교육 및 보육용 국정 교과과정 지침 안에 포함시키도록 발의했다(2005년). 발의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소인 국립 보건복지 연구개발원(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for Welfare and Health)에 의해 채택되었다.

교육문화부와 함께 비정부조직(NGO)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중에서도 ‘학교동아리클럽센터(The Center for School Clubs)’, ‘학교영화협회(School Cinema Association)’, ‘미디어교육센터메트카(Media Education Center Metka)’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 기관들은 미디어머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문화부로부터 연간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았다. 그밖에 미디어교육계 및 일반 교육계의 전문가, 단체, 행정 당국, 관청 등이 이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원을 해주고 있다(Suoranta, J. & Vaden, T., 2008).

- 핀란드유치원교사협회(Association on Kindergarten Teachers in Finland)
- 핀란드시청각교재제작자저작권협회(Copyright association for audiovisual producers in Finland)
- 핀란드영상등급위원회(Finn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 핀란드 방송국(YLE)
- 핀란드 영화 컨택(Finnish Film Contact)
- 핀란드도서관협회(Finnish Library Association)
- 핀란드국립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 핀란드신문협회(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 핀란드부모협회(Finnish Parents' association)
- 케스키-수오미필름센터(Keski-Suomi Film Center)
- 핀란드지방및지역공공기관협회(Association of Finnish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 어린이복지를위한마너하임연맹(Mannerheim League)
- 미디어교육협회(Media Education Society)
- 보건복지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 국립보건복지연구개발원(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for Welfare and Health)
- 핀란드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Finland)
- 핀란드교육직노동조합(Trade Union of Education in Finland)
- 필름 센터(Film Centre) 몇 곳

정부가 미디어머핀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지원한 것은 미디어교육자 네트워크(Network of Media Educators)였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07). 이것은 미디어교육자들이 결성한 네트워크로 핀란드 모든 지역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소규모 네트워크들을 통합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미디어교육자들을 불러 모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Kupiainen, R.; Sintonen, S. & Suoranta, J., 2008).

미디어머핀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프로젝트가 미친 영향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밝혀졌다. 그 영향 중 주요한 것들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용 교재를 핀란드의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및 취학 전후의 어린이 활동과 관련된 단체들에 발송하였다.
- 약 1,200명의 교사와 교육자가 교육을 받았다.
- 미디어머핀에 관한 보도가 미디어를 통해 이뤄진 뒤, 유아들에 대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일반국민들의 화젯거리로 부각되었다.
- “어린이 영화 프로젝트-영화제작자와 감독을 위한 프로젝트(Children’s films-a project for film makers and producers)”를 통해 미디어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 핀란드 대학교들에 최소한 1건의 연구 프로그램이 채택되도록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탐페레 대학교(Tampere University)가 미디어머핀 연구를 선택과목으로 정했다.
- 미디어교육계의 전문가들, 각종 단체, 정부 당국, 공공기관들로 구성된 매우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 4) 기본 의무교육으로서의 미디어교육

2004년에 개정된 중등학교 커리큘럼에서 미디어교육은 크로스 커리큘럼 테마로 통합되었다. 크로스 커리큘럼 테마는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미디어를 다양한 주제와 연결시켜 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다. 그 테마는 또한

현 시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크로스 커리큘럼 테마에서 자주 수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주제들은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스킬들을 인간성, 문화정체성, 국제화, 시민정신, 기업가정신, 환경에 대한 책임감, 웰빙과 지속가능한 미래 안전, 교통, 인간, 그리고 테크놀로지 등과 연계한 것들이다.

기본교육에서 크로스 커리큘럼 테마의 교육 목표는 표현력과 상호작용 능력을 개발하는 것, 미디어의 텍스트와 의미를 이해하는 것, 미디어의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강조사항은 책임감 있고 상호작용적이며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있다. 미디어 스킬은 송신자로서 스킬과 수신자로서의 스킬을 모두 포함한다.

중등학교 커리큘럼에서 미디어교육 콘텐츠는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능력이라고 불리는 크로스 커리큘럼 테마의 일부다. 그러한 테마 외에 크로스 커리큘럼 테마들은 ‘적극적인 시민정신’과 ‘기업가 정신’, ‘웰빙과 안전’,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정체성’, ‘문화적 지식’, ‘테크놀로지와 사회’ 등과 관련되어 있다.

미디어교육에 대한 책임은 전체 학교 문화의 일부로서 모든 선생님들 모든 과목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미디어교육을 이행하는 것은 학교에서 간섭을 받고 있지 않다. 교사들의 미디어스킬, 미디어장비 현황, 미디어교육에 대한 강조 정도는 전국의 학교에 따라 다양하다. 과목별 교사들 중에서 언어교사와 예술교사의 재량권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미디어교육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제별, 학교급별, 연령대별로 구분된 많은 유무료 자료들이 개발되었다. 학교 클럽활동들 또한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 목표는 학교 클럽활동 모델들을 개발하기 위한 것들이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미디어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초등학교 미디어교육의 목표

- 자기 스스로 함축성 있고 책임감 있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것이다.
- 개인 정보관리 능력을 기르고 수집된 정보를 비교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 콘텐츠와 관련된 윤리적 심미적 자세를 고양하는 것이다.
- 메시지를 제작하고 배포하며 미디어를 자신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각기 다른 상황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데 있어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디바이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중등학교 미디어교육의 목표

-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충분한 스킬을 구사하는 것이다. 학생은 그가 선택한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사회적 지식과 함께 소비자로서 필요한 스킬들을 배워야 한다.
- 이슈를 윤리적이고 심미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 이용 그리고 미디어 행위에서의 책임감을 배워야 한다.
-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 능력을 배워야 한다.
- 미디어 텍스트를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할 때 자신의 표현을 다양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
- 학습 도구로서 그리고 학습환경으로서 미디어를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 학습과 관련된 상호작용의 상황에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

야 한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 미디어가 작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이해해야 한다.
- 커뮤니케이션 분야, 미디어 제작자,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 5) 문화미디어교육 활동

핀란드에서 미디어를 어린이와 젊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하도록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미디어 리터러시 개발과 관련된 활동들은 청소년활동, 도서관, 학교 클럽, 박물관, 그리고 문화 및 영화센터 기타 기관 등에서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왔다.

핀란드의 문화미디어 활동은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아 왔다. 영화 및 텔레비전 교육센터는 1958년에 처음 설립되었다. 미디어교육 전통의 핵심 테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발현해 보게 함으로써 그리고 미디어 스킬들을 배우는 것들이었다. 주간탁아소와 학교 교실에서의 어린이들은 영상미디어센터와 제휴해서 애니메이션과 단편 영상을 만들어보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수많은 국제 페스티벌에서 많은 상을 받기도 했다.

핀란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문화센터와 박물관들이 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회 전반에 걸친 테크놀로지의 진화와 함께 미디어교육은 박물관의 교습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Kotilainen, S. & Rantala, L., 2008).

타이카람프-알라딘의 램프(Taikalamppu-Aladdin's Lamp)는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 단위의 전국적인 망을 가진 예술센터 네트워크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핀란드 전역에 걸쳐 어린이들의 문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알라딘의 램프는 어린이 아트센터들로 구성되며 지역 문화

서비스를 세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핀란드에서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아주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지역단위 서비스다. 많은 소단위 마을에서 도서관은 극장, 스토리텔링 이벤트, 영화스크리닝과 전시장의 형태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를 제공하는 유일한 문화기관이다. 도서관은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미디어와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준다. 도서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검색 방법, 읽습관 형성, 미디어 리터러시 스킬 등을 습득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 6. 미국

### 1) 미디어교육 기관

미국 각 주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많은 단체들은 대부분 비영리 단체들로서 비영리 재단이나 종교 재단 등의 자금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단체들은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그 지역의 미디어 제작자들, 교육자, 학생, 부모, 지역 사회 단체(commnitygroups) 등에 미디어교육 관련 정보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단체들은 미디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용 교재·워크북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청각 자료, 게임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단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교육용 교재와 시청각 자료 등을 각 지역의 학교에 제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도 한다. 이렇게 미국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들은 미국 전역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단체들의 성격 또한 다양하다. 미국 미디어교육 단체를 대표하는 미디어리터러시센터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26)</sup>

미디어리터러시센터(CLM, Centerfor Media Literacy)는 90년대 이후

미디어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교육 교재개발과 출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단체는 미디어교육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수용자운동을 펼침으로써 미디어 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여은주, 2000).

미디어리터러시센터는 다음과 같이 5대 핵심 개념을 만들어 이에 대한 교육 과정을 체계화했다.

- 모든 미디어 메시지는 만들어진다.
- 미디어 메시지는 자체 룰에 의거해 창조적 언어로 만들어진다.
- 같은 미디어 메시지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인다.
- 미디어는 가치와 견해를 심어준다.
- 대부분의 미디어 메시지는 이익과(또는) 권한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런 전제에서 미디어리터러시센터는 1999년 ‘교육을 통한 권한부여(Empowerment through Education)’라는 세 가지 교육철학을 채택했는데, 첫째, 글로벌 미디어 세계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평생교육이며, 둘째,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은 정보에 입각한 질문(informed inquiry)이며, 셋째,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검열’, ‘거부’ 혹은 ‘비난’하는 대신에 하는 행위다.

시민운동단체 모델로서 미국의 미디어교육은 공교육 모델과는 달리 학부모, 교사, 지역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들에게 미

---

26) 미국미디어교육센터 홈페이지 CLM: <http://www.medialit.org> 참조.

디어교육은 그 자체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시민운동과의 연계성을 도모하거나 민주사회의 시민양성, 민주주의 실현 등과 같은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미국의 미디어리터러시센터(CML)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전역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발전상황을 소개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5대 핵심 개념과 “교육을 통한 권한부여(Empowerment through Education)”라는 교육철학을 채택하고 이를 위한 과정으로서의 5대 핵심 질문을 만들어 교육 과정을 체계화했다. 즉, 미디어리터러시센터는 미디어교육에 있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수많은 미디어교육단체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 미디어교육 강사 교육이나 커리큘럼 개발에 있어 미국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sup>27)</sup>

미국 템플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르니 홉스(Renee Hobbs)는 일관되게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전 국가적인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홉스 교수는 2005년 10월 민주주의 정보충족을 위한 나이트 위원회(Knight Commission on the Information Needs of Communities in a Democracy)는 정책보고서 『커뮤니티 사회의 도래: 디지털시대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에서 커뮤니티 정보 충족을 위한 10개의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주요 토픽은 ‘전지구적인 브로드밴드’, ‘시민의 참여와 참여’, ‘정부 투명성’, ‘온라인 허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로컬 저널리즘’, ‘공적 미디어’ 등이다.

---

27) 주요 내용은 ‘Renee Hobbs(2010), Digital and Media Literacy: A Plan of Action’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1) 제안배경

홉스 교수에 따르면 오늘날 현대문화에 충분한 참여는 메시지의 소비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메시지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들은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한 멀티미디어 기술에는 언어, 그래픽 디자인, 이미지, 음성 등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구성하는 능력이 포함되고 또 이러한 스킬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능력들은 공식적인 교육환경, 특히 유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과정에서 개발되어야 하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환경에서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공식 교육에서 디지털과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디바이드와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는 하나의 가교가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을 독려하고 주제 영역들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 보고서는 커뮤니티 교육 운동을 통해 디지털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공식적·비공식적 환경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관한 액션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액션 플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지역, 주, 연방 단위의 교육관계자, 공공도서관 관계자, 지역시민 단체 리더, 미디어 및 IT 분야 리더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Becker, et al., 2010).

이 보고서에서는 디지털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디어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정보홍수시대에 충분하고 완성된 참여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생활능력(a constellation of life skills)”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일련의 생활능력들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Hobbs, 2010).

- 각종 자료들을 적절하게 위치시키고 공유하고 정보와 아이디어들을

- 이해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과 접근을 하는 능력
- 메시지를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는 능력: 저자, 정보의 목적, 관점 등을 인지하고 그리고 콘텐츠의 질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
- 언어, 이미지, 음성,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수단과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창출하는 능력
-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들을 적용해서 자신의 행동과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반추하는 능력
- 개인적으로 그리고 협동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사회적 참여 행위를 하는 능력

디지털 시대에 시민의 핵심능력을 포함한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능력들은 다양한 실행적 가치를 가지는데 온라인상의 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은 관련된 정보를 찾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관련된 건강 정보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그 정보가 엄밀한 검증을 거친 정보인지 아니면 마케팅상으로 조작된 정보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교육기회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사람들은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실재를 어떻게 표상하고 또 조작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사회를 개선시킬 실제적인 시민 시민활동에 진정성 있게 참여하고 사회적 행동을 하기 위해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이 공동으로 했을 때의 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디지털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 영역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미국 교육부의 2010 테크놀로지 플랜(미국 교육의 변화: 테크놀로지를 통한 학습)은 그 영역이 언어영역이든, 예술영역이든 아니면 더 나아가 수학, 과학, 사회탐구, 역사, 예술, 혹은 음악 영역이든지 간에 21세기에 요구하는 능력은 비판적 사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협동,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능력과

전문성이 필요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본 요소들은 능력 있는 학습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고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선결능력이기도 하다.

상원의원인 제이 록펠러(Jay Rockefeller)는 「21세기핵심능력을위한 인센티브펀드법」을 제안했다. 이것은 학생들의 커리큘럼에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가 공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법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오늘날의 아카데미 환경을 뛰어넘어 비판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크리에이티브 및 혁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각 주마다 매년 1억 달러의 예산이 지원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같은 상원의원인 타미 볼드윈(Tammy Baldwin)과 셸리 무어 카피토(Shelley Moore Capito)는 「청소년건강미디어법(the Healthy Media for Youth Act)」을 제정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법안 상정과정에서 유효화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르니 홉스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이용, 활용하고 그들에 필요한 생활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 열 가지에 이르는 액션 플랜을 제안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람들이 아이디어와 정보에 보다 깊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일상의 문화생활에서 결정과 참여를 도와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다.

## (2) 액션 플랜을 위한 10가지 제안

모든 미국인에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포괄적인 커뮤니티 단위의 교육운동이 필요하다. 로컬, 지역, 주, 그리고 전국 단위의 이니셔티브가 필수적이다. 모든 시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디



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함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적 자원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운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 단위에서 핵심 대상자(key audience)와 지역이 필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 이민자, 특수 교육학생, 범죄소년, 연령이 있는 시민들, 유·초·중등과정의 학생, 종합 대학 및 단과대학, 도서관, 청소년 미디어센터 등을 포함한 이러한 필요 요소들은 기존의 로컬 자원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10개에 이르는 액션 플랜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3) 커뮤니티 이니셔티브(community initiative)

#### ① 제안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기존의 커뮤니티 자원들을 연결하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함양을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도록 커뮤니티 파트너십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와 커뮤니티의 리더들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디지털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인식의 증대와 더 나은 협력 및 조정은 지역 단위의 업무 확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개발하고 조직화된 능력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 커뮤니티에 근거를 둔 재단들과 미디어 혹은 테크놀로지 관련 기업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기존의 커뮤니티 자원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디지털 콘넥터스(the Digital Connector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컴캐스트재단(Comcast Foundation)은 컴캐스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에 프로젝트를 연결하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원할 수 있다.

각각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데 지원가능 기관들은 경험이 있는 지역 그룹과 커뮤니티의 기존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수적인 자원의 연결, 교육훈련, 그리고 각종

서비스들은 그 커뮤니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과 자산을 알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각각의 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있는 핵심 가치와 우선순위를 알게 해주는데도 유익하다. 그것은 또한 취약계층을 알게 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게 해 주는 데도 도움을 준다.

재단이나 기업 스폰서들은 연간 단위로 2만5천에서 7만5천 달러까지의 후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특정 커뮤니티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자원들을 연결해주는 능력을 가진 지역 그룹의 예는 GMLP(the Gateway Media Literacy Partners)다. GMLP는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경험을 가진 커뮤니티 리더들의 연합체다. 이 그룹은 미디어 리터러시전국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 Education)의 지부로 활동하기도 한다.

- 커뮤니티 파트너십의 예: 디지털 콘넥터스 프로그램

디지털 콘넥터스 프로그램은 2001년 워싱턴 디시의 원 이코노미(One Economy)에 의해 발족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4세에서 21세 사이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공인된 테크놀로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젊은이들이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21세기 취업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들은 다시 그들의 가족과 지역 거주자들에게 테크놀로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교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직접 참여하는 실습식 학습 외에 디지털 콘넥터들은 또한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사이트 방문을 통해 취업 기회에 관한 것을 학습하기도 하고 일종의 진로체험 교육인 잡새도우잉(job-shadowing) 경험, 캠퍼스 투어 등을 하기도 한다. 참여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시의 고용훈련프로그램을 거친 후에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써 급료를 받거나 새로운 컴퓨터를 보상받기도 한다.

프로그램들은 커뮤니티센터나 도서관, 학교 등을 이용해 실시한다.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5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거쳐 갔다. 2010년 이후에 미 연방기금인 ARRA(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전국의 19개 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 ② 제안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교 교육과정으로 통합하기 위해 여름 학기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 네트워크를 지원하라.

학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가치와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시키기 위해 학교 내 섬머 프로그램들을 활용,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의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미국 어린이들의 75% 이상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섬머 학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젊은이들 사이의 성적 격차의 대부분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의 섬머 학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재미와 교육을 혼합한 여름학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어린이들을 위한 파워풀 보이스 프로그램(the Powerful Voice’s Program for the Children)’이다. 이것은 대학-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여름학기 동안 5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미 전역의 3,500개 학교에서 1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교 내 섬머스쿨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매스미디어, 대중문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어 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사 용을 통해 어린아이들에게 동료 및 어른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면서 비판적인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교사들에게 학기 동안 교과 실습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

터러시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스탭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 전문가 외에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4주 내지 6주 동안 서머스쿨 프로그램 진행 스탭으로 봉사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공립학교연대(the National Alliance for Public Charter Schools)와 연합해서 연방기금의 지원을 받아 내셔널 라이팅 프로젝트(the National Writing Project)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 연방기금은 대학, 로컬, 주 그리고 민간기관과 1대 일 매칭방식으로 지원을 하기도 한다. 그 외에 와인코트재단(Wyncote Foundation), 베리즌재단(Verizon Foundation) 그리고 브룩렌페스트재단(Brook J. Lenfest Foundation) 등에서 후원을 받는다.

### ③ 제안 3

취약계층 커뮤니티에 대한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를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공공도서관, 박물관, 다른 커뮤니티센터들을 활용해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청소년연대를 지원하라.

미국에는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성인들이 많다. 접근성, 적합성, 디지털리터러시 능력의 결핍, 비용 부담 등이 주요인이다. 이들 중에는 미디어를 단순히 오락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스스로를 컴퓨터 문맹자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연하고 예약이 필요 없는 단기간의 1회성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 도서관협회와 연계해서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실버 서퍼스 위크(Silver Surfers Week)’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도서관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5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 (4) 교사교육을 위한 파트너십

##### ① 제안 4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원리를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기 위해 고등교육에서 학제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기 위한 지식과 스킬들을 가진 선생님들 없이는 교실, 즉 공교육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현재 많은 유초중등학교 교사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습방법과 지식에 관해 익숙하지가 않아서 학교마다 큰 편차가 존재한다. 그와 같은 편차는 상당수의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에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규교과가 없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려는 의지를 가진 교사들이 그들의 학생들에게 풍부한 디지털 미디어 학습 경험을 교습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대학이 미래의 교사들을 위해 학제 간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면 학부와 학생이 공동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커뮤니케이션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한 대학이 많다. 미네소타 대학, 버팔로 뉴욕 대학, 스토니브룩 대학 그리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템플대학, 시라큐스 대학 세인트 루이스의 웨스터 대학 코네티컷의 사크리드 허트 대학의 프로그램들은 커뮤니케이션학과와 학제와 커뮤니티 기반의 학습 이니셔티브를 결합해서 그러한 이니셔티브를 시도해 왔다(Becker, S., et al., 2010).

주 교육부는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파트너십을 위해 자원과 예산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교사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들은 학교 당국이 능력을 갖춘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② 제안 5

커뮤니티와 미디어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를 지원하는 구역 단위 수준의 이니셔티브를 창출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사들은 의미 있는 스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평균 교사는 약 50세이고 근무경력이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있다. 학교 당국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단기 트랙과 12개월 코스의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펀딩을 마련해야 한다. 그 프로그램은 테크놀로지 전문가, 사서 및 미디어교육자, 교육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그리고 커뮤니티 파트너 그리고 미디어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 훈련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학습의 실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당국은 그 교사들이 학기 중에 대학과 파트너십하에 10일간 풀코스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선생님들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런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해서 교육자들은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들이 구역 내에 있는 다른 교사들에게 전문적인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엄격한 교육 구성요소가 학생과 교사 양측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 당국은 학교 당국을 대상을 매칭펀드를 적용해야 한다. 재단은 그 분야에 관한 이론과 정보를 항상 지원할 수 있도록 구역 내 수준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

## ③ 제안 6

지역 혹은 전국 단위의 뉴스 미디어가 시민 참여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테크놀로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할 필요가 있다.

뉴스 미디어의 자체 자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과거에 인쇄미디어에 대한 접근은 구독을 통해 이루어졌고 텔레비전 뉴스 콘텐츠는 특정의 시간에 시청을 함으로서만 이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 나이트 위원회가 보고했듯이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그들의 전문성과 자원들을 내놓음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뉴스 툴이 이미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은 교사와 학생들이 통합 교육의 일환으로서 인쇄판 신문, 온라인 신문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를 사용하고 분석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노우더 뉴스 프로젝트(The Know the News project)는 TV와 연결해서 학생들이 방송뉴스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언어와 이미지를 어떻게 선택하고 의미가 만들어지는 편집과정과 메커니즘을 알 수 있게 된다.

뉴욕 타임스 러닝 네트워크는 3,000개 이상의 학습 플랜과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교사와 학생들이 쉽고 의미 있게 미디어에 나오는 사건을 수시로 교실 토픽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그 뉴스에 대해 멘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레드 라쏘(Red Lasso; [www.redlasso.com](http://www.redlasso.com))와 같은 비디오 뉴스물 서비스는 사람들이 로컬 TV뉴스 콘텐츠(150개 이상)를 선택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발췌 요약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스 트러스트는 다른 사람들이 인쇄신문의 정보 콘텐츠들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뉴스평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뉴스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교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뉴스미디어와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이러한 뉴스툴 개발업자들과 핵심

교육관계 그룹들 사이에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학교 당국과 대학, 박물관, 도서관, 단과대학과 종합대학 등은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금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온라인 뉴스자원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로컬뉴스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줄 것이다. 교육자들과 학생들 스스로에 의해 유발된 이러한 도구들의 사용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들은 교육과 콘텐츠 영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의 활성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 (5) 연구와 평가

### ① 제안 7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온라인 평가방법을 개발해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각종 방법들과 교수전략들이 교사 연수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관한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촉발시키는 데 관건이 된다. 잘 개발된 측정 장치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혹은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Hobbs, R., Jaszi, P., & Aufderheide, P., 2009). 이런 테스트 결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온라인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은 학습과정이 자세하게 측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5개 정도의 측정 지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은 크게 첫째, ‘기본 능력과 심화능력을 포함, 디지털 도구들을 사용하는 능력’, 둘째, ‘저자의 의도와 관점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셋째, ‘메시지의 생산과 수용에서 윤리적인 이슈들을 파악하는 능력’, 넷째, ‘정보 소스의 신뢰성을 판단



하는 능력', 다섯째, '언어, 이미지, 음성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정 지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9세, 14세, 19세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교육부는 예산을 투입해, 측정하는데 30분 이하의 단일 온라인 테스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은 교수방법에 관한 비디오 자료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처럼, 교사들은 그들이 그들 동료그룹의 실제 사례들을 관찰하고 분석할 기회를 가질 경우 새로운 스킬들을 배워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온라인 비디오 발췌물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내 교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자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디오 발췌물들은 교사들이 만든 교안, 학생들의 학습일지 샘플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거기에는 이용자들이 코멘트하고 리뷰하며 비판할 기회와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한 자원은 또한 베스트 프랙티스로 가장 바람직한 효과를 내는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방법론 연구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또한 교사들이 그들의 교습에 대한 평가, 측정물을 만드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몇몇 주에서는 교사들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할 능력을 검증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텍사스주는 8~1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입교사들의 약 15%를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수능력을 측정하고 있지만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비디오 다큐멘테이션 툴은 전국미디어리터러시 교육협회(NAMLE, 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 Education)와 공동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협회 구성원들은 그들 자신의 티칭 사례들을 수시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6) 학부모 봉사활동, 전국적인 가시효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 ① 제안 8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들을 창출하고 그에 대한 가시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오락산업 관계자들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의 성장을 진정으로 지원할 규범적인 사례들이 별로 없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스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혹은 대중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해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학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온라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커가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은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단지 오락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만 생각할 수도 있다.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참여와 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실체가 일상생활과 가족생활에서 그리고 업무와 커뮤니티 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의 가시성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면운전자 혹은 대리운전자(designated driver)’ 캠페인을 벌였던 것처럼, ‘교육-오락’ 이니셔티브가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고전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하버드 공공건강학부의 제이 윈스턴(Jay Winsten) 교수는 할리우드 제작자와 작가들을 만나 대리운전 제도에 대한 토픽을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투입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오락은 단순히 사회적 실재를 비출 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의견을 형성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아메리카 작가길드조합의 도움을 받아 4년 이상 동안 160개 프라임 타임 대 프로그램에 대리운전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이 방영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리운전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서브 플롯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대화 주제로 설정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이 기

간 이후에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율이 30%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Winsten, 2009).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특수한 차원에 대한 타깃팅도 필요하다. 아마도 일반적인 온라인 행위 중에서 사이버 불링 등과 같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 관련 프로그램들의 사례를 축적하고 알려주는 웹사이트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이러한 TV 클립들을 학습하는 데 사용하도록 도와주고 가정과 교실에서 토론을 유도하게 할 것이다.

비아콤, 타임워너 앤 디즈니, 어린이용 오락프로그램 업체, 미 서부 작가길드, 크리에이티브협회, 그리고 관련이 있는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학생들과 성인들은 문제를 표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에 상응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도 있다. 나아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행위에서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고 내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오락·교육 캠페인에서 적절한 수준의 투자로 온라인 미디어의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들과 윤리적 실제들은 우리의 문화적 어휘의 일부가 될 것이다.

## ② 제안 9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가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 단위의 청소년 콘테스트를 주최하라.

청소년 미디어 프로그램은 비디오, 프린트, 온라인 미디어 생산물에서 학생들을 포함한다. 비록 그것들을 운영하는 기금은 극히 한정적이지만 미국 전역에는 수많은 청소년 미디어 이니셔티브가 있다. 유스 보이스의 성공사례는 시나 커뮤니티 단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자극이 되고 있다. 이제 그 분야는 저널 『유스 미디어 리포터(Youth Media Reporter)』를 지원할 만큼 잘 개발되고 있다. 이 저널은 청소년들이 발언할 기회와 전문가들이 관련된 분야에서 무엇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아

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커뮤니티 교육운동에는 유스 미디어 관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혹은 전국 단위의 행사들 또한(언어, 이미지, 음성, 뮤직, 상호작용 등을 사용해서 비판적 사고, 사회적 책임,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개발하려는) 젊은 사람들의 재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스 미디어 단체의 동기 부여를 위해 전국 단위의 콘테스트가 개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의 주제는 커뮤니티 단위의 주제이면 더 좋다. 유스 미디어 단체, 고등학교 비디오 프로그램 제작업체, 지역별 센터 등과 함께 공동으로, 그리고 채널원스쿨(Channel One Schools)과 같은 케이블 프로바이더 등과 공동으로 관련단체, 퍼블릭 액세스센터, 그리고 개인들로부터 비디오, 오디오, 스크립트 혹은 스토리보드 등을 접수받아 전국 단위의 콘테스트를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시상식은 공공텔레비전 방송사를 비롯, 지역 및 전국 단위의 방송사들로부터 방영되어야 한다.

지역 도서관과 공공미디어조직들은 그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로컬 제작업체들의 활동을 커뮤니티 영상물로 만들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는 모든 엔트리들을 제시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원스톱 쇼핑 방식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 리더 그룹은 백악관의 후원을 받은 특별한 이벤트로 확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 ③ 제안 10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전국적인 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해 워싱턴 디시에서 연례 컨퍼런스와 교사 경진대회를 지원하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커뮤니티 교육운동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전문가, 의회 의원, 연방 및 주정부 관리들, 기업가, 시민단체들 사이에 가시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

육과 관련된 전문가협회를 개설,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과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공유하고 그 중요성과 각 단체에 부여하는 메리트를 알려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현재 전국미디어 리터러시교육연합(NAMLE)은 매년 2회 전국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워싱턴 디스에서 개최되는 연례 컨퍼런스는 디지털 미디어 리퍼런스의 가시성을 증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 분야의 급속한 성장이 연례 컨퍼런스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교사들의 경진대회와 관련된 전국 리더십 컨퍼런스는 정책 입안자, 집행자, 연방 공무원, 비영리 자선단체 관계자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그 분야의 새로운 지도자를 창출할 수 있으며, 풀타임의 전문가 그룹의 필요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만약 전국영어교사협회(NCTE, the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미국도서관협회(ALA,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국제테크놀로지교육협회(ISTE,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Education)와 연대한다면 연례 리더십 컨퍼런스 같은 것을 통해 이것은 또한 멤버십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이것은 대학, 유초중등 교육자, 미디어 전문가, 경험과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시성 높은 캠페인과 결합되어야 한다.

# 04

##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문제점

### 1. 학교 미디어교육

#### 1) 학교 미디어교육 현황

##### (1) 학교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확산이 거듭나게 된 것은 학교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부터다. 학교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은 미디어교육의 이상적 실현기관으로서 학교라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요컨대, 어느 사회에서나 학교는 대표적인 공교육 기관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는 사회적 체제의 하나로서 차세대를 위한 사회화 기능을 하는 곳이며, 또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훈련을 하는 곳이다(문혜성, 2004).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역시 학교라는 공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은 일차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매체환경 속에서 공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위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고 잠재적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을 이해하고 건전한 미디어활용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은규, 2012).

공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는 아동청소년들의 발달을 장려하고 가능한 모든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다. 이에 학교는 일상생활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정춘, 2004).

학교 내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가 넘는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박진우·황치성 외, 2012). 미디어교육을 학생들의 교육적,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 실시하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경희(2004)는 사회적 측면, 학습자적 측면, 학문적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 전반에 미디어가 이미 널리 침투되어 있고, 학생들의 미디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학교교육이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학생들의 삶에 점차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미디어에 대해 학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에 적절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최근 교육의 흐름이 가르치는 사람의 '교수'로부터 배우는 사람 편의 '학습'으로 그 강조점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학습자 중심교육이란 결국 학습자의 흥미, 적성, 요구, 학습방식 등을 존중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의도한 바의 학습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는 학문적 측면에서 볼 때 리터러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즉 전통적인 의미에서 리터러시란 자국어를 읽고 쓰는 능력으로 이해되어 왔던 반면, 이제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다양한 언어, 이미지, 텍스트, 의미 창출의 상호작용이 모두 포함되는 멀티 리터러시로 개념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으로서 멀티 리터러시의 획득을 위해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2) 학교 미디어교육의 실시 형태

현재 학교 내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교과목에서 통합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다. 초창기에는 열정 있는 개별교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졌으나 교과서 내 미디어 교육 관련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전체교사가 교과 내에서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둘째, 과거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지금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이다. 주로 자율 활동과 동아리활동시간에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출장미디어교육이 학교와 접목되는 지점이며 학교미디어교육 중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비율이 가장 높다. 미디어교육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학생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방과 후 활동 시간을 활용해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형태다. 방과 후 학교의 특성상 미디어교육 요소 전반을 다루는 교육보다는 단순 미디어 제작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미디어교육이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목적과는 다른 교육 형태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국내 학교 미디어교육의 실시 형태를 교육 실행주체(교육주관자)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김은규, 2012 재구성).



첫째, 시민사회단체들이 시행하는 출장 미디어교육의 형태다. 이는 국내 미디어교육 도입초기부터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역량을 축적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일선 학교와의 연계 속에서 미디어교육을 시행하는 형태들이다. 한국여성민우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의 창체프로그램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미디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둘째, 초중등학교 교사 중심의 미디어교육 형태다. 교사들에 이루어지는 학교 미디어교육의 강점은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교사재량에 따른 안정적 학교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며, 아동청소년들의 변화하는 현실에 걸맞게 적합한 교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공교육의 시스템 차원에서 미디어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전국국어교사 모임 매체연구부’ 등에 참여하는 교사들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져 참여 교사들이 소수라는 인적 자원의 한계에 직면하기도 한다. 교사는 국어, 사회 등과 같은 개별교과에서 단원내용과 결합하는 통합교육의 형태,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을 활용하여 미디어교육을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 (3) 학교 미디어교육의 문제점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학교 미디어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김기태, 2007 재구성).

첫째,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화된 논의나 합의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미디어교육 교육과정이나 교육대상, 교육주체, 교육의 위계 등에 대한 체계화된 논의나 합의 없이 교육 가능한 곳에서 파편화된 모습으로 학교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 미디어

어교육은 통일성과 체계성에서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

둘째,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제도화하는 내실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학교 미디어교육이 비교적 오랜 기간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로 학교 교육의 언저리를 배회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한마디로 학교 미디어교육에 대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의 틀 내에서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체계성, 교사양성 등의 과제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미디어교육이 학교 밖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학교 미디어교육에서 학교는 주체가 되지 못했고 대상이 되었고 장소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상이 되었다. 즉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을 시행하는 형국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학교 미디어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주체가 되는 미디어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 미디어교육이 미디어를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학습보다는 미디어를 이용한 미디어교육(제작교육 또는 활용교육)에 너무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디어교육이 학교 교과목과 연계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방과 후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주로 이루어진다 보니 제작교육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다섯째, 미디어교육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식과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교육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 2) 학교 미디어교육 체계화 방안

### (1)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미디어교육지원센터 설립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화된 미디어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학교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 교과서,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지원, 재정지원, 교사연수, 미디어교육 경연대회 등을 총괄하는 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4-1〉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의 종합계획 비교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 2012. 8. 3.)	미디어교육지원법안 (김희정 의원 대표 발의 2013. 9. 17)
<b>제6조(미디어교육종합계획의 수립)</b>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합의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교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교육의 기본방향 2.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3. 교원에 대한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미디어교육사의 배치 및 처우 5. 학교미디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7.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과의 연계 8. 그 밖에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의 미디어교육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미디어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및 예산의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b>제7조(미디어교육종합계획의 수립)</b> ① 국가는 미디어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교육에 관한 기본방향 2.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디어교육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과의 연계 5.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6. 기타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b>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b>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사회단체 기타 민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8대 국회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제6조와 김희장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제7조에 규정한 미디어교육 종합계획이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종합계획의 수립주체와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된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물론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지원센터<sup>28)</sup>를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의원이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학교 미디어교육과 관련지어 반드시 미디어교육진흥종합계획(가칭)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 미디어교육의 기본방향
- 중장기 및 연도별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계획(3년 단위, 학교급별)
- 미디어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운영에 대한 규정
- 교원에 대한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방안
- 학교 미디어교육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시행계획
- 미디어교육 교과서 및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계획
- 학교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확충과 관리방안
- 학교 미디어교육지원 예산확보 방안 및 지출계획
-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미디어교육지원센터의 연계방안

---

28) 미디어교육지원센터는 산하에 학교미디어교육지원센터와 사회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두고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에 운영되던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 센터, 문화부산하 영상미디어센터, 지자체 산하 미디어센터 등은 사회미디어교육지원센터로 통합시키고 학교미디어교육지원센터는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과업인 만큼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국고는 물론 언론사나 방송사, 포털의 지원을 받는 내용 등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디어교육 지원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미디어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립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운영방안들을 언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표준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개발

학교 교육을 둘러싼 교육주체인 학교와 교육청,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 미디어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미디어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표준화된 미디어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개발(curriculum development)이란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며 조직하는가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교육과정의 개발은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의 체계,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목적, 내용, 방법, 평가, 운영의 단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각 단계별로 다시 심층적인 논의와 계획이 수반된다.

미디어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잘 조직화하여 교육과정에 담아내기만 한다면 교과서 집필은 훨씬 수월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지원센터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그것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산만하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재집필과 미디어교육이 체계화되고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해 주는 큰 밑그림인 표준교육과정을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표준교육과정이란 각 학교 급별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향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구체적인 교과서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인 뼈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독립교과목의 형태로(고등학교의 선택과목처럼), 창의적 체험활동의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다. 또한 특정과목과의 통합 형태로 보완될 수도 있다. 즉 국어나 사회 등 관련 교과목에 내에 미디어 부분을 다룰 때 표준 커리큘럼의 교육내용 중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과목의 교과과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안정임 외, 2009).<sup>29)</sup>

그렇다면 미디어교육의 표준 커리큘럼의 전체방향 및 내용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박인기(2003)는 미디어교육의 교육과정은 미디어 현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즉 교육과정을 ‘경험의 총체’로 보는 고전적 진보주의 교육과정 철학이나, 개인과 사회의 실제적 문제 또는 현실 가치와 관련하여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선정하는 실제적 패러다임의 교육과정 철학을 바탕으로 미디어교육에 접근하는 것으로 전제로 했을 때 미디어교육의 내용은 그 개념 차원에서 ‘미디어 현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때 현상이란 개념은 내용(또는 대상)의 총체성, 즉 이해 및 경험의 총체성을 강조함으로써 부각되는 교육과정 상의 용어다. 따라서 미디어 현

---

29) 이 부분은 각 과목의 교육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는 형태로 미디어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과목에 대한 별도의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미디어교육에 대한 조예가 깊은 교수나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작업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거나 교과전문가에게 미디어교육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가이드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상은 미디어가 존재하고 작용하는 총체적 모습으로 단순히 미디어의 외면적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각 요소와 각 국면들이 상호작용하는 양상까지 포괄한다. 미디어 현상의 경험과 이해가 미디어교육의 교육과정 속에서 놓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박인기(2003)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디어교육의 내용이 대상화된 지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태적 이해를 요구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디어교육의 내용은 살아있는 현상으로서의 작용태가 되어야 한다.

둘째, 배우고 알아야 할 미디어교육의 내용은 중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과정 또한 경험의 총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셋째, 미디어 현상을 가장 포괄적으로 드러내는 구도는 아마도 ‘소통체계’로서의 미디어현상일 것이다.

넷째, 미디어교육에서는 현상의 불가시적 측면에 대한 본질 이해가 중요하다. 그리고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경험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미디어 현상들 간의 관계적 구조가 유의미하게 경험되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다.

이를 근거로 하며 안정임·전경란(1999)은 현상 중심의 미디어교육 과정의 내용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표준 커리큘럼 내용체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현상 중심의 미디어교육 교육과정 내용 범주
  - 미디어 리터러시 입문(미디어 이용의 기본 리터러시/기능적 친화)
  - 미디어 종류의 현상적 경험 및 경험의 질적 이해
  - 미디어 장르의 다각적 경험 및 경험의 질적 이해
  - 미디어 장르(텍스트)간 상호 텍스트성 경험

- 미디어 공간 내에서 미디어적 소통의 주체 경험 및 내면화
- 미디어 작용의 메타적 이해 및 인식(개인적, 심리적 범주)
- 미디어의 사회문화적 작용 및 그 회로의 이해와 비판(사회적, 문화적 범주)

앞에서 논의했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준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수립을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지원센터 차원의 보다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듯이 미디어교육 교육과정은 연구자에 따라, 또 교육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성립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미디어교육은 미디어교육이라는 이름아래 너무나 다양하고 천차만별의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구조화된 체계 속에서의 다양성이라기보다는 중구난방식의 계열성 없는 파편화된 형태의 혼란함이 오늘 한국 미디어교육의 현실이라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무엇보다 미디어교육의 개념을 둘러싼 각 주체 간, 연구자 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이에 근거한 표준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디어교육관련 당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합의된 표준화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될 때 한국 미디어교육은 발전할 수 있고 학교의 미디어교육도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미디어교육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 미디어교육의 중심이 독립교과로서의 미디어교육인지, 기존 교과목과 연계된 미디어교육인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의 미디어교육인지를 감안해서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되 지금 가장 필요하고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형태로 개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커리큘럼의 체계는 현재 시행중인 제7차교육과정의 '2011 개정안' 체계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표준 교육과정에 근거한 다양한 교과서의 집필을 장려하고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과정에 기초하지 않은 교과서 집필도 문제지만 교과서 연구와 집필 없이 교육과정만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쓰여진 창의적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미디어교육지원센터 차원에서 지원하고 교육부의 검인증 시스템처럼 공신력 있는 검정협의회를 만들어 인증을 해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교과서 개발 전담팀을 꾸려서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배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표준 커리큘럼의 개정 주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의 특성상 호흡을 길게 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틀을 너무 자주 흔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주기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서 개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임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표준 커리큘럼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보다 큰 뼈대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용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설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표준커리큘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과서가 집필될 수 있고 개념이나 방향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반영 및 개별 교과서 집필 지원

학교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반영된 요소가 개별 교과서 집필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교육을 하나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초등에서 중등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는 아직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미디어교육이 국어, 사회, 미술 등과 같은 관련 교과와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국과 캐나다의 ‘미디어 연구’ 과목은 자국어 과목의 선택과목으로 설정되어 있고 호주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인 ‘텔레비전과 영화’ 과목이 예술 교과와 심화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더불어 호주의 미디어교육은 국어, 예술, 사회 등의 세 가지 관련 교과와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자언어, 음성언어, 시각언어 등 다양한 기호와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교육은 국어 교과에서, 그리고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시민교육 및 정치교육 차원의 교육은 사회 교과에서, 그리고 미디어의 예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예술 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 2005).

한편 한국에서는 교육과정상 국어나 사회, 예술 교과와 선택과목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 선택과목<sup>30)</sup>으로 분류되는 교양과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범교과교육의 일환으로 미디어교육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sup>31)</sup> 2007년 교육과정 개편 시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과목의 하나로

30)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보건, 진로와 직업, 환경과 녹색성장 등의 과목 등이 있다.

31) 교육과정 제1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가. 편성운영 22)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 · 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 · 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 · 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 · 보훈 교육, 효도 · 경로 · 전통 윤리 교육, 아동 · 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 · 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교육, 의사 소통 · 토론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독도 교육 등

〈표 4-2〉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목 교육과정의 미디어교육 요소

교육과정 영역 (2011개정)	일반사회영역(8)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이전 교육과정	<p>일반사회영역 (6)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p> <p>(6)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p> <p>사회 변화의 큰 흐름에 정보화와 세계화가 있다. 정보화와 세계화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혁으로 현재의 미래의 인간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밑그림의 역할을 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분단국가의 우리나라는 민족통일이러는 요소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가를 탐구한다.</p> <p>① 정보 사회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보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p> <p>① 정보 사회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보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p> <p>이내용은 정보와 지식이 생산의 기반이 되는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러한 정보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의 모습도 예측하도록 한다. 맞춤형 소량생산,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 인터넷 저작권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정보와 지식 중심 사회의 특징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보화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이전 교육과정 교수학습내용 (교육과정 해설시)	<p>(8)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p> <p>이단원은 정보화, 세계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국가 간 다각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르고자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화, 과학기술 발달, 세계화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국제 분쟁과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나라도 앞장서서 인류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이해하며 함께 해결해나가는 자세를 갖는다.</p> <p>① 정보 사회로의 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SNS, 저작권 문제 등을 이해할 수 있다.</p>
2011 개정교육과정 분석	<p>분석: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정도로 수동적 입장의 제시이지만, 2011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자료를 조사 학습하고 영향을 최신 경향에 맞추어 적용해 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p>

〈표 4-3〉 초등학교 전학년 국어과목 교육과정의 미디어교육 요소

교육과정 영역	【듣기】 내용성취기준		【쓰기】 내용성취기준	【문법】 내용성취기준
개정교육과정	【5-듣 (1)】 발표를 듣고 매체 활용의 효과를 판단한다.	【5-듣 (3)】 온라인 대화를 일상 대화와 비교하여 이해한다.	【6-쓰 (1)】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는 글을 쓴다.	【6-문법 (3)】 문장에 쓰인 호응 관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체의 특성과 기능 이해하기</li> <li>• 매체 활용의 효율성 판단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li> <li>• 온라인 대화와 일상 대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기</li> <li>•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나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 조사하기</li> <li>•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간적 지료 사용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매체에 나타난 언어 표현에서 호응 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기</li> </ul>
	〈초등학교 5~6학년〉 【듣기·말하기】 내용성취기준 (6)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현대 사회 매체의 발달로 매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발표를 할 때 사진, 그림, 도표, 음악, 도구,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능력을 지도한다. 다수의 청중 앞에서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발표를 할 때 매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은 발표에 사용된 매체가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발표를 평가해 보도록 한다. 발표에 활용된 매체가 발표의 목적과 주제에 비춰 효과적임을 평가하면 서 발표를 듣도록 하고, 자신이 발표한다면 어떤 매체를 활용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고 발표 효과를 높일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7) 매체를 통한 소통의 특성을 알고, 매체 언어 예절에 맞게 대화한다. 매체의 발달로 매체의 공적인 역할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인터넷 대화방이나 게시판 댓글 등 매체를 통한 소통의 특성을 일상 대화와 비교하여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능력을 갖도록 지도한다. 온라인 대화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혹은 시간 차이를 두고 화자와 청자가 문자 언어를 통해 의사소 화되고 있지만 글보다는 말에 가깝다. 그러나 어조, 음성, 높낮이, 장단, 강약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나 표정, 몸짓, 의상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와 청자의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 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온라인 대화를 할 때에는 문자 언어와 함께 그림말(이모티콘) 사용 등 다른 방법으로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통신언어의 문리와 예절을 지키도록 지도한다.		〈초등학교 5~6학년〉 【쓰기】 내용성취기준 (6)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 문리를 지키며 글을 쓴다.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하여 글을 쓸 때는 쓰기 문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 하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만으로 쓸 내용을 구체화하기 힘들 때, 책,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조사하여 글을 쓰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독자의 요구, 관심, 상황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말리 정리할 수 있으며,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할 수도 있다. 또 자신의 생각과 느낀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이나 사진, 도표, 동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글이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써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필요한 경우 학생들에게 참고하거나 조사한 내용의 출처를 밝히도록 지도한다.	
분석	2011 교육과정에서는 온라인 대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매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의 듣기, 말하기, 쓰기의 활동으로 제시되어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점, 듣기, 말하기, 쓰기에 있어서 미디어의 예절과 쓰기 문리의 중점이 되어 대화하고 표현하도록 제시되고 있는 점, 미디어의 적절한 활용의 도구로 제시되고 있는 점			

〈표 4-4〉 중학교 전학년 국어과목 교과과정의 미디어교육 요소

교과과정 영역 (2011개정)	[듣기·말하기] 내용성취기준		[읽기] 내용성취기준		[쓰기] 내용성취기준	
	[9-말-(4)]	[9-읽-(4)]	[9-읽-(4)]	[9-읽-(5)]		
이전 교과과정 (2007)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단에 활용한다.	초평을 읽고 글쓴이의 태도와 관련지어 의미를 해석한다.	[9-읽-(4)] 초평을 읽고 글쓴이의 태도와 관련지어 의미를 해석한다.	[9-읽-(5)] 민화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함축된 의미를 해석한다.	[9-쓰-(4)] 문체의 효과와 고려하여 조연하거나 충고하는 글을 쓴다.	[9-문법-(3)] 문장의 짜임새를 설명한다.
이전 교과과정 교수학습내용 (교과과정 해설서)	【9-말-(4)】 재담은 진문 예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인물의 생활 속에서도 널리 소통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인터넷 공간이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말하기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9-말-(4)】 인터넷 사용자 모두가 잠재적 인종평등자이자 되는 상황이기에 때론 차별과 그로 인한 논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개인의 인권이 진다에 의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모든 기본적 권리를 존중 있게 살필 수 있게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9-읽-(4)】 학습자들이 즐겨보는 만화나 시사민화 혹은 인터넷 민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보도록 하되, 만화 전체 보다는 함축적 표현이 잘 드러난 부분을 발표하여 표현 방식과 의미를 살펴보고록 한다.	【9-읽-(5)】 학습자들이 즐겨보는 만화나 시사민화 혹은 인터넷 민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보도록 하되, 만화 전체 보다는 함축적 표현이 잘 드러난 부분을 발표하여 표현 방식과 의미를 살펴보고록 한다.	【9-쓰-(4)】 조연하거나 충고하는 글을 켜지, 엮서, 편지, 전자 우편, 문자 메시지, 광고문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9-문법-(3)】 방송,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등장하는 글 중에서 절묘한 문장 짜임새를 보여 주는 글, 문장의 짜임새를 소개하는 글, 여러 종류의 문장 짜임새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 쌍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011 개정교과과정 및 분석 (교과서 적용 2013년)	(4) 민화에 나타난 선비의 전락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텔레비전이나 방송, 영화, 광고 등에 나오는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정책홍보나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 등에 나오는 공익적 광고의 특성을 알고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광고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을 찾아내고 그 효과와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한다. (7)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한다. 실제 대화, 온라인 대화, 작품 속 여러 대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듣고, 공감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찾고, 공감적 소통 방법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9)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매체자료로 구성하여 발표한다. 발표내용을 구성할 때 매체자료 이용유리, 인터넷(이)용 유리, 발표매체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2) 글이나 매체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문자로 된 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에 사용된 자료도 포함한다.	(8) 영상언어의 특성을 살펴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9)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쓴다. 온라인대화, 인터넷게시판 댓글, 전자우편, 블로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이러한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도한다. (10) 쓰기 문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8) 영상언어의 특성을 살펴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9)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쓴다. 온라인대화, 인터넷게시판 댓글, 전자우편, 블로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이러한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도한다. (10) 쓰기 문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8) 영상언어의 특성을 살펴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9)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쓴다. 온라인대화, 인터넷게시판 댓글, 전자우편, 블로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이러한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도한다. (10) 쓰기 문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8) 영상언어의 특성을 살펴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9)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쓴다. 온라인대화, 인터넷게시판 댓글, 전자우편, 블로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이러한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도한다. (10) 쓰기 문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표 4-5) 고등학교 전학년 사회문화과목 교육과정의 미디어교육 요소

교육과정 영역 (2011개정)	(5)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 대중매체(전체학년)
以前 교육과정	<p>(5)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p> <p>가족, 교육, 종교, 대중 매체 등 여러 가지 사회 제도의 특징과 그 기능을 이해한다. 또, 이러한 사회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한다.</p> <p>⑥ 대중 매체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p> <p>⑦ 대중 매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이해하고, 대중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p>
以前 교육과정 교수학습내용 (교육과정 해설서)	<p>⑥ 대중 매체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p> <p>오늘날 대중매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삶을 규정하기도 한다. 대중매체는 인쇄매체시대에서 영상 매체로 발달하였고 일방향 매체에서 쌍방향 매체로 발달하였다. 이 내용은 다양한 매체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내용의 학습 과정에서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별로 그 특징을 파악하고, 특히 인터넷 등의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변화를 주변의 생활사례를 통해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p> <p>⑦ 대중 매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이해하고, 대중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p> <p>대중매체는 현대 인간의 삶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대중매체의 정보를 수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비판적으로 해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 내용은 기능론, 갈등론 등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제기 하고 있는 대중매체의 긍정적, 부정적 역할이나 기능을 이해하고, 대중매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독해 내기 위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내용의 학습과정에서는 매체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를 다양하게 탐색하여 이를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 따라 비판적으로 재해석해 보는 토의나 사례발표가 필요하다.</p>
2011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적용 2014년 예정)	<p>(5) 일상생활과 사회제도</p> <p>가족, 교육, 대중매체, 종교 등의 사회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회제도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기능들을 파악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회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p> <p>④ 대중매체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p>
2011 개정교육과정 분석	<p>사회제도로써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에 대해 공부하고 분석하는 단원이다. 특히 개정교육과정은 미디어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교과서 내에서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p>

미디어교육의 요소들을 두루 담고 있는 매체언어라는 과목이 고시된 적이 있었으나 교과서가 출간되기도 전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교육과정에 편입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나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등의 교육 과정은 물론 실제로 집필된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미디어교육의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국어, 도덕, 사회, 실과 교과에서, 중학교는 국어, 도덕, 사회, 기술·가정, 정보 교과서에서, 고등학교는 문학,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법과정치, 정보 교과서 등에서 미디어교육과 연관된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이 발견된다.

학교급별로 많은 교과에 파편화된 형태로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이 들어있고 중복되어 제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체계화하여 제시한다면 학교 미디어교육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관련하여 학교 미디어교육의 지원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개편 시에 호주의 경우처럼 ‘의사소통과 미디어’(국어),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사회), ‘미디어와 윤리’(도덕), ‘예술과 미디어’(예술과목)처럼 각 과목 안에 미디어교육 관련 범주가 교육과정의 내용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가칭) 차원에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이에 따른 교과서 집필이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미디어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해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추출하고 분석한 다음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 과목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 요소의 구성 및 세부항목들을 계발하여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국어, 사회, 예술 과목의 하위선택과목으로 미디어교육 관련 과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단기적으로는 선택과목 중 일반교양과목으로 미디어교육 관련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진흥위원회(가칭)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목명은 미디어교육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널리 개설되어 있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윤리 등의 과목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별로 적합한 커리큘럼을 정리하고 이를 반영한 공신력 있는 교과서를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콘텐츠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 내용요소를 삽입하여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고 많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단위와 요소들을 추출한 다음 앞으로 새로운 교과서가 집필될 때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집필자들에게 관련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sup>32)</sup> 이를 위해서는 앞의 예시에서 제시했듯이 현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에 걸맞은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과서개발 출판사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킹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출판사와 협약하여 미디어교육 관련 부분을 전문적으로 집필할 수 있는 전문가(교사나 교수)를 파견하는 형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4)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교교육과정 속에 미디어교육 관련 과목이 개설되고 이에 기반한 교과서가 집필되어 정규수업에서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넘어야 할 벽이 많이 있는 만큼 미디어교육이 공식교과로 교육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

---

32)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인터넷관련 2011년 개정 초·중·고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과서집필참고자료를 작성하여 한국교과서집인정협회와 각 출판사에 제공한 바 있다.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학교 미디어교육이 크게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유형별로 지원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① 교과활동에서의 지원방안

현재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도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수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서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한 자료다.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미디어교육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쓰여진 경우가 많다(예를 들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UCC를 만들어보자’라고만 할 뿐 UCC의 의미와 특징, 만드는 방법과 공유하는 방법, 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과서의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이 인식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표현, 공감과 나눔, 태도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보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과서에는 텍스트 형태로 관련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이 해결된 최신의 영상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를 토대로 미디어교육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보완하는 교재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4-6〉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 (국정 교과서)

학년	대단원	중단원	현재 교과서 본문 내용	탐구활동 및 참고자료(1)
국어 5-1	4. 주고 받는 마음	4. 주고 받는 마음	온라인 대화의 특성에 대하여 알기 온라인에서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알기 온라인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점에 대하여 알기 온라인에서 누리사랑방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내 생각 전달하기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고려하며 학급 누리집에서 온라인 대화하기	온라인 대화의 종류 온라인의 특성에 대하여 알기 온라인 대화와 면대면 대화 비교하기 온라인에서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알기 인터넷 게시판 글쓰기 예절 알기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점에 대하여 알기 온라인에서 누리사랑방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내 생각 전달하기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고려하며 학급 누리집에서 온라인 대화하기
국어 5-2	5. 우리가 사는 세상	5. 우리가 사는 세상	- 발표 상황에 알맞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찾기 - 발표 상황에 알맞은 자료를 활용시 장점 저작권에 침해하지 않고 자료 준비	- 발표 상황에 알맞은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 찾기 - 발표 상황에 알맞은 자료를 활용시 장점 저작권에 침해하지 않고 자료 준비
국어 6-1	2. 정보와 이해	2. 정보와 이해	- 여러 가지 매체에서 정보를 조사할 때에 주의할 점 알기 - 여러 가지 매체에서 찾은 정보를 분류하여 요약하는 글쓰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 살펴보기 매체의 종류와 특징 살펴보기 - 여러 가지 매체에서 정보를 조사할 때에 주의할 점 알기 - 여러 가지 매체에서 정보 찾기

〈표 4-7〉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 (천재교육)

학년	대단원	중단원	현재 교과서 본문 내용	탐구활동 및 참고자료(1)
국어 3-1	II. 이름다운 참여	2. 홍보하는 글 쓰기	- 동아리 신입부원 모집 홍보글 쓰기 - 학교 홍보 글 쓰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알리기	- 동아리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하도록 해야겠어 - 동아리 홍보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 살펴보고 선택하기 - 홍보 대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체 선택하기
	IV. 생각을 키우는 글	2. 서평쓰기	-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서평 쓰고 읽기	- 평소에 가장 자주 접하는 서평의 형태 생각해 보기 - 개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속 서평 읽기 - 학급 홈페이지에 올라온 서평이 소통되는 과정 살펴보기
	V. 우리들의 이야기	2. 영상으로 만드는 이야기	- 영상 언어의 특성을 살펴 영상으로 이야기 구성하기 - 영상물 준비 과정 알기 - 기획안,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영상언어 이해하기	- 영상물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 모둠 별로 기획안 만들기 - 기획안의 내용을 장면별로 나누어 구성안 작성하기 - 시나리오 작성하기 - 스토리보드 만들기 - 촬영과 편집하기 - 완성된 영상물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국어 3-2	I. 글을 통해 보는 세상	2. 초평 읽기	- 초평과 관련된 경험 떠올려 보기 - 기사와 댓글을 보고 초평의 윤리에 대해 생각해 보기 -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 vs 풍자의 지나침, 인신공격, 명예훼손	- 신문 기사나 인터넷 댓글 등에서 유명인의 언행을 풍자하거나 비판한 내용 읽어 본 적이 있는가? - 영회의 30자 감상평이 지닌 특징 알기 - 댓글을 쓴 사람들이 기사에 제시된 인물의 행동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야기하기 - 부적절한 댓글을 찾아보고 초평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알아보기
	II. 머리를 맞대고	1. 심층보도 보기	- 심층 보도 방송의 주제 : 인터넷 중독 탈출기, 악성 댓글에 빠진 아이들	- 방송 보도의 목적 살펴보기
		2. 전문가와 면담하기	-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유기 동물 관련 전문자에게 보낸 전자 우편 살펴보기	- 광고를 준비하면서 전문가와 면담하려고 하는 이유 정리해 보기

학년	대단원	중단원	현재 교과서 본문 내용	탐구활동 및 참고자료(1)
	III. 너의 의견, 나의 생각	1. 논평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절을 강요하는 사회 : 서비스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터넷에 항의하는 고객</li> <li>- 휴대 전화 서비스 센터 상담원의 '고객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부담스럽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삼고 있는 사회 현상 살펴보고 글쓴이의 태도 이야기하기</li> </ul>
	IV. 언어의 세계	1. 언어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의 특성 : 인터넷, 블로그 등과 같은 새로운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의 특성 이해하기</li> <li>- 언어와 사고의 관계 생각하기</li> </ul>
	V. 생활 속의 다양한 소통	1. 마음을 담아 조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조언</li> <li>- 상담 게시판의 게시물과 댓글 읽기</li> <li>- 상황과 매체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표현이 친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li> <li>- 제시한 이의 상황 이해하고 어떤 댓글이 도움이 될지 알아보기</li> <li>- 친구에게 이성문제를 문자 메시지로 보낼 경우</li> <li>- 인터넷 상담 게시판과 쪽지 읽고 상대방의 상황 정리하기</li> </ul>

〈표 4-8〉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미디어 교육 관련 내용

교과서	대단원	중단원명	이전 교과서 본문내용	이전 교과서 탐구활동 및 참고자료
천재 교육	III. 문화와 사회	3.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주변에는 어떤 하위문화들이 있을까(지역문화, 청소년문화, 빈문화)</li> <li>-대중문화의 의미와 형성과정</li> <li>-대중문화의 특징과 비판적 인식의 필요성</li> </ul>	<p>세대문화로서 청소년문화란?</p> <p>mass culture와 popular culture의 차이</p> <p>대중문화와 비평적 인식(광고와 소비문화, 팬덤문화, 뉴스)</p> <p>- 문화를 창조하는 청소년(스타를 꿈꾸는,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p>
	V.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4. 대중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매체란 무엇인가?</li> <li>- 대중매체의 유형과 특징</li> <li>- 인터넷의 발달과 사회변화</li> <li>- 대중매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론(기능론, 갈등론)</li> <li>- 대중매체의 주조기능과 역할</li> <li>- 대중매체 비판적 수용의 중요성</li> <li>-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li> </ul>	<p>매체가 곧 메시지다(맥루한)</p> <p>일상생활에서 대중매체의 이용실태</p> <p>디지털 시대의 가족관계와 문화</p> <p>대중매체의 진화, 일상생활의 변화(네티즌, 전자책, 트위터, 스마트폰)</p> <p>영화 속에 나타난 대중매체의 기능과 역할(예디톡)</p> <p>대중매체의 다양한 기능과 문제점(방송프로그램 관련)</p> <p>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해독하기(신문 논제설정 비교)</p>
	VI. 현대사회와 사회변동	3. 현대사회의 변동과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사회의 형성배경과 특징</li> <li>-정보사회의 문제점1(정보격차, 통제와 감시)</li> <li>-정보사회의 문제점2(정보의 오염증, 정보윤리 미흡, 정보유출)</li> <li>-정보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li> </ul>	<p>유비쿼터스 네트워크가 당신이 한 일을 지켜보고 있다.</p> <p>정보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메신저, 댓글)</p> <p>온라인 게임 섀도우 채도가 성공하려면?</p> <p>카피라이터와 카피레프트</p>
교과사	III. 문화와 사회	2. 다양한 문화적 양상과 사회 문화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사회의 문화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 지역문화, 청소년문화, 빈문화)</li> <li>-대중문화의 생성배경</li> <li>-대중문화의 특성</li> </ul>	<p>새로운 세대문화를 만드는 트위터</p> <p>네티즌 문화의 자유,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p> <p>인터넷관련 통계와 범죄율의 상관성(한국사회의 문화변동관련)</p>
	V.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3. 사회제도로서 대중매체의 대중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매체의 특성과 종류</li> <li>- 대중매체의 발달과정</li> <li>- 대중매체의 역할과 기능(이론적 관점)</li> <li>- 미디어 리터러시</li> </ul>	<p>생활 속으로 들어온 음성인식기술</p> <p>매체는 인간관계의 확장이다.(맥루한)</p> <p>대중매체의 효과에 대한 이론(의제설정이론, 침묵의 나선효과이론)</p> <p>대중매체의 특징과 대중매체를 즐기는 이유</p> <p>미디어 교육센터</p> <p>대중매체 다시 쓰기</p> <p>오버미디어 UCC</p>
				<p>창의적 디지털 공동체를 위하여(참여, 공유, 개방)</p> <p>대중매체 속 세상버로봇기(인터넷실명제)</p>

일반적으로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수업은 최신의 자료나 콘텐츠, 그리고 연관된 참고자료나 지도안이 없으면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사입장에서는 간단히 언급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설립된 미디어교육지원센터에서는 새로운 교과서가 나오면 학기별로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이에 적합한 교수자료들을 개발하여 빨리 학교에 보급하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이에 대한 연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설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 내용들을 익히고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지원방안

창의적 체험활동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과 이외의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교과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창의성과 나누고 배려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율활동이란 학급과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학급회의나 학생회, 학교 축제, 수련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양한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 의식을 드높여 바람직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기존 교육과정의 자치, 적응, 행사활동은 물론 창의적 재량활동에 포함되었던 자기주도적 학습, 범교육과정 학습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창의적 특색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림)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활동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현재 자율활동 중 창의적 특색활동의 일환으로 미디어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동아리 활동은 공통의 관심사와 동일한 취미, 특기,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외국어 회화반과 같은 각종 학술활동, 교향악단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 각종 청소년단체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같은 취미나 특기,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창의적으로 계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자아실현의 기초를 형성하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다양한 자기 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서는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동아리 활동을 통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활동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영역이다. 교내 봉사는 물론, 지역사회 봉사활동, 각종 캠페인 활동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진로활동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그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진로검사와 같은 자기이해 활동은 물론 진로나 직업정보 탐색활동, 진로 계획 활동, 직업체험과 같은 진로체험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개인이 자신의 특성, 소질과 적성, 능력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적절한 시기에 진로를 탐색,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미디어교육 관련 수업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주로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동아리활동과 자율활동을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③ 동아리 활동을 통한 미디어교육 지원방안

학교 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학생의 사회화를 돕는 일이다.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공통의 관심사와 동일한 취미, 특기,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나눔과 배려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활동도 중요하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이기도 한 창의와 인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기획하고 표현하며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경험들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데 학교 내에서 이 경험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동아리 활동이다.

학생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생각을 나누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 등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동과업을 수행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동아리 활동은 얕은 학습을 행동으로 옮기고 창의력과 인성을 성장시키고 더욱 큰 자율성, 판단력,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동아리 활동이 다양한 경험과 표현, 그리고 실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와 조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신문제작을 통한 멋진 지역 사회 만들기” 동아리의 경우는 신문제작, 즉 ‘취재’, ‘기사쓰기’, ‘편집’, ‘제작’ 등의 전문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수업자료와 콘텐츠 제공, 적절한 전문 인력 투입 그리고 교사연수라는 체계적 지원시스템 없이는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와 지도서는 물론 교수방법, 운용방안들을 충분히 안내



〈표 4-9〉 '신문제작을 통한 멋진 지역사회 만들기' 동아리 프로그램 개요

항목	내용
운영기간	1주일 4시간 이상씩 한 학기 14주 기준으로 운영
운영대상	자유학기제를 이수하고 있는 중학생 20명 내외로 구성된 동아리 학생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지 않는 다른 학기나 다른 학년의 동아리활동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활동개요	〈신문제작을 통한 멋진 지역사회 만들기〉 동아리에서는 신문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고 신문읽기의 즐거움을 체득함과 동시에 신문제작과정(취재와 글쓰기, 편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신문을 제작하게 된다. 일상적인 학교신문이 아니라 기획회의와 취재를 통해 지역사회의 불편한 점을 탐색해보고 기사쓰기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불편한 점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신문을 만든다. 누구나 불편함을 느끼지만 딱히 누가 나서서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 지역사회의 현안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신문기사의 취재과정을 통해 느끼도록 하고 기사작성과 편집회의, 배포 등을 통해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 분석함은 물론 대안까지 함께 제시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이 활동의 주목표이다. 더불어 신문 속에 지역사회의 숨겨진 자랑거리도 함께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의 멋진 모습을 홍보함으로써 신문제작을 통한 멋진 지역사회 알리기도 더불어 수행하고자 기획되었다.
활동목표	① 신문동아리 활동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불편한 점과 숨은 자랑거리를 알리는 신문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다. ② 제작한 신문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여 멋진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다.
준비사항	① 신문에 대한 이해와 제작과정을 설명해 놓은 교과서와 지도서 ② 모둠별 토의가 가능한 교실환경 ③ 신문스크랩, 신문제작(취재, 편집)에 필요한 기기들과 도구들 ④ 신문검색이 가능한 인터넷 환경
유의사항	① 단순히 신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 대해 알고 이해하며, 신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신문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참여의식을 길러주는 동아리인 만큼 기초를 튼튼하게 쌓은 다음 신문제작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 개의 신문을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하나의 신문이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익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충분한 토의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움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사가 후원하고 안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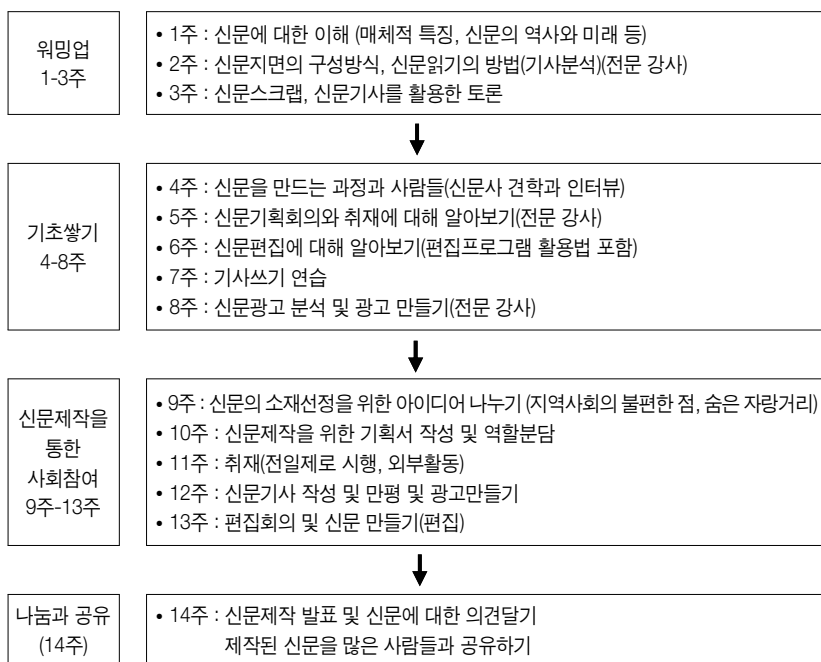
하고 신문취재, 기사쓰기, 편집, 제작에 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현장감 있는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기자와 전문 강사를 적절히 수업에 파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수업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고 지원될 때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한 미디어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가.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예시

‘신문제작을 통한 멋진 지역사회 만들기’ 동아리는 신문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고 신문읽기의 즐거움을 체득함과 동시에 ‘취재’, ‘글쓰기’, ‘편집’ 등 일련의 신문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신문을 제작하는 동아리이다. 물론 동아리에서 만드는 일상적인 학교신문이 아니라 기획회의와 취재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편한 점을 탐색해 보고 기사쓰기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불편한 점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사회참여 신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제작을 통한 멋진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그램을 ‘직업신문 만들기’나 ‘진로신문 만들기’ 등으로 변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1주부터 8주까지(또는 약간 줄여 6주 정도로 운영해도 무방) 기초를 쌓은 후 남은 기간 동안 직업을 탐색해 보고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서 기사, 만평, 사진, 사설, 칼럼, 광고를 작성해 직업신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면 1주일에 하나씩 직업을 정해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다양한 직업에 관한 신문을 만들어 보도록 함으로써 진로탐색과 더불어 동아리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 평소 궁금했던 직업분야의 리더나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진로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예: 커리어 넷)에 대한 심층분석 보도, 업종에 대한 전망과 방향을 다루고 있는 신문기사 분석, 관련 학과 및 도서 추천, 직업과 관련된 영화나 TV프

〈그림 4-1〉 ‘신문제작을 통한 멋진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그램 흐름도



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림 4-1〉은 ‘신문제작을 통한 멋진 지역사회 만들기’ 동아리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흐름도와 지도 예시다.

나. 미디어교육지원센터 차원의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지원방안(예시)

- 동아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 및 지도서 제공
- 신문에 대한 이해, 취재, 글쓰기, 편집지도를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표준지도안 마련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강사가 파견됨은 물론 표준화된 수업지도안을 통해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의 강사풀이 훌륭한 만큼 협의와 토의를 통해 표준지도안을 마련한 다음 연수를 통해 체득한 다음 수업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강사들 간의 정기모임을 통해 표준 수업지도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노력들도 필요하다. 동아리 지도 선생님이 담당할 부분과 파견된 전문 강사가 담당할 부분을 확실히 나누되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문편집의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왕이면 미디어교육지원센터에서 신문을 쉽게 편집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신문편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 신문사방문을 통해 현직 신문 기자와 인터뷰, 신문 제작과정 견학 지원 동아리활동을 학교에서만 진행하는 것은 수업의 효과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신문에 대해 공부하고 신문을 만드는 동아리 활동의 경우는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수업의 긴장도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한 신문사견학 프로그램이 아닌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문사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진로 수업과 연계하여 현직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취재와 기사작성, 편집회의에 참여하여 신문제작을 몸으로 체득하는 프로그램, 학생들이 기사를 쓰고 현직 기자가 보완해주는 협업 기사제작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문사에서 일하는 분들을 모두 다 만날 수는 없는 만큼 미리 제작된 인터뷰 영상들을 통해 신문사가 하는 일을 알려주는 방안들도 모색해 볼 수 있다.

#### 라.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한 인트라넷 구축

동아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프로그램을 한눈에 살펴보고 흐름을 분석하고 무엇을 언제 지원해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인트라넷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 측에서는 필요한 콘텐츠와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관련 내용을 입력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다른 학교 동아리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만들어진 산출물을 공유하면서 확산을 꾀하는 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센터에는 학교의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어떤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투입해야 할지를 관리하고 인식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콘텐츠를 보급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

#### 마. 미디어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에 대한 규정 보완

동아리 활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생활기록부 입력이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청소년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진행되었던 미디어 캠프나 수련활동 등도 기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련법에 미디어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 동영상 제작 및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동아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문제작 수업에 필요한 패킷화된 동영상을 제작함은 물론 우수사례 영상 견본, 동아리 활동 전제 안내 동영상 등 수업운영에 필요한 수준 높은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들을 전시하고 경연할 수 있는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촉진시키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한다. 단순히 심사하여 상을 주는 형식이 아닌 전시와 경연을 함께 겸비한 축제형태의 콘테스트가 바람직하다.

사. 학교 동아리 담당교사와 외부 전문 강사의 코티칭(co-teaching) 방안 지원

‘신문제작을 통한 멋진 지역사회 만들기’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동아리 담당교사와 전문 강사와의 팀워크가 필수적이다. 어느 누가 주가 된다거나 어느 누가 보조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가르치고 책임지는 코티칭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지원센터 차원에서 담당교사와 전문 강사가 함께 참여하는 코티칭(co-teaching) 연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각자 어떤 역할 분담을 하고 어떤 자리매김을 통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동아리 활동 시간을 통해 각자 파악한 학생들의 특성이나 수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차원의 조정이나 협조 없이는 코티칭(co-teaching)이 아니라 각자 맡은 시간만 가르치는 물과 기름의 교수(敎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 자율활동을 통한 미디어교육 지원방안

자율활동은 크게 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 HR시간과 학교단위로 진행되는 행사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담임선생님이 학급의 특색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교단위로 진행할 수 있는 학교특색사업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급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한 학기 내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한 주 동안 신문에서 다루었던 주요 시사적 이슈에 대해 3분 동안 발표하고 3분 동안 질문하면서 토의를 해보는 ‘3분 신문논평’, 일주일 동안 방영되었던 드라마나 가요 프로그램, 기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짧게 논평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3분 방송비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급우들끼리 욕설 없이 아름다운 소통을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고 체험하는 반톡(班Talk)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으로 학급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음은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미디어교육 교사 전국대회에서 발표한 사례 중 하나인 영상 릴레이 인터뷰다.

“요즘 학생들은 영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즐기는 세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상에 노출되기 때문인 카메라를 갖다 대면 자신만의 포즈를 한다. 카메라 앞에서 당당한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주눅이 들 때도 있다. 그만큼 자신의 표현을 즐기며 세상을 향하여 소리칠 수 있는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 영상 릴레이 인터뷰는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만든 친구 알기 프로그램이다. 미디어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알게 하는 매개적 기능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과 사귀는 문화를 형성한다. 일 년 동안 동일한 사각의 교실에서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포대 집단을 형성하면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다른 아이들이 들어올 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문화적 특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들끼리 소통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영상 릴레이 인터뷰가 단순히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들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친구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친구를 알아간다. 인터뷰 하는 방법과 기본질문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고 그 외의 인터뷰 질문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추가하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10분 내외로 진행하고 HR시간을 통해 상영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학급특색활동의 경우는 학교상황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1시간, 2시간, 4시간, 하루, 2박 3일 캠프, 한 학기당 주당 1시간씩, 1년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학교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데는 많은 품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시간과 학교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미디어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되는 수업과 그렇지 못한 수업, 인원의 규모가 큰 경우가 작은 경우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학교 학사일정(학기 초, 시험 후, 학기말 등등)이나 국경일이나 절기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외부강사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만큼 미디어지원센터에서 강사풀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2013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창의지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교수업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의사소통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다. ‘창의와 소통의 숲에서 만난 미디어’라는 미디어교육 교재를 교육청차원에서 개발한 뒤 각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학교에서 창체시간 중 자율활동을 활용하여 학교특색사업으로 이 수업이 주당 한 시간 정도씩 운영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디어교육지원센터 단독으로 기획하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에 필요한 교과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보급하는 것도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미디어제작과 관련지어 봉사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효앨범으로 제작한다든지 부모님께 스마트폰이나 다른 디지털 기기 사용법, UCC 만드는 법 등을 가르



〈표 4-10〉 창의와 인성의 숲에서 만난 미디어 교과서 목차

창의와 인성의 숲에서 만난 미디어 초등교재 목차와 내용(2012)	창의와 인성의 숲에서 만난 미디어 중등교재 목차와 내용(20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디어로 커뮤니케이션해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li> <li>2)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li> <li>3) 내가 선택하는 미디어</li> </ol> </li> <li>2. 인터넷 세상에서 만나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터넷 세상에서의 나</li> <li>2) 인터넷 세상에서의 관계</li> <li>3) 인터넷 세상에서의 관계설계</li> </ol> </li> <li>3. 미디어가 그린 세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디어의 표현과 읽기</li> <li>2) 메시지 표현하는 방법</li> <li>3) 미디어 속 세상과 현실</li> <li>4) 미디어 속 인물</li> </ol> </li> <li>4. 세상을 읽는 정보와 뉴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를 얻는 방법</li> <li>2) 미디어가 전달하는 뉴스</li> <li>3) 정보의 선별방법</li> <li>4) 학급뉴스 만들기</li> </ol> </li> <li>5. 미디어 속 광고 이야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고의 개념과 특징</li> <li>2) 광고의 구성요소와 메시지</li> <li>3) 패러디 광고 이야기 만들기</li> <li>4) 광고제작, 감상과 평가</li> </ol> </li> <li>6. 놀이의 법칙, 인터넷 게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게임의 개념과 특징</li> <li>2) 올바른 게임이용</li> <li>3) 기능성 게임 기획하기</li> <li>4) 기능성 게임스토리보드 작성하기</li> <li>5) 게임제작발표회</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디어와 나의 삶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디어와 나의 관계</li> <li>2) 인터넷 속 나의 다양한 모습</li> </ol> </li> <li>2. 미디어가 그린 세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디어가 세상을 그리는 방법</li> <li>2) 미디어로 재현된 세상속의 고정관념</li> </ol> </li> <li>3. 정보와 뉴스의 세상 속으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상의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li> <li>2) 뉴스제작의 A to Z</li> <li>3) 보는 뉴스에서 만드는 뉴스로</li> </ol> </li> <li>4. 미디어가 만드는 새로운 문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디어와 문화의 관계</li> <li>2) 미디어 문화의 주체, 청소년</li> <li>3) 우리가 만드는 바람직한 미디어 문화</li> </ol> </li> <li>5. 인터넷 세상을 움직이는 UCC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표현과 소통, 참여의 도구 UCC</li> <li>2) 세상의 작은 변화를 위한 UCC 만들기</li> <li>3) UCC의 설계도, 기획서 작성하기</li> <li>4) UCC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 작성</li> <li>5) 촬영과 편집, 그리고 시사회</li> </ol> </li> <li>6. 미디어 속 광고 이야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디어와 광고의 관계</li> <li>2) 광고 속 메시지 읽기</li> <li>3) 우리의 생각을 담은 주제광고 만들기</li> </ol> </li> <li>7. 댓글과 모바일 메신저로 스마트하게 소통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터넷의 등장과 소통방식의 변화</li> <li>2) 댓글, 인터넷 소통의 에너지</li> <li>3) 모바일 메신저로 Talk &amp; Communication</li> </ol> </li> <li>8. 인터넷 소통의 현주소, 소셜 미디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셜미디어</li> <li>2) 유리의 성, 소셜 미디어</li> <li>3) 소셜미디어로 세상과 소통하기</li> </ol> </li> </ol>

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관련(언론사나 방송사, 포털 등등) 진로활동 체험을 하면서 미디어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부분은 관련 기관의 협조와 재능기부가 선행될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최근 중학교 자유학기제<sup>33)</sup>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범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다양한 진로체험(신문제작체험, 방송제작체험, 인터넷포털뉴스 편집 체험)을 하면서 미디어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보면서 미디어교육을 할 수 있는 동아리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학교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학교의 요구와 흐름에 맞춰 그 곳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수업방법과 콘텐츠를 제공할 때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은 활성화될 수 있다.

#### (5) 교사를 위한 미디어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학교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사연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디어교육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어떤 교사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회성 연수가 아닌 지속적인 추수연수가 가능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해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연수를 들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등을 개발하여 관련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지원사이트([www.forme.or.kr](http://www.forme.or.kr))처럼 공개형 웹페이지를 개설

---

33)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할 수도 있고 연수를 들은 교사들에게만 관련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폐쇄형 웹페이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미디어교육 연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에서 언급했던 교과활동과 관련된 연수, 창제활동과 관련된 연수, 미디어교육 과정에 대한 연수, 미디어교육 교과서 활용방법에 대한 연수 등을 계열화하여 개설한 다음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연수의 위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즉 교과에서의 미디어교육 활용방안 연수를 듣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의 이해, 미디어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둬으로써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수업이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둘째, 미디어교육 콘텐츠에 대해 공부하고 연수하는 기능은 물론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제안도 하는 쌍방향 형태의 연수플랫폼이 지원되어야 한다. 배우기만 하는 연수가 아니라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수가 되도록 장을 펼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 그동안 개발되었던 교재들이나 콘텐츠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미디어교육 포털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동안 개발되었던 자료들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하며 위키피디아처럼 관련 교재에 대해 수정, 첨삭, 토론 등을 할 수 있는 오픈된 장소가 필요하다 즉 만들어진 교과서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만들어가는 미디어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콘텐츠를 개발했던 각 기관들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미디어교육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 교수법,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등이 필수인 만큼 일정시간의 연수를 이수하고 소정의 평가를 통해 교수능력이 검증된 교사에 대해서는 미디어교육 교사 인증을 해 주는 인증제를 도입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은 만큼 우선 인증제를 통해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6)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학교 운영 및 파견교사제 도입

신규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성도가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해 볼 수 있는 연구학교가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학교단위로 지정하는 연구학교와 더불어 특정 콘텐츠를 시범 교육하는 연구교사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학교나 연구교사를 통해 시범 적용된 콘텐츠들이 다른 학교와 교사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확산방안들이 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교육부나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진행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경기도교육청의 창의지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사소통)은 혁신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보완하여 현재 경기도 전역의 중학교에서 확대 실시되고 있다.

미디어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 미디어교육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미디어교육 전문가가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 업무들을 관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파견교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적인 교사연수와 교과서 개발,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미디어교육 전문성을 쌓고 활동했던 교사를 파견교사 형태로 선발하여 미디어교육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행방식은 현재 EBS에 파견되어 수능방송을 담당하고 입시를 지원하고 있는 파견교사의 형태를 따르는 것이 현실적이다. 미디어교육 연수는 물론 콘텐츠개발, 찾아가는 연수, 상담, 재정지원 등 학교 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요구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파견 교사 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7)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육연수원 미디어교육 교과목 개설지원

학교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미디어교육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예비교사들에게 미디어교육에 대한 소양과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교사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나올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지원센터 차원의 강좌개설 지원과 콘텐츠 제공, 강사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미디어교육에 대한 소양을 갖춘 예비교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토대를 닦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교사의 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대학원이나 1급 정교사 연수가 진행되는 교육연수원 커리큘럼에 미디어교육에 대한 공통기본과목을 개설하여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미디어교육의 특성상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교육의 미디어, 언어, 사회, 철학, 윤리, 예술 등 포괄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하며 미디어에 있어서도 신문, 방송, 영화에서 광고, 인터넷,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 수 있는 관심과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문혜성 외, 2004).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서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물론 교사 재교육과정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미디어교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양성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각 과목들을 가르칠 예비교사들이나 재교육을 받는 현직교사들이 최대한 많은 미디어교육수업을 듣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학교 미디어교육을 한걸음 더 전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 (8) 미디어교육지원센터와 교육청과의 연계

앞서 소개했듯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창의지성 교육의 일환으로 미디어교육을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2014년에는 고등학교

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교육에서 미디어교육을 정규 편성하여 진행하고자 했던 미디어교육계의 바람이 일부 이루어진 사례라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미디어교육은 교육부가 주창하고 있는 창의인성 교육, 자유학기제, 시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시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미디어교육지원센터와 교육부, 교육청과의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접점을 찾아보고 MOU를 맺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면 학교 미디어교육은 더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2. 사회 미디어교육

### 1) 사회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최근 미디어교육이 전 생애적 교육으로서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이를 위한 미디어교육의 정책과 비전 수립의 필요성, 그리고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의 체계화와 안정화에 대한 의견이 미디어교육 관련 단체, 미디어센터, 학계, 전문가 그룹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여태까지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이들 내용들이 통합적인 논의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다(강에스터, 2012).

이런 가운데 2012년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에 이어 2013년 9월 17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가칭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하면서 미디어교육과 미디어교육 지원법안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고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 법안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수차례 논의돼 왔던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지원에 대한 의견을 다시금 정리하고 이들 사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에서부터 출발한다. 또 여기서는 미디어교육의 두 범주(‘학교 미디어교육’, ‘사회 미디어교육’) 중 ‘사회 미디어교육’에 한정해 그 논의를 진행한다. 사

회 미디어교육이란 ‘학교 미디어교육을 제외한 미디어교육’, 즉 ‘학교 외 미디어교육’을 일컫는 말로 이를 통칭해 여기서는 ‘사회 미디어교육’으로 명명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 미디어교육은 ‘학교 미디어교육’보다 앞서 시행되었다. 초기 사회 미디어교육은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현재에 이르러서는 유아,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노동자, 농민, 이주민(여성, 노동자) 등으로 그 대상이 확산되었고, 대상 미디어 또한 TV, 신문, 광고 등의 전통적 미디어에서 인터넷, 영화, 만화, 휴대폰(스마트폰),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로 확대되었다. 특히 교육주체는 초기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현재는 각 지역의 미디어센터들을 비롯해 국가청소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 등에서 미디어교육을 지원, 그 주체들이 확대되고 있다(강에스터, 2012).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확대만으로 사회 미디어교육이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으로 완결성을 구축했다고 단언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현재 미디어교육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회 미디어교육이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미디어교육의 형태와 모습이 공존되기는 하지만 자칫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못한 답보 상태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미디어교육의 논의 현장에서 늘 제기되는 이러한 평가들은 다시 한 번 눈여겨 볼만하다. 사회 미디어교육의 양적 팽창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좀 더 나은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 미디어교육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와 관련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적재적소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나아가 사회 미디어교육의 현황 파악은 현재 사회 미디어교육의 주체(조직)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실행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주제와 대상, 형식 및 내용들을 비교함과 동시에,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많은

성과와 한계 등을 골고루 파악해 한국 사회의 사회 미디어교육의 질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박진우·황치성 외, 2012).

사회 미디어교육 지원방안과 관련한 이번 연구는 2012년에 진행된 『2012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쟁점』의 후속작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미디어교육의 합리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현재 사회 미디어교육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짚어보고, 그중에서도 전국의 각 미디어센터에서 행해지는 미디어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부연설명하자면 사회 미디어교육의 범주가 광범위할 뿐더러 위 연구에서 이미 국내 사회 미디어교육 기관의 현황과 지원과 관련한 개괄적인 연구가 선행되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사이에 적잖은 양적 확대를 가져온 미디어센터를 그 연구대상으로 국한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은 현재 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별로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현황 분석을 통해 이를 확장, 사회 미디어교육의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참고로 미디어센터의 교육현황과 상황 이해를 위해서 기존의 문헌연구와 함께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담당자 대상 심층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본 연구에 응답한 미디어센터는 전국 32개 미디어센터(2013 설립된 화천생태영상센터 포함)이며 이 중 적절치 않은 응답을 제외한 18곳의 미디어센터 실무자들의 답변을 참고해 분석했다.

## 2) 사회 미디어교육의 전개과정과 교육 현황

국내 사회 미디어교육의 역사를 개괄해 보면 1970년대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의 미디어교육과 이를 이은 1980년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교육이 그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교육주체들은 시



민운동의 일환으로 모니터 활동을 시작한 이래 미디어교육을 사회운동 및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지속해왔다. 요컨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교육은 1980년대의 모니터교육 혹은 수용자운동과 그 역사적 맥락을 잇고 있다. 모니터 활동을 조직적으로 처음 시작한 곳은 1984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였으며, 1985년에 ‘서울 YMCA’가 학부모 대상 ‘TV 바로보기 교육’을 시작으로 언론수용자운동을 시작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당시의 내용은 엄격한 의미의 미디어교육이라기보다는 미디어 감시를 위한 모니터요원 교육의 형태를 띠었으며, 체계성, 지속성, 전문성을 갖추었다기보다는 단발적인 성격의 강좌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교육내용도 매스미디어에 대한 기본적 이해, 미디어 내용의 문제점 및 모니터 방법론 등에 치중됐었다(안정임·전경란, 1999). 이에 국내 미디어교육 이념의 접근방식 역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미디어 민주화운동, 전통적 가치보호, 가정의 가치수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기도 한다(김택환 외, 2000).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 미디어교육 기관들의 교육이 기존의 방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미디어의 다양화로 인해 교육 미디어(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광고, 영화, 스마트폰, 만화·애니메이션 등)가 다양해졌고 교육내용에서도 기존의 예방차원적인 교육이나 이념적인 접근방식, 리터러시 교육에서 비판적 미디어 읽기와 제작수업 등으로 확대 진행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범주의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 교육 대상 또한 기존의 범주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노동자, 이주민(여성·노동자) 등의 다양한 범주로 그 대상을 넓혀 나가고 있다.

사회 미디어교육이 진행되는 장소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 공간을 중심으로, 이와 함께 교육을 의뢰한 학교(초·중·고 및 대학교), 영역별 시민사회단체, 지역 소모임 및 다양한 주제별 활동현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미디어교육을 실시하

는 데 필요한 장비의 경우 교육을 실시하는 시민사회영역의 단체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상위원회 등에서 지원하는 미디어센터들을 이용해 교육에 필요한 장비들을 관련 시설 및 센터 등에서 대여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서는 미디어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때때로 교육 참여자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사회영역에 속해 있는 미디어교육 단체가 반드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긍정적 상황을 드러냄과 동시에 시민사회 미디어교육 영역의 특성과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강에스터, 2012). 사회 미디어교육이 가진 시설의 다양성과 이동성이라는 긍정적 특징은, 달리 말하면 사회 미디어교육이 가진 하드웨어적인 열악함을 드러내는 요소도 되기 때문이다.

### (1) 사회 미디어교육 현황

현재 국내 사회 미디어교육의 대부분은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지원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 미디어교육의 첫 출발이 사회 미디어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과도 맥락을 함께한다. 사회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 실시된 방송위원회의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가시화되기 시작, 이 사업을 통해 각 시청자 단체의 미디어교육 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된다. 미디어교육에 대한 공적 영역의 지원은 현재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조연하·배진아·이영주, 2007).

우선 가장 광범위하게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방송통신위

〈표 4-11〉 미디어교육 지원 공공기관 내역

기관명	교육 내용
한국언론진흥재단	읽기문화진흥을 위한 신문활용교육(NIE), 미디어교육사 양성·미디어교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미디어교육 강사양성·미디어교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르떼)	예술강사지원사업, 교재 개발 『영상으로 만난 문화예술교육 2』(2010), 초·중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선도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유아', 사회문화예술교육, 다문화예술교육
여성가족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지원, 청소년매체활용능력 증진 미디어교육, YP 활동 보급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윤리교육·인터넷 중독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미디어교육·인터넷 윤리교육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제공 및 교육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소외지역 초등학생 및 소외계층 대상의 미디어교육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
한국교육학술진흥원	에듀넷, 초중등 웹 활용 교육·저작권교육
한국방송공사(KBS)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운영·미디어교육
서울시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청소년 영상제작교육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박물관 찾아가는 어린이영화아카데미(초등학생들의 미디어 감수성과 창작 욕구 함양 미디어교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미디어 정보 이용 가이드 교육
한국통신문화재단 (KT 문화재단)	유아, 청소년, 학부모 인터넷윤리교육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영상제작교육

원회,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을 들 수 있다. 또 학계차원에서는 미디어교육학회, 언론학회, 방송학회, 교육학회, 국어교육학회, 영화학회 등이 관여하고 있고 미디어교육 기관

및 단체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미디어센터, 청소년기관 등이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거나 실시하고 있다(오정훈, 2008 재인용).

〈표 4-11〉을 참고로 종합해 보면 현재 대략 16개가량의 공공기관이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 미디어교육 전문기관인 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의해 전국 21개 도시에 총 24개가 설립, 운영되고 있거나 현재 신축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지원하는 교육 내용의 범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활용교육(NIE)’에서부터 영화, 인터넷,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미디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미디어교육 지원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방송위원회가 2000년부터 7년 동안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해 왔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전국에 지자체 지원 결합상태인 미디어센터를 건립해 미디어 제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르떼)에서는 예술강사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다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산하 위탁시설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여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미디어 비판 교육과 미디어 영상제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방송보다는 영화 제작 중심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한국영화박물관 찾아가는 어린이 영화아카데미로 초등학교생들의 미디어 감수성과 창작 욕구를 키워주기 위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미디어교육사 양성, 신문 활용 교육(NIE), 미디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정보윤리교육과 인터넷 중독교육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인터넷 미디어교육과 인터넷 윤리교육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

〈표 4-12〉 주요 사회 미디어교육 기관의 유형

	빈도	백분율
정부기구	3	5.4
독립형 공공기관	2	3.6
재단법인	5	8.9
사단법인	12	21.4
비영리단체	21	37.5
지자체 및 소속기관	8	14.3
기타	5	8.9

출처 : 『2012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쟁점』.

으며, 한국교육학술진흥원에서는 에듀넷 초중등 웹 활용 교육과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지원과, 청소년 매체활용능력 증진 미디어교육을, 한국저작권 위원회에서 저작권 교육을, 서울시청소년 미디어센터(스스로넷)에서는 청소년 영상 제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4-12〉는 주요 사회 미디어교육 기관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드러나 듯 주요 미디어교육 기관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 단체가 21곳 37.5%로 가장 많았으며, 사단법인 형태의 기관이 12곳, 21.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 소속기관이 8곳 14.3% 등의 순이었다(박진우·황치성 외, 2012). 〈표 4-12〉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미디어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비영리기관 단체이며 그중에서도 한국의 특성상 아직도 시민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미디어교육의 명맥을 이어온 시민단체는 그 성격의 특성상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교육을 주로 해 왔다.

그동안 시민 사회 영역에서의 대표적인 미디어교육 단체들은 ‘민주언론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 열린 사람들’, ‘경실련미디어워치’, ‘YWCA’,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미디어교육을 진행해 온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이들 시민 사회단체들은 지역 내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미디어교육을 확산시켜 오면서 미디어교육의 발전에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들 시민단체들의 미디어교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지 못한 감이 있고 과거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만 머물러 있는 현실적인 한계들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한 양상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정기적이고 단발적인 미디어교육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0년대부터 시설과 장비를 보유해 사회 미디어교육을 진행해 온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 현황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디어센터는 그 특성상 미디어교육을 한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상당히 활발한 미디어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역사가 10여 년을 넘긴 현재에서 이들의 미디어교육 현황에 접근,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 (2)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의 목적과 현황

국내의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질적인 변화와 양적인 변화를 동시에 가져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양적 변화는 여타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지지 않을 만큼 많은 성장을 가져왔는데 이들 양적 발전의 중심에 미디어센터의 확장이 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공적 영역의 미디어교육이 이전의 확장속도에 비해 부분적으로 위축된 감이 없지 않고, 또 시민사회영역의 미디어교육 활동도 눈에 띄는 확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미디어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2000년대 이후 건립된 각 지역의 미디어센터는 학교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미디어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적이고 참여적인 미디어교육을 실천해 왔으며, 참여와 행동을 위한 민주적 자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문화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행해 왔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또한, 공교육 차원에서 보편적 미디어교육을 실현하고자 학교 및 교육청과의 협력 관계를 맺으며 학교 미디어교육을 실시해 오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는 평가 또한 동시에 얻고 있다(홍교훈, 2012, 재인용).

국내 지역 미디어센터는 시민사회영역의 독립영화운동 주체들에 의해 정책이 제안되어 정부 정책으로 입안되어 시행된 것으로, 국가-지역정부-시민영역 간의 정책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설립된 특성이 있다. 2000년 이후 설립된 지역별 미디어센터의 설립 현황은 <표 4-13> 과 같으며, 참고로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는 서로 상이하다.

<표 4-13> 지역별 미디어센터 설립 현황

권역	지역	명칭	운영주체	설립주체
서울	중구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영진위 직영	영진위
	성북구	아리랑미디어센터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구
	중구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사)서울영상위원회	서울시
	강서구	강서영상미디어센터	강서구 직영	영진위
	마포구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트'	(사)한국영상 미디어교육협회	(사)한국영상 미디어교육협회
	용산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시
	영등포구	장애인미디어센터 '바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복지TV	현대홈쇼핑
인천	남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남구학산문화원	문화부 · 남구

권역	지역	명칭	운영주체	설립주체
경기	부천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재)부천문화재단	문화부 · 부천시
	고양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재)고양문화재단	문화부 · 고양시
	성남	성남영상미디어센터	(재)성남문화재단	문화부 · 성남시
충남	천안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문화부 · 천안시
충북	제천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청풍영상위원회	문화부 · 제천시
울산	울산	울산MBC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대구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씨눈'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문화부 · 대구시
	대구	대구MBC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경북	안동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안동영상미디어센터	문화부 · 안동시
부산	부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한국전파통신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경남	김해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재)김해문화재단	문화부 · 김해시
	마산 · 창원	경남MBC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진주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광주	광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전파통신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전남	순천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사)전남영상위원회	문화부 · 순천시
	목포	목포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북	익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사)삼동청소년회	문화부 · 익산시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퍼블릭액세스실현을 위한 전북 네트워크	영진위
	전주	전주MBC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강원	원주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원주민예총 · 원주시민영상협의회	문화부 · 원주시
	강릉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강릉문화재단	문화부 · 강릉시
	춘천	춘천MBC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제주	제주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제주영상위원회	문화부 · 제주도

출처: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교사양성체계연구. 2012. 6.5



〈표 4-14〉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영역

교육영역	내용
상설(정규) 강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 관련 강좌를 초급/중급/고급 수준별로 개설
공동체	소외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
특강	미디어문화 전문(유명)강사 초청 강연 실시
체험 교육	유아와 어린이 대상으로 미디어문화체험교실 운영
학교 교육	방과 후 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 실시
미디어교육교사 양성 교육	지역 내 미디어교육 신규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실시
시민영상제작전문가 양성 교육	독립 다큐멘터리, 극영화, 공동체라디오 제작자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교원 연수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교사 대상의 교육 실시
주문형 교육	단체,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교육 컨설팅 및 위탁 교육 실시

출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속토론회 자료집』, 2012.

앞서 언급한 대로 각 지역의 미디어센터는 국가와 지역정부, 그리고 시민영역간의 정책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설립된 특성이 있다. 이러한 설립 배경을 가진 미디어센터는 시민의 일상적 삶을 미디어로 조직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철학과 함께 문화다양성 보장과 주류 미디어에 대항하는 대안 미디어운동의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했다. 현재 10년을 넘긴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교육이 그 교육영역이나 성격에서 얼마나 그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는지는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홍교훈, 2012 부분수정). 〈표 4-14〉은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교육 영역과 관련한 내용이다.

〈표 4-14〉를 참고로 할 때 지역 미디어센터의 교육 활동은 방과 후 학교 등 학교 미디어교육의 영역에서도 교원 연수, 교사 파견, 협력 사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시민 사회영역을 넘어서 학교 미디어교육으로 영역을 확장하

〈표 4-15〉 미디어센터의 사업 영역

구분	세부사업
미디어교육	상설강좌, 공동체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창작지원	제작지원, 시민제작단(동아리) 지원
영화상영	상영관운영, 찾아가는 영화관, 아카이브운영, 영화감상동아리지원
공간장비 대여	교육실/상영관/동아리방 등 대여, 영상제작 장비 등 대여
기타	지역 내 미디어/문화 네트워크 구축, 전국적 네트워크 활동, 스탭 재교육 사업

출처: 『지역미디어센터활성화정책 세미나 정책체계 개선방안 및 과제자료집』, 2013. 7. 23.

고 있다.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미디어교육 분야를 학교-미디어센터 연계 활동으로 부분적으로 채워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기적으로 교육성과가 평가되는 지역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읽는 능력, 미디어를 통한 창의적 표현 능력을 갖게 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과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미디어센터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 미디어교육은 지역민들과 직접 만나 호흡하고 교류, 연대하는 활동으로써 그동안 미디어센터가 지역과 공동체 안에 뿌리내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꾸준히 고민해 오고 있는 부분이다. 〈표 4-15〉은 각 미디어센터가 공통적으로 진행,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영역이다.

〈표 4-15〉를 참고하면 현재 대부분의 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상설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시민 미디어교육의 일환으로 공동체 미디어교육 지원, 찾아가는 영화관, 영화감상 동아리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등은 공개적으로 도출된 바가 거의 없어 성과의 판단은 성급하게 내리기 힘든 실정이다.

### 3) 미디어센터의 서베이 분석 결과

#### (1) 조사개요

사회 미디어교육 기관 중 특히, 미디어센터를 구체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미디어교육과 관련해 미디어센터의 교육 역사가 10여 년이 넘으며 그 성격상 정기적으로 교육성과가 평가되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전 지역적으로 분포된 미디어센터들을 비교 및 분석 가능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대상, 프로그램, 교육 미디어 유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설문 조사는 수치화된 결과분석이 아니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출간된 『2012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쟁점』의 자료 데이터와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조사는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국 32개 미디어센터(2013 설립된 화천 생태영상센터 포함)를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담당자와 미디어 강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와 전화 인터뷰, 직접 대면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내용 중 적절치 않은 응답을 제외한 18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것은 지난 『2012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쟁점』에서 이미 사회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있었고,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주를 좀 더 좁혀 미디어 센터의 경우에 한정해 조사했다. 연구 또한 미디어센터 실무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구성, 좀 더 생생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본 조사에 활용된 질문지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해 연구자가 자체 제작한 인터뷰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이미 미디어교육 현황과 관련한 다양한 조사결과는 『2012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쟁점』에서 진행했으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현직에 몸담고 있는 미디어센터 실무진과 강사들의 생생한 실제 경험을 토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미디어센터의 현황과 관련한 인터뷰는 각각 교육대상, 교육프로그램, 시설, 강사분야 등 모

두 네 가지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포괄적으로 작성하게 했으며 이후 부족한 추가 내용은 직접 대면 인터뷰를 통해 그 내용을 추가했다. 다음은 질문내용이다.

-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센터의 미디어교육의 특징에 대한 설명
- 미디어교육 관련 센터의 긍정적(장점)인 점을 소개  
(교육 프로그램, 교육 대상, 인력, 교육시설 차원)
- 미디어교육과 관련 센터에서 지양해야 할 점, 혹은 한계점
- 정책적,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과 그 내용

본 조사는 그 내용이 인터뷰가 주를 이루는 관계로 인터뷰를 질문의 범주를 분류해 내용을 전개했다. 인터뷰 내용 중 중복되는 것은 제외했으며 비교적 다양한 의견을 실을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이들의 이름과 소속은 인터뷰 내용에 대한 선입견등을 배제하기 위해 보고서에 표기하지는 않았다.

## (2) 분석결과

이번 조사에 응한 미디어센터는 모두 32개의 미디어센터다. 이중 적절치 않은 문답을 제외한 18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지역별 미디어센터로는 ‘충남’, ‘충북’,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 ‘제주도’가 각 1곳(각 5.6%), ‘서울’, ‘경기도’, ‘경남’이 각 2곳(11.1%), ‘강원도’, ‘전북’ 3곳(16.7%)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미디어교육 담당자를 통해 이 메일 질문과 면담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응답 여부, 응답의 수준에 따라 선별함으로써 지역적 분배가 완벽하게 이뤄지지는 못했다는 점을 언급한다. 그러나 설문과 함께 심층 인터뷰 형식의 주관식 질문 구성으로 현황을 보다 상세히 기술할 수 있도록 했다. 분석 대상 미디어센터는 <표 4-16>과 같다.

〈표 4-16〉 분석대상 미디어센터

권역	지역	명칭	운영주체	설립주체
서울	성북구	아리랑미디어센터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
경기	부천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재)부천문화재단	문화부 · 부천시
	고양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재)고양문화재단	문화부 · 고양시
충남	천안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문화부 · 천안시
충북	제천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청풍영상위원회	문화부 · 제천시
울산	울산	울산MBC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대구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씨눈'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문화부 · 대구시
경남	마산·창원	경남MBC시청자미디어센터		
	진주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전남	목포	목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전북	익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사)삼동청소년회	문화부 · 익산시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퍼블릭액세스실현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영진위
	전주	전주MBC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강원	원주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원주민예총 · 원주시민영상협의회	문화부 · 원주시
	강릉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강릉문화재단	문화부 · 강릉시
	화천	화천생태영상센터		
제주	제주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제주영상위원회	문화부 · 제주도
서울	미디어 강사			

#### ①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실태 개관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상설강좌와 찾아가는 강좌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또 그 대상과 빈도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생활밀착형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교육 대상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가장 많은 미디어교육을 받고

있었고 교육 내용은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제작에 치우친 감이 있었다. 시설은 타 교육기관보다 양질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디어센터의 시설이 노후단계로 접어드는 곳은 시설 또한 노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와 관련해서는 자체 내부강사와 외부의 강사들이 고루 포진해 있었지만 강사들 대부분이 적절한 보수와 불안정한 급여로 인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미디어교육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의 특징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의 공통된 특징은 미디어센터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시민대상 상설강좌와 일반적으로 센터 외부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미디어센터들이 가진 대부분의 특징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주문식 교육의 생활밀착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미디어센터들의 공통점이었다. 하지만 그 대상과 빈도수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다수의 미디어센터들이 지역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참여적 미디어활동 활성화, 미디어(방송) 접근권 확대라는 목표를 두고 미디어교육을 포함해서 상영, 제작지원, 네트워크, 퍼블릭 액세스 등의 사업을 한다(홍교훈, 2102)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이다.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주문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을 요구하는 기관의 모집대상과 특색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므로 수준별 기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외 계층 미디어교육의 경우에도 대상을 집중파악하고 모집별 프로그램 커리를 재설정하여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를 승화시키도록 한다. 지역의 문화와 어울려 교육프로

그램을 설정하여 지역문화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디어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며 즐길 수 있는 눈높이 맞춤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응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기획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생 커뮤니티 형성으로 인간적인 교류와 지역 공동체 형성에 노력을 하고 있다.”

“청소년, 일반시민, 노인층을 대상한 프로그램을 적절히 배분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최근 미디어 성향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1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드 미디어인 라디오와 인터넷을 접목한 라디오 방송교육,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및 촬영 그리고 청소년 일반인을 위한 스마트폰 영상촬영 및 편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밀착형 교육프로그램이 많으며, 모든 교육의 결과발표회가 있다. 장기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수요도가 높고, 교육의 종료 후에도 후속적인 동아리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학교처럼 1년간 1개 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서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다.”

기술한 바처럼 지역 미디어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소통의 창구가 되며, 소외계층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물론,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핵심 역할로도 그 기능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의견을 통해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자 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을 통해 이들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소통을 돕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OO군과 함께 농한기를 맞아 마을공동체 복원의 핵심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기자와 앵커로 참여하여 마을의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교육도 진행했다. 아울러 교육실시 중 정기적으로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와 지역 센터 상호 참관수업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생활 속의 미디어교육〉이 미디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함께하는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자체의 기능보다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거나 지역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는 표현과 소통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 내 유일한 장애인·비장애인 통합미디어교육을 3년 동안 진행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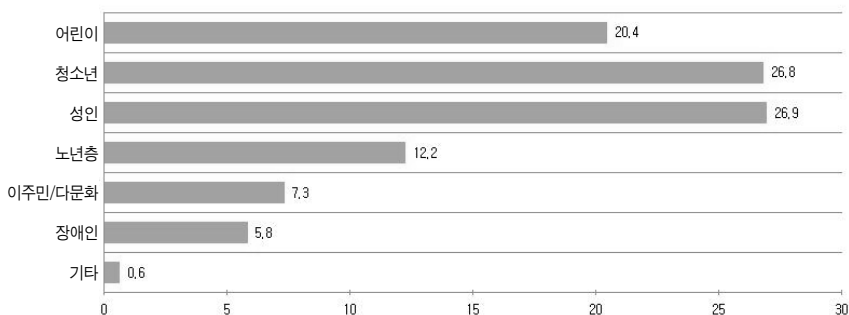
“다문화어린이,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대상 미디어교육으로, 그림동화 만들기 가족잡지 만들기 등. 영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교육 참여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의 생각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민(다문화)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지역·마을·동네라는 생활공동체의 사회적 소통 활동을 중장기 교육계획 속에서 교육실행과 함께 제작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림 4-2〉 사회 미디어교육의 주요 교육대상

( ■ 백분율 (%))



출처: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쟁점 2012, 147p 재구성

## ② 미디어교육 대상

미디어센터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육의 향유계층은 청소년과 성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12년에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다(박진우·황치성 외, 2012). 청소년의 교육이 타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된 이유는 최근 토요일이 휴무로 진행되면서 학교 외에서 진행되는, 즉 지역 미디어센터에서의 방과 후 교실, 토요문화학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이용 빈도수와 참여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교육 대상에 대한 데이터는 이전 연구조사 결과로 보완하고자 한다. 결과 내용은 〈그림 4-2〉와 같다.

미디어교육의 주요 수혜대상은 ‘성인’(26.9%)과 ‘남녀 청소년’(26.8%)이었다. 그밖에 ‘이주민·다문화 가정’이 7.3%였으며, ‘노년층’은 6.1%, ‘장애인’은 5.8%였다. 여기서 ‘기타’ 항목은 모두 새터민들이었다. 본 연구의 인터뷰의 결과에서도 사회 미디어교육 분야의 결과와 유사하게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대상자들도 성인과 청소년이 미디어교육의 주 대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디어센터의 경우 좀 더 다양한 교육대상자들로 확

대하려는 노력과 그 시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래 인터뷰를 참고로 하면 아직은 대상의 다양성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 센터의 경우 미디어교육을 차지하는 대상의 비율이 청소년이 80% 이상 차지하다 보니 전체적인 교육 흐름이 청소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장애인 및 성인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장비 및 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교육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생애단계별로 다양한 연령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과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문예 교실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미디어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디어교육의 교육 대상도 어린이부터 노인 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함께 하고 있으며, 지역 아동센터,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새터민, 시장 상인, 장애인, 위기청소년 등 보다 많은 계층들과 함께 하고 있다.”

### ③ 미디어교육센터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영상미디어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측면이 많았다. 미디어 이론이나 리터러시, 인문학 등과 관련된 강의는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수요창출이 어려워서인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했다. 설문에 응답한 미디어센터 중 4곳만이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인문학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이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대중강좌 역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영상제

작과 편집기술 뿐 아니라 영화읽기, 편집 분석 등의 영상이론 강좌와 인문학과 미디어를 결합한 미디어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결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개관 이후 다양한 교육의 실행, 운영, 평가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프로그램이 안정화되었다.”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과 퍼블릭 액세스 향상을 위한 지역민 및 소외계층 대상 미디어교육과 더불어, 미디어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상미디어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범도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문화기반시설로, 내부에 상영관을 설치하고 다양한 영상문화를 감상 및 토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기존 미디어교육에 타기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미디어교육 이전에 갖추어야 할 기반 지식과 예술적 소양교육의 진행 역시 앞으로의 교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뷰 설문내용에서도 지적됐듯이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은 대부분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콘텐츠 활용과 더불어 제작에 상당한 무게중심이 이동해 있었다. 이것은 영상제작물이 타 결과물과 비교해 제작의 용이함과 신속함, 그리고 가시적 효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물이라는 효과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미디어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할 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미디어의 범주 중 영상제작 등 한 분야에만 교육 프로그램이 쏠려있다는 사실은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가진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만이 가진 한계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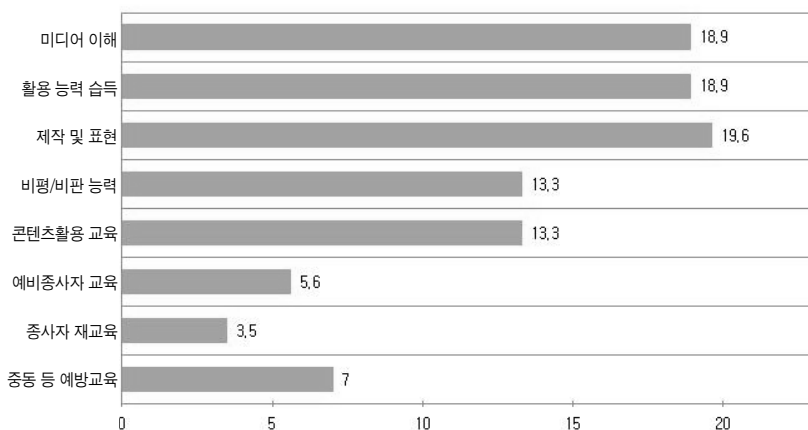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여기에 따른 뉴 미디어 활용이나 제작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대부분의 미디어교육기관들이 교육 프로그램이 제작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2012년에 조사된 『2012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쟁점』에서 제시한 사회 미디어 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적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 미디어교육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적의 경우 미디어의 속성, 기능, 현황, 윤리 등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 시나리오 구성, 특정 콘텐츠 제작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표현적 능력’ 습득이 28건(1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미디어의 속성, 기능, 현황, 윤리 등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카메라 촬영기법, 스마트폰 활용법, 편집 프로그램 학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용 능력 습득’이 각각 27건(18.9%)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평 활동과 NIE, 영화를 이용한 인문학 교육,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회비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한 교육’이 각각 19건(13.3%), 미디어 중독 등 ‘문제 예방 교육’이 10건(7.0%), 미디어 분야 ‘예비 종사자 전문 교육’이 8건(5.6%), ‘미디어 분야 종사자 전문 재교육’이 5건(3.5%)이었다. 이는 많은 사회 미디어교육 기관에서 주로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콘텐츠 활용과 제작에 교육 내용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영상 제작 위주의 기능 익히기 교육은 그 결과물이 대부분 영상제작물로 다음의 데이터와 거의 유사한 결과로 보충할 수 있다.

미디어교육의 주요 결과물의 경우 ‘영상 제작물’이 2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평문 등의 글쓰기’가 20.8%였다. 다음으로는 ‘예술적 작품’이 20.0%였으며, ‘인쇄 제작물’이 13.6%였다. ‘수료증 획득’은 12.8%였으며, ‘자격증 획득’은 4.0%, ‘광고물’의 경우 1.6%, 그리고 ‘기타’가 0.8%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상 제작이나 영상 콘텐츠 활용 등에

〈그림 4-3〉 사회 미디어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적

(■ 백분율 (%))



출처 :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쟁점 2012, 123p 재구성

일정 부분 치우친 미디어교육의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의 미디어교육이 일정 부분 미디어의 활용능력 습득이나 제작 및 표현, 영상제작이나 영상 콘텐츠 활용에 치우친 현상이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영역과 프로그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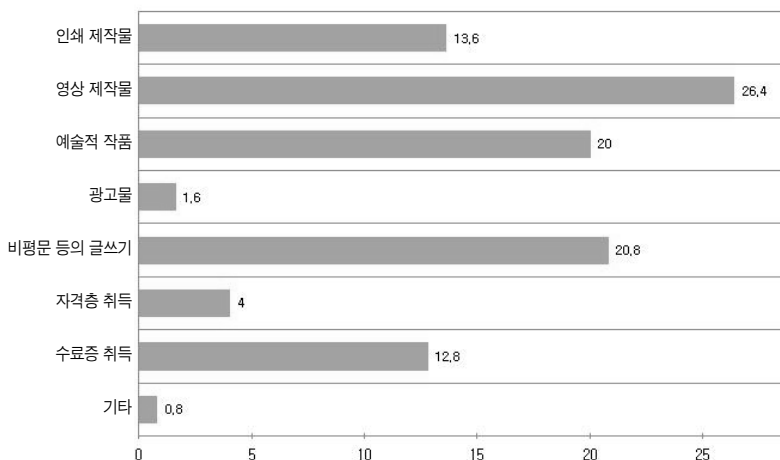
#### ④ 인력 현황(미디어교육 강사 포함)

미디어센터 인력 대부분이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전문 강사와 직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외부의 전문 강사 초빙이 여러모로 여의치 않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단기적인 전문 강사의 초빙, 센터 자체 내 미디어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추후 강사로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지속적인 배출을 통해 양질의 미디어교육을 진행코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디어센터 인력 분야에서 우선 대다수의 센터 직원들이 전문 기기들

〈그림 4-4〉 사회 미디어교육의 주요 결과물

( ■ 백분율 (%))



출처: 『2012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쟁점』, 148p 재구성.

의 활용과 내용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의와 관련해서는 주로 외부의 전문 강사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전문성이 높았다. 최근에는 자체 양성과정을 통해 수급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 이를 긍정적으로 풀이한다면 지역의 인력들을 충분히 수급하고 그 운영이 비교적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모든 직원이 영상분야 전공, 전문가로써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는 상당 부분의 미디어교육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 설계에서부터 진행,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영상뿐만 아니라 미술,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센터 전문 강사 풀을 확보하여 교육생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교육 주 강사는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들로 구성, 직원들도

현 독립영화감독 2인, 미디어기관 관련 경력자 2인, 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었다. 수강생은 인근 지역민들이 대부분이며, 교육에 높은 만족도를 갖고 연속 수강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강사의 경우 기반 교육을 중심으로 실무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 응용 가능한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에 교육에 많이 참여 하지 않았던 대학생들을 흡수하여 수강생을 전문 강사로 육성할 수 있다. 직원은 각 분야의 담당 전문 인력으로 교육, 홍보행정, 창작지원 및 기자재, 상영 팀장으로 구분하여 전문 분야를 보장한다.”

“강사 관련 분야는 영화감독, PD, 미디어활동가 등의 전문 인력을, 직원 은 관련 전공자를 활용하고 있다.”

“항상 초빙할 수 없는 ‘수도권 및 광역도시’에 집중된 강사풀 인력구조에 따라 손쉽게 초빙할 수 있는 지역 내 강사풀 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시행, 지역 내 접근성이 용이한 20여 명의 강사진을 양성 구축하여 지역의 각종 단체와 학교·지역민에게 손쉬운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 지역 수강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한 예년대비 200% 이상의 교육 수혜처가 확대 되었으나 센터 직원 부족으로 인해 업무 피로도 누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미디어교육을 진행해온 강사를 확보하고 있다.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교육 인재들을 활용한다. 교육생이었던 이들이 추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10년간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많은 인적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어 주부, 어린이교육 등 각 교육 특성에 맞는 강사인력을 구축하

고 있다. 10년간 수강생이 영상 활동가로 발전하고 이들이 다시 미디어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인적 구성원들의 활동과 역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교육 의뢰에 따라 교육 대상에 맞는 맞춤형 강사를 투입한다.”

“미디어 강사 양성을 통해 지역 내 미디어 활동가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팀을 센터 내에 두어 지속적인 교육계발을 이루려 하고 있다.”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지역 민들이 미디어교육 교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교사모임을 통해 미디어교육 웹진을 만들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영상제작과정과 노인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제작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노인제작동아리의 경우 동아리에서 만든 영상물을 지역방송에 지속적으로 액세스하고 있다.”

“지역 내 강사풀 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시행하고 있어, 항상 초빙할 수 없는 수도권 및 광역도시에 집중된 강사풀 인력구조에 영향 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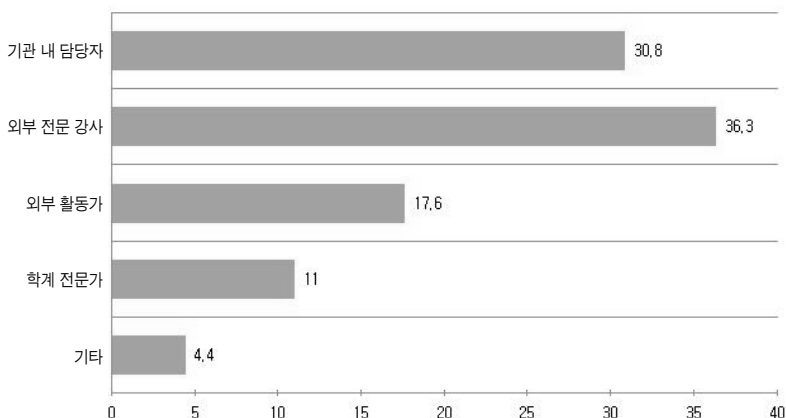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서 『2012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쟁점』의 사회 미디어 교육 강사·주체문항과 관련해 비교해 보면, 사회 미디어교육의 경우 외부 전문 강사(36.3%)가 기관 내 담당자(30.8%) 더 많은 것으로 미루어 미디어센터의 경우와는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림 4-5〉에 따르면 사회미디어교육 분야에서 미디어교육 강사·주체의 경우 ‘외부 전문 강사’가 33건(36.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그림 4-5〉 사회 미디어교육 강사·주체

(■ 백분율 (%))



출처: 『2012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쟁점』, 128p 재구성.

고 있었다. 다음으로 ‘기관 내 담당자’가 28건(30.8%)이었고, ‘외부 활동가’가 16건(17.6%), ‘학계 전문가’가 10건(11.0%), 기타가 4건(4.4%)이었다. ‘기타’에는 언론인, 미디어 관련 종사자 초빙 특강과 같은 형태들이 있었다.

반면 미디어센터의 경우 특히 위 인터뷰 내용에 언급된 바처럼 자체 내 미디어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최근 대부분의 미디어센터가 자체 내 미디어교육사를 교육,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라 타 사회 미디어교육 기관의 경우와 비교해 비교적 미디어 강사의 수급에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적인 편차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 센터의 규모에 비해 전문 강사의 부족과 특히나 지방 지역 센터의 경우 전문 강사 섭외의 어려움, 센터 내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업무의 과부하와 불균형한 처우 등 다

음의 설문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미디어 강사는 모집해서 강사를 섭외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 있던 강사풀에서 전화로 강사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사 풀이 더 넓어지거나, 강사 모집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원의 경우 사업 외에도 겸업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교육담당자면서 상영 담당자이기도 하고, 교육담당자면서 홍보담당자이기도 하다.”

“교육을 총괄하는 직원이 1명이고 진행하는 강좌는 많다 보니 행정적인 절차 처리하는 데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거 같고 마치 학원 같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일일이 수업진행과 수강생들에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는 게 많아 스트레스가 많고 아쉽다.”

“본 센터는 현재 사무국장 1명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인근에 대구와 부산이 있지만 둘 다 한 시간 이상 거리여서 강사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 센터의 홍보가 많이 안 된 상황이라 수강생 모집도 쉽지 않다.”

“강사는 교육 관련 경험 부족과 강사료 수입이 적고, 직원은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재교육의 한계가 있다.”

“교사양성과정을 통해 미디어교육 교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미디어교육 교사에게 있어서 미디어교육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한계다. 미디어교육 교사의 경우 교육의 기획 단계부터 운영, 평가까지 많은 시간 회의를 함께 하고, 교육과 관련된 교안 작성, 평가서 작성, 평가원고 작성 등 교육을 실제 실행하는 시간 외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나 현재 강사료는 그러한 부분을 다 포함해서 책정했다고 하기에는 적은 편이다.”

“미디어교육을 진행 할 수 있는 강사의 부재 혹은 센터 사정상 직원들이 직접 미디어교육을 진행 할 수밖에 없다. 직원들의 업무환경 또한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다.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교육 혹은 강사양성 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강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한다.”

“지역이라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진행할 강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또 해당 강좌에 관심을 가지는 인원도 제한되어 있어 시기에 따라 수강인원에 편차가 있다.”

“팀원 없는 팀장 체제, 수강생의 공동화 현상(젊은 층의 감소), 강수 수급 문제.”

“타 지역에 비해 전문적인 미디어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강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센터 내 직원들이 교육 업무 및 강사의 역할까지 수행하다 보니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은 미디어교육 강사와 관련한 내용이다. 미디어교육 강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와 지원희망이 논의되었는데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하다.

“미디어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미디어 강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

“미디어센터가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발 빠르게 변하는 영상 시대에 앞서나가기 위한 다양한 교

육 및 시연의 장이 마련되어야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관심과 예산의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미디어교육이 다른 여러 선진국의 사례처럼 학교 내에서 정규수업으로 채택되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 걸 맞는 강사배출 시스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 사업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몇몇 단위에서 실행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단체나 기관, 공동체는 물론이고 일정 정도의 미디어 활동 경력을 증명하면 개인(미디어강사 포함)도 기금사업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별로 기금사업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각 지역에서 다양하고 자유롭게 미디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보조교사 양성 프로그램, 센터에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최소 6인 이상으로 해주면 좋겠다.”

“전국 미디어센터의 인력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의 양을 보면 적은 노동임금과 많은 노동시간 등이 확연하게 들어날 것이다. 파견형태로 미디어 전문가를 채용하여 센터별로 2~3명씩 보내주었으면 한다. 계약직이 대부분인 전국 미디어센터의 인력현황에서 보듯이 고용형태가 매우 심각하며, 운영주체(각 지자체)에 따라서 운영방향이 정해지므로 미디어센터 고유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계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센터가 다른 목적과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 센터 연합적인 공통 미디어강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디어강사와 직원을 위한 재교육 형태의 미디어 관련 연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강사/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무료 교육프로그램,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강사인증제 도입과 기존 강사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존강사들의 강사인증 현실화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

“미디어교육 교사의 강사로 기준 마련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각 미디어센터마다 또 지원사업마다 강사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안에서 강사의 역할을 반영한 강사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미디어교육 교사는 여전히 낮은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는데, 사회적 지위 개선 뿐 아니라 계속 활동하며 성장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미디어센터 직원 역시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현상과 미디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에서는 오가는 교통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강사에게 교통비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아예, 책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강사의 선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미디어교육 진행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강사군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강사 양성처럼 미디어 교사 양성에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 미디어센터는 문광부 모델, 방통위 모델, 독립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문광부 미디어센터는 가장 활발하게 설립과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미디어센터가 아닌 독립센터의 경우 예산상의 어려움에 따른 직원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다. 독립센터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하고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직원 정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해당 지자체의 규모나 예산에 따른 기준이 있다면 그에 맞춰 센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센터별 특성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공통 자료 제작, 비용 차원에서 섭외하기 힘든 강사의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다양성의 교육 제공과 견학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적 미디어 강사 교육을 열 수 있도록, 전문 강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활동하는 강사들의 사고와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재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미디어 강사 자격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미디어센터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조직이 작은 편인데다 활동의 폭이 크고 역동적이라 미디어 활동에 뜻이 있는 개인들(직원)에게 의존하여 운영되는 경향이 크다. 그럼에도 고용은 1~2년 단위의 계약 형태라 미디어센터에서 일귀놓은 네트워크나 인프라가 직원이 바뀌면 사라지기도 한다.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고용구조가 필요하다.”

“미디어교육은 교육전의 충분한 기획과 교육 진행에 있어서의 가장 효과적인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진행이란 사전에 교육대상에 대해 충분한 파악이 되고 교육과정 중에서 진행상황에 따라 끊임없는 회의와 교육대상 분석을 통해 커리큘럼 조정 등을 병행하며 본 교육의도에 맞게 그리고 교육대상자들의 상황에 맞게 교육을 조정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실정을 보면 센터 내 교육팀이나 강사들이 너무 많은 교육과 업무로 교육 하나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교육 참여자들이 미디어를 통한 표현·소통·변화 등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자 또는 강사들이 스스로 이 목표를 낮게 설정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이 인력적 측면에서 (실무직원, 미디어강사)지역과 규모의 차이에 따라 심한 편차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디어센터가 향후 풀어야 할 중차대한 현안으로 인식된다.

#### ⑤ 시설 자원

시설 자원 측면에서는 표면적으로는 타 사회 미디어교육 기관에 비해 양질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립한지 3년 내의 신축 센터의 경우 최신 장비 보유와 넓은 규모의 센터, 또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상영관 등 양질의 시설을 가진 경우로 있었다.

“개관한 지 2년이 조금 넘어서 시설이 깨끗한 편이며 장비 또한 최신장비로서 각종 제작과 최신 트렌드 교육에 무리가 없다. 타 미디어센터와 차별화되게 4학기제(봄, 여름, 가을, 겨울)로 운영하고 있으며, 워크숍이나 제작 종합반(다큐, 사진, 작가 등)은 6개월 과정으로 기초에서 중급까지 체계적으로 배우며 실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스럽게 교육생간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총면적 2,300㎡(750평) 영상제작과 오디오 교육생을 위한 일반적인 시설과 고급시설이 어우러져 기초교육에서 중·고급교육까지 실시할 수 있는 HD기반으로 세팅되었다.”

“지역 내 영상관련 최고·최신 시설로, 200평 규모 HD스튜디오, 영상편집을 위한 최신형 컴퓨터 교체(2012년), 3D 캠코더, DSLR 등 일부 최신 기종을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교육실과 디지털 교육실, 회의실과 동아리실, 대강의실 등 교육과 후속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다. 또한 센터 내에 상영관이 있어 기존 상업영화뿐만 아니라 지역민이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교육 결과물 상영회 역시 센터 상영관에서 개최하여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카페에는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DVD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고, 아이를 동반한 시민이 편하게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유아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방송국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 장비수리를 6개월에 1번씩은 꼭 받을 수 있어 장비상태가 원활한 편이다. 하지만 장비의 업그레이드는 절실하다. 또한 수강생 모집 시 방송사광고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TV광고를 통해 미디어교육을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지역에 센터가 존재하는 자체가 장점이며, 교육시설과 상영시설을 비롯한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장소가 어린이 도서관과 함께 하고 있어 상호보완의 관계로 작용하며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영화관이 함께 있어 결과발표회 등의 활용도가 높고, 도서관과 함께 있어 지역주민대상 홍보에 어려움이 없다.”

반면 인터뷰 내용 중 시설과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을 배치해보면 시설 분야에 관련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안들이 드러난다. 미디어센터의 특징상 대부분의 미디어센터들의 대부분이 영상 미디어교육에 편중됨으로써 여기에는 필히 수반되는 대부분의 진행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장비와 시설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의 확충



과 보충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 미디어센터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와 하드웨어의 장비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문제도 충분히 예견되는 점이다.

“센터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 목적에는 Mac이라는 전문PC가 별 효용 가치가 없어 주로 운영되는 IBM컴퓨터강의실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센터를 이용하는 주 고객들은 Mac이라는 컴퓨터 자체도 생소하고 또 그것을 배운다고 해도 각 가정에는 거의 IBM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연습해보고 연속성을 가지고 활용해볼 기회가 없다. 그러다 보니 IBM컴퓨터실에서 주로 모든 교육을 진행하고 기계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만지고 작업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 자주 포맷을 하고 수리 또한 많아지고 있다. 사업기획과 지역의 특성 나아가야할 방향을 확실히 적립한 후 거기에 맞추어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장비 및 소프트웨어 노후화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공간의 활용도는 매우 좋으나 개관한 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컴퓨터와 카메라 등의 장비가 노후하여 교육을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 평가 설문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컴퓨터 교체이고, 편집 소프트웨어 또한 버전이 오래되어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로 찍은 영상 코덱을 지원하지 않아 편집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 미디어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바뀌어 가는데 센터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 등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영상제작교육 진행 시 화질이 좋은 HD촬영을 선호한다. 그러나 HD를 편집할 수 있는 장비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하여 HD로 촬영하고도

인코딩하여 DV로 편집하는 경우도 있다. 미디어 이용 환경이 변화된 만큼 시민들이 이용하는 미디어센터에서 그에 맞는 장비들이 갖춰줘야 시민들의 이용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센터 설립 4년이 지나면서 장비 및 시설이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관 이후 시설 및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첨단 영상시대에 뒤처지는 상황이다.”

“컴퓨터며 카메라며 새로 사주거나 임대해 주면 좋겠다. 미디어교육 정책 연구,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필요하고, 강사와 선생님 혼자하려니 힘들고 노하우가 공유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미디어 장비의 교체주기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매우 빨라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체가 필요하고 또한 그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예산 지원이지만 캠코더나 컴퓨터, 정품 프로그램 등 미디어교육에 필수적인 장비부터 2~3년 단위로 구매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비 분야의 모든 카메라 군(테이프리스 카메라로 교체 시급), 편집용 컴퓨터 사양 업그레이드 혹은 교체 요망,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 관련 미디어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부족, 프로그램 주기에 맞추어 교체하기 힘들다.”

“지속적인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 및 영상제작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역 미디어센터에 대대적인

최신 기자재 보급, 전국에 산재한 미디어센터에 기본적 교육시스템 및 예산, 기자제 등이 충당되었으면 한다.”

“노후한 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5년 정도마다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을 책정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지속적인 장비 체크를 통한 지원과 관심-적어도 교육에 필요한 장비는 전체 지원 요망(장비에 맞추어 교육 인원을 줄여야 하는 현실)”

“시설 업그레이드 및 장비 구축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미디어 영역의 특성상 미디어 발전에 발맞추어 계속 변화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를 소수의 관심 있는 계층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보급하고 알려주는 것 또한 미디어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새로 등장하는 미디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설보완이 필요한 데 미디어센터가 하는 일에 비해 미디어센터를 관리하는 기관들은 역동적이지 못하여 대부분 시설이 낙후되어있다.”

“최근 들어 각 지자체에서 미디어센터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미디어센터가 지역과 지역민들에게 하는 유용한 역할을 이미 검증되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미디어센터의 설립이 있어야 하고 기존에 있는 미디어센터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과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이 많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 미디어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시급하면서도 공통적인 문제들이 바로 시설 장비의 지속적인 보충과 업데이트와 관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 10년이 넘어가면서 다수의 미디어 센터들이 시설 및 장비 사용 대한 노후문제를 공통의 문제로 들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 센터의 특성상 예견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들 문제에 대한 공통의 해결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센터 내의 시설적 측면과 더불어 더 큰 범주의 미디어센터의 시설적 측면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지역 내 접근성 측면에서의 시설적 측면인데 이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지역 미디어센터들이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에 위치해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간 지역 미디어센터들이 단시간 내 건립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센터 설립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소수이긴 하지만 최초 설립 당시 주변 유사 기관과 지역 조사 등의 부족 등으로 잉여 미디어센터의 설립은 설립 주체의 전시 행정을 보여 준 측면도 적지 않다. 다음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자.

“수강생 부족으로 전문적인 미디어강의 개설이 힘들다. 지역 내 인구가 적고, 타 기관(청소년센터, 도서관, 군청 등)의 정부지원 무료 교육 사업이 많기 때문에 미디어 강의수강 신청 인원이 적은 편이다.”

“지역에 영상 관련 학과가 없고 워낙에 센터가 시내에서 떨어져 있어 강사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기 쉽지 않다.”

“3층에 자리 잡고 있어 장애인들이 방문하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건설될 미디어센터의 경우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근접성과 시설확충이 요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 ⑥ 기타

위의 몇 가지 측면 외에도 몇몇 센터들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장기 프로그램 기획(초급-중급-고급 등의 단계별 강좌)의 어려움과 전문 강사 부족으로 인한 다양화할 수 없는 프로그램 구조, 그리고 교육생들의 변화하는 니즈를 시의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 등이 미디어센터의 현실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생들이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 되면서 드러난 최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타 센터에 비해 교육 후 수강생 자체 동아리 활동 지원이 부족하다.”

“지속적인이고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

“실행한 교육의 성과와 교육의 결과물을 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내 영화제작과정(시나리오) 등 관련 전문가 부족, 서울 경기지역 편중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또는 장기 프로젝트 불가하다.”

“더 세심한 관리와 개발을 통한 다양한 인문학적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센터 이용객이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의 소식지 등)과 각 분야에서 중급 이상의 과정 개설이 어려움이 있다.”

“아무래도 모든 교육 수요를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요가 많고 니즈가 많은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을 해도 그 수요조차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

이다. 한정된 예산, 교육 공간, 장비, 기획인력 등의 문제 등이 있다.”

위 내용을 감안해볼 때 많은 지속 연수가 3년차 이상의 지역 미디어센터의 경우는 지속적인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성과도 조금씩 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미디어센터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한 장기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없어 충원 수요를 충족하는 대상을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일부 미디어센터에서는 교육 수혜 대상자 역시 청소년층으로 국한되거나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 미디어센터는 지역의 미디어교육에 큰 영향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이나 활용도 면에서 좀 더 냉철한 평가를 하자면 개선해야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포진해 있는 상태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 3)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제언

조사결과 미디어센터는 타 사회 미디어교육 기관의 경우보다 비교적 양질의 시설과 인력배치,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명 긍정적으로 비교될 수 있지만 이들 지역 미디어센터가 예산이나 지원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좀 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실제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한 자체 내 평가를 언급해 본다면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도 드러났다.

#### (1) 교육대상의 다양화

조사결과 미디어센터의 교육 대상은 주로 청소년과 성인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센터의 교육이 대부분 영상제작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과도 무관할 수가 없다. 현재 미디어교육의 추세는 전 생애적 미디어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교육

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미디어센터의 교육 대상 또한 차츰 그 대상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요구된다. 물론 현재에도 타 기관과 비교해 교육대상의 다양화가 뒤떨어진 편은 아니지만 좀 더 진일보한 교육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시도되고 있는 유아 미디어교육과 노인미디어교육, 다문화,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대상 확대와 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 (2)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화 된 프로그램 개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은 대부분 미디어 활용교육과 제작교육에 편중돼있는 것이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났다. 사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영상제작 붐은 가장 먼저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미디어 센터의 양적 확장은 전체 미디어교육의 방향 전환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 진행되어온 비판적 미디어 읽기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마치 시대에 뒤쳐진 낡은 교육이고 제작교육이 미디어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제작중심 미디어교육의 열풍이 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작중심의 교육은 기술 중심의 교육으로 지나치게 편중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즉 미디어의 기술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미디어교육의 목표인 듯 교육생들이 기존의 미디어를 그대로 모방하는 차원의 성과물을 양산하는 데 주력하게 된 것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도 일견 설득력이 있지만 미디어센터의 프로그램이 영상제작에 치우쳐 이를 강화시켜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많은 센터들이 방향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전체 미디어교육의 방향성 측면에서 본다면 미디어센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영상에 치우쳐져있고 그 가운데서도 영상제작에 쏠려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미디어와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된다. 따라서 이후부터라도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은 향후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제작과 리터러시 교육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미디어의 다양성과 함께 현재 위축된 리터러시 교육의 확장이 우선적으로 부활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비드 버킹엄(David Buckingham, 2004)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교육의 결과물로서 학습자들이 획득하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읽기와 미디어 텍스트를 제작하는 쓰기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그리고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제작 모두를 목표로 한다.”

또한, 초기 미디어 리터러시가 청소년 보호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에 비해, 이후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의 수용자에게 미치는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바라보는 관점 및 미디어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 등이 설정되는 등 다양한 관점을 포괄할 수 있다(홍유진·김양은, 2013,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의 다양성과 그것을 흡수하는 프로그램의 재배치는 현시점에서 당연히 요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디어교육은 어느 한 범주에서만 진행되는 교육이 아니며 현재 미디어교육의 시기가 전 생애적인 미디어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과 계층, 직업적 정체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미디어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리터러시와 인문학, 매체의 다양성(신문을 활용한 NIE, 매체 비평 등)이 시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더불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있어서도 좀 더 다각적인 모색들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청소년 미디어교육의 경우 학교 교육과 관련해 진로, 진학 교육, 인성교육, 직업교육과 함께 연계해 커리큘럼과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 본다거나, 학교에서 진행하기 힘든 미디어교육의 일부를 미디어센터에서 담당해 보는 등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가 하면 노인 미디어교육의 경우 노인의 미디어 격차를 줄이고 노인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으로 교육의 폭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미디어센터가 자생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합적인 미디어 아카이브와 미디어교육 지원 통합센터 등의 차원에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검증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 (3) 시설의 확충과 보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노후된 시설은 하루빨리 교체되어야 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미디어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시설의 보수와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센터의 시설 보수는 그 특성상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이므로 여기에는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의 구조가 요구되는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인력 측면의 처우 개선과 강사 확충, 자질 강화 문제

미디어센터는 인력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도 지역 미디어센터들의 부족한 전문 강사수급을 위해 자체 내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체 내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형태의 지도자 양성과정을 통해 미디어교육 강사가 양성된다는 점, 또 미디어교육 인력 등의 활용을 위한 공통의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내 자원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미디어센터들이 효율적 인력배치와 함께 직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 더불어 강사들에 대한 검증과 배출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다수의 미디어센터에서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고민인데 여기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 미디어교육을 실제 진행하는 미디어교육 강사의 경우 외부 인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체 교육의 과정을 거쳐 수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 여기에 수반되는 자질 검증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범위의 문제에서 그 교육이 장기간, 검증된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양산된 교육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할 때 여기에 따른 강의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디어 강사를 미디어센터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교육의 질과 교육현장의 다양성이 담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각 센터별로 강사의 의무, 임금 등에 대한 기본 안은 있으나 강사에 대한 처우와 권리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확히 강사의 역할이 미디어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경우도 많았다. 여기에 대해 좀 더 거시적 차원의 고민과 미디어센터의 협의 하에 도출된 일정한 안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미디어 강사들의 지위를 보장과 권리와 의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비슷한 차원의 문제가 센터 내 직원들의 위상과 관련한 문제다. 지역 미디어센터 중 몇몇 센터들은 양질의 인력을 배치하고 공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대부분의 센터들이 직원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센터 직원들의 위상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포진되어 있었다. 인터뷰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직원으로서의 양질의 채우와 안정된 위상이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위상의 안정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미디어 강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 또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안이 병행되어야겠다는 견해다.

#### 4) 미디어센터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 (1) 내실 있는 미디어 아카이브의 구축

미디어센터는 지난 10여 년간 짧은 기간 내 건립되어서 이제는 각 지역별로 미디어센터가 건립되고 있다. 미디어센터의 양적 확대는 긍정적 측면에서 양질의 시설과 인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방향성을 가진다. 하지만 여기에 좀 더 욕심을 낸다면 현재 미디어센터가 가진 몇몇 운영에 있어서는 분명 방향의 전환내지 보충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몇몇 미디어센터 내의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미디어센터가 가진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해볼 때 이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사회적·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은 미디어센터의 실무자들의 평가 내지는 요구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적 차원에서의 미디어센터의 지원과 관련한 몇 가지 해안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미디어교육 결과물들이 상영되고 아카이빙 될 수 있도록 통합 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 결과물 및 교육자료 아카이빙, 교육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확보 필요하다.”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실버미디어교실이나 꿈다락 청소년 미디어교육 등을 매년 정리화시키고, 각 계층별 교육으로 확장시켜 지원 예산을 늘려 주었으면 한다.”

“미디어교육 법제화 시행에 따른 해당 교육 프로그램 미디어센터 전담 또는 배분이 있어야 한다.”

“일관된 교육프로그램 필요, 예를 들어 강사양성과정이라든지 영상 음향 미디어 각 분야의 최적화된 커리큘럼 기준점을 두고 각 지역에 맞게 수정하여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교육실행의 프로그램 기본틀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디어교육 법제화 시행에 따른 해당 교육 프로그램 미디어센터 전담 또는 배분, 사업비 또는 운영비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학교와 연계강화(법제화), 미디어 관련 유관 기관 프로그램 통합 또는 분업 분장, 교재·소프트웨어·장비·시설 등 저렴한 비용으로 공동구매 또는 공유,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 등 종합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 시대를 미디어 시대라고 할 만큼 미디어와 관련한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다. 당연히 이와 맥락을 함께하는 미디어센터의 양적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미디어센터의 양적 확대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디어센터의 역할을 교육의 영역으로 안고 들어오면 경우가 달라진다. 양적 확대와 동시에 미디어센터의 질 높은 역할 또한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 언급된 미디어센터 실무자들의 요구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지원방안일지도 모른다.

체계적인 사회 미디어교육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인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사회 미디어교육으로의 안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비전에 대한 지원정책, 연구 및 다양한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장사례와 결과물에 대한 자료 축적방안, 학교 미디어교육과 사회 미디어교육의 연계방안 및 각각의 영역에 속한 교육 현장과의 연계방안, 그리고 기존에 미디어교육을 지원해온 다양한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과의 연결망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강에스터, 2012).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이를 구축할 만한 포괄적인 단위의 미디어교육 아카이브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아직도 미디어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의 한 부분으로 취급받거나 미디어교육 독자적인 위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미디어교육이 문화예술교육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교육의 특성이나 영역의 다양성으로 보아 미디어교육은 그 자체만으로 한 영역 한 분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지원 방향이 설정되거나 향후 미디어교육의 진행에 있어서의 다양한 시도와 효율적 성장 등도 동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디어교육의 독자성

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분위기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설립 주체(영화진흥위원회,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와 운영주체(각 지역 문화재단,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 등) 그리고 실제 실무를 진행하는 위탁 단체 등 지난 10년간의 운영 구조 등을 진단해 미디어지원법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2) 미디어교육지원법 등의 입법의 필요성과 실천

최근에 발의된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은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관심과 이와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늘상 그러하듯 법안의 발의가 곧 실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난 2007년 유사한 미디어교육진흥법안이 발의된 이후 한동안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최민희 의원(2012년)과 김희정 의원(2013년)의 법안 발의로 미디어교육지원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집중되었다. 실질적이고 높은 차원의 미디어교육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관심이 아니라 법안의 통과와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장 논의하고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그간 수십 년 동안 미디어교육을 행해 온 단체들 간의 위상정리와 함께 표준 커리큘럼의 분석과 정리, 미디어교육사의 교육과 자격 문제 등 그야말로 정리가 필요한 분야가 한 두 분야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미디어교육 지원법안의 통과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법안의 통과는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학교 밖 미디어교육, 즉 사회 미디어교육의 범주는 너무도 넓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사회 미디어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사회 미디어교육 기관 중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그 목적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담당자 대상 심층 설문조사(& 전화, 대면 인터뷰 포함)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최근 진행된 『2012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쟁점』의 후속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미디어센터를 구체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정기적으로 교육성과가 평가되는 대상이고, 대상과 프로그램 및 매체 등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비교 및 분석 등이 가능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에서 출발했다. 또 이 조사에서는 사회 미디어교육 분야에서 공공분야의 지원, 운영주체의 현황을 재 점검해보고 다시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현황들을 분석했다. 결론의 제언에서는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사회 미디어교육 전반의 발전과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사회 미디어교육의 기본 주체 중 하나인 미디어센터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 바와 같이, 30년의 미디어교육 역사 속에서의 10여 년의 역사 속에서의 미디어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해온 미디어센터는 그 중요성과 함께 21세기의 보완되고 창의적인 사회 미디어 교육의 발향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영상제작과 활용 교육에서 탈피해 미디어교육의 기본이 되는 신문교육부터, 그 체계적인 커리큘럼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 등, 각종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미디어 언어, 글쓰기, 인문학, 문법을 가르치는 교육 등의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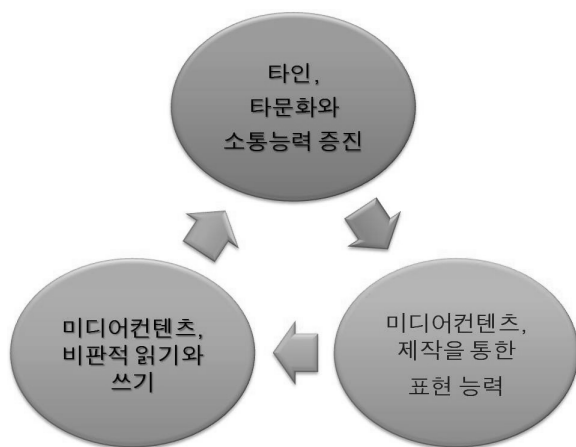
둘째, 학교 밖 미디어교육, 즉 사회 미디어교육은 학교 내 미디어교육과 연계해 소통의 창구가 되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인간의 생애 동안에 이뤄지기에 평생교육과도 연관되어 있다. 또한 미디어교육을 커뮤니케이션 질서 회복의 실천적 대안으로 보는 이유는 미디어교육을 통하여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소외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주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의식배양을 통해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미디어교육의 한 획을 담당하는 미디어센터가 앞으로는 과거로의 회귀보다는 미래 우리나라의 통합된 사회 미디어교육에 대한 연구와 성인과 청소년 등 특정한 계층만이 아닌 유아, 아동에서부터 노인 계층의 미디어교육에서부터 사회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즉 다변화된 교육대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대상자들의 눈높이를 맞춘 한층 더 면밀하고 다양한 맞춤형,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미디어교육의 법제화의 필요성 요구와 범국가적 차원의 미디어교육 통합 지원센터의 설치다. 사회 미디어교육은 타인과 타문화와의 소통능력 증진, 다양한 미디어의 비판적 읽기와 쓰기, 미디어의 주도적인 제작을 통한 표현능력 향상이 함께 어우러진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정책적 차원의 미디어교육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 다양한 학교 밖 교육시설의 확대, 질 높은 교육 강사와 실무진의 보급 등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광범한 범위의 교육, 정책적인 접근은 필수 불가한 당면과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교육 지원법안의 통과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순이기도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할 정책적, 사회적 지원은 일회적이며 단기적인 차원의 지원을 탈피해,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미디어교육 지원의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센터의 아카이브와 함께 범국



〈그림 4-6〉 사회 미디어교육의 이상적인 모델



가적 차원에서의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통합지원 센터의 구축이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통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은 합리적인 사회적 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 개별 사회 미디어교육 단체들이 나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민적 합의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단체들의 지속적이고도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의 모색과 그 모델 구축이 다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05

##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디어교육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의 미디어교육 동향과 정책사례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했다. 미디어교육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기존의 외국 사례들이 시의성이 떨어지고 내용 면에서 표피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하에 각국의 최신 미디어교육 동향과 정책동향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국내 다양한 미디어교육 관계자들이 이론 및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을 학교 미디어교육과 사회 미디어교육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학교 미디어교육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을 분석하여 미디어교육이 공식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봤다. 또 사회 미디어교육 부분에서는 2002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역 단위 미디어센터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

실적인 문제점과 극복방안들을 도출했다.

그러나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에 관한 문제는 이 연구에서 편의상 구분한 ‘학교’와 ‘사회’ 영역을 뛰어 넘거나 이 둘을 아우르는 문제점들도 많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교육은 국가 전략 차원으로 확대, 수립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학교 미디어교육, 사회 미디어교육 외에 미디어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그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 ① 미디어교육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한국의 미디어교육에는 ‘미디어교육이 미디어의 유해한 영향력으로부터 폐해를 방지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고 그러한 인식이 방송통신법 등 관련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디어의 부정적 기능과 폐해 예방에 초점을 둔, 일종의 보호주의적 관점은 텔레비전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강조되어 온 것으로 ‘폭력과 선정성의 주범인 텔레비전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미디어교육의 리터러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보편화되고 전통적인 ‘수용자’의 의미가 ‘적극적인 이용자’ 혹은 ‘생비자(prosumer)’의 의미로 바뀌어 가고 있는 만큼 미디어교육의 개념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 확장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기술능력이나 제작 경험을 미디어교육의 주요 요소로 보는 시각 또한 바뀔 필요가 있다. 학교 미디어교육이나 사회 미디어교육의 현장에서 미디어 활용기술이나 제작 체험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미디어교육이 다양한 기관 단체를 통해 실시되고 있지만 교육내용이나 장르가 편중, 중복되고 있는 현상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술을 익히고 제작 메커니즘을 체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관련 기술이나 제작 체험에 정도될 경우 미디어의 화려한 기술과 서비스를 수용하는 데 급급한 미디어 소비자로 전락할 수 있다.

기술 습득이나 제작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미디어교육의 개념은 누가, 어떻게, 왜 정보를 생산하며 그 정보는 믿을 만한 것인가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는 세상을 어떻게 재현하며 어떤 의미를 창출하는지 등에 관한 성찰적 인식과 행동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안정임, 2010). 즉 미디어의 정보를 이용하고 평가하고 또 자신이 메시지를 유통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를 자신의 의견 제시와 참여, 그리고 권한 부여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미디어교육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

미디어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은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디어교육의 개념은 학교 미디어교육이나 사회 미디어교육의 내용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정립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의 개념적 틀은, 교사와 학생들 모두 그들이 수행할 수업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평가를 위한 합의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하다. 또 미디어교육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의미와 실천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유럽시청자 권익위원회가 오랜 기간 공들여 미디어교육의 재개념화를 추진한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과거 산만한 형태로 때론 상반된 시각까지 존재했던 미디어교육에 대한 개념화가 최근 들어 수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의 경우 오랜 연구와 토론을 거쳐 미디어교육을 ‘정보 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미디어가 제시하는 메시지를 해석, 분석, 처리하고 흡수해서 맥락화할 수 있는 능력’(EAVI, 2009)으로

정의했는가 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미디어교육 전문가인 르니 홉스 교수는 미디어교육을 ‘미디어가 편재되어 있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는 현재의 미디어 이용환경에서 사회적 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생활능력’으로 전제하고 접근, 분석 및 평가, 창조, 성찰, 행동 등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② 미디어교육의 지속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론 축적 및 연구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미디어교육 영역은 다양한 학문 분야가 결합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로서 지속적인 이론 구축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 같은 연구기반이나 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국내에서 미디어교육이 시행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미디어교육은 ‘교육’적 맥락보다는 언론 수용자 운동이라는 일종의 ‘운동’ 차원의 경험과 역사가 축적되어 왔다. 이런 특성 때문에 미디어교육에 관한 논의나 실행이 현장 실천가나 사회운동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전문적인 연구나 이론 축적은 도외시되었다. 그 결과 미디어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인식이나 안목을 가질 기회가 없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왔다. 또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가까이 시행을 해왔음에도 공교육의 언저리만 맴돌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 미디어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 미디어교육의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가 지역민의 참여인데,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고 매년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에 관한 기초 데이터마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변한 교재 자원이나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대학이나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 개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한 대학들이 많은데 이들은 지속적인 이론 축적 외에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학교 교사와 미디어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 개설 그리고 학부와 학생이 공동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이 예비교사들을 위해 학제 간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도 한다.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의 지속 발전을 위한 이론 축적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기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또한 미디어 교육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나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요한 축인 만큼 연구와 교사 양성과정을 연계할 경우 미디어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다 공식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경우 외국과 달리 미디어교육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특화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연구 개발활동의 영역으로서 미디어교육의 가치와 잠재력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기초 연구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의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대학에 관련 자원 및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③ 국내 미디어교육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행정부처와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미디어교육의 가치와 잠재력에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를 포함, 미디어교육을 실행하는 기관 및 단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3년 기준으로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관할하는 곳만 해도

20 여개에 달하고 여기에 시민미디어센터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미디어교육 사업을 포함, 50여 개 이상의 미디어센터에서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각 기관 및 단체들이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자원에 의존한 채, 각각 분리된 형태로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 콘텐츠, 인적 자원 등 미디어교육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 온 셈이다. 과거 미디어교육지원법 발의 등 적극적인 법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발전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 콘텐츠, 인력 등 미디어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시너지 효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사 및 학생, 미디어사 및 미디어종사자, 관련 학계(교육학계 및 언론학계), 관련 시민단체와 기관, 정책당국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미디어교육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가장 성공적인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로 알려진 핀란드의 경우 그 성공의 이면에는 정부 부처와 관련 NGO 단체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알려진 미디어머핀의 경우, 행정부처인 교육문화부와 보건복지부 외에 신문협회, 방송협회를 포함, 거의 20개에 달하는 기관 및 단체들의 협약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학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르니 홉스 교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10개 액션 플랜을 제안하면서 미디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지역, 주, 연방 단위의 교육관계 부처, 공공도서관 관계자, 지역시민단체 리더, 미디어

및 IT 분야 리더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 공동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정책 역시 미디어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전략을 자금 지원과 서로 다른 배경으로부터 이익의 결합이라고 인식하고, ‘관련 정부부처, 지방 및 지역 당국, 미디어 산업, 유럽 자금과 개인의 동기(교사, 학습자, 전문가, 연구원 및 조력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벨기에 역시 1995년, 미디어교육의 전략적 실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계, 학계, 각계 미디어교육 전문가, 행정기관 등의 대표로 구성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미디어교육 정보센터로서의 위상과 함께 큰 틀의 미디어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각 참여자(기관)들 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일을 주임무로 하면서 벨기에 미디어교육의 중장기 전략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④ 가칭 미디어교육위원회와 함께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정보자원 아카이브 혹은 정보자원집적센터가 필요하다.

한국의 미디어교육은 그 출발점과 주도층이 다양하다. 이를테면 수용자 운동 차원에서 출발한 미디어교육 전문가, 방과 후 강사에서 출발한 전문가,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학계 전문가 등등이다. 그러나 이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과 노하우가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개별화된 채, 공유·확산되지 못하고 있어서 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교육은 그 특성상 ‘미디어’와 ‘교육’ 분야가 결합되어 있고 학문적인 전공영역으로는 ‘언론학이나 미디어 관련 학과’ 그리고 ‘교육공학’으로 나누어진다. 이 두 영역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전공영역상의 구분 때문에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나 실행 역시 분리된 채로 수행되



어 왔다. 외국의 경우 미디어교육은 언론학과 교육공학을 넘어 통합 인문학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는 비단 학문 영역뿐만 아니라 미디어교육의 주체, 주관기관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와 함께 미디어교육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집적, 공유할 수 있는 정보자원집적센터가 필요하다. 이 센터에서 하는 주 임무는 교재나 프로그램 같은 지적 자원 외에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미디어교육에 관한 새로운 정보나 뉴스, 동향 등을 소개하는 것이다.

최근 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하나의 추이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자국 내는 물론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테면 유럽의 경우 유럽위원회와 유네스코의 지원 하에 22개 유럽 국가의 미디어교육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멘토 프로젝트, 평생교육 중심의 유럽 미디어리터러시 네트워크인 유러메дук(EuroMeduc), 인터넷 미디어에 특화된 백투스쿨프로젝트(back2 school project)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 산하 교육정보연계센터는 자국 내 정보자원 집적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과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미디어교육 관련 정보 및 자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차원의 미디어교육 네트워크화는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라는 실질적 목표 외에 정책 입안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홍보효과를 고양시키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⑤ 미디어교육의 대상을 학생이나 청소년을 넘어 유아 및 일반 성인에까지 확대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미디어교육은 그 대상이 학생이나 청소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고 실제로 자원이나 프로그램이 이들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의 의미도 크다. 우선 학생이나 청소년들은 미디어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데 반해 그것을 소화하고 수용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또 미디어는 교수학습 자원으로서의 의미가 크고 특히 최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진로교육이 강조되면서 신문 등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 현장은 그것을 구현할 만한 인프라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대리 경험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다양한 배경으로 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은 차츰 늘어나고 있으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인들은 미디어의 정보를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원적이고 세부적인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서 성인이라고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성인들의 미디어에 대한 접근 환경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미디어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미디어 환경 자체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에 대한 요구도 그 속도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도 이에 상응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인들이 미디어에 대한 무지는 단순한 기술 습득의 문제를 넘어 오늘날의 시민으로서 사회적 참여를 제약할 수 있고 나아가 디지털 미디어 격차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소통방식의 변화로 인간관계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미디어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서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의 대상을 일반 성인에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평생교육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수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실행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평생 교육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유럽의 미디어교육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위원회 역시 유럽 시민들이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 향상과 함께 비판적 이해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구현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시스템의 정규 커리큘럼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벤트성 수시교육이다. 현실적으로 일반 성인들에게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기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다.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시간을 할애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홉스 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단기간의 이벤트 혹은 1회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영국에서 처음 시작해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고 있는 실버 서퍼스 데이(Silver Suffers Day)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행사는 지역 단위의 도서관을 활용, 디지털에 무지하거나 자신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하루 동안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이용에 관한 교육과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⑥ 미디어의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교육의 영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교육의 영역은 미디어교육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미디어교육의 개념이 수렴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미디어교육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디어교육에서 제작실습이나 영상미디어 중심이라는 영역상의 편중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ICT 보급에 힘입어 학생들의 미디어 체험이나 제작활동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지나치게 편중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미디어교육은 종종 교육미디어, 즉 교육적 목적으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과 혼동되기도 한다. 특히 미디어교육은 제작이나 체험 중심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이런 인식은 비단 영상미디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에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미디어 제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접 미디어 종사자가 되어 보는 경험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영역들은 미디어교육의 한 영역일 뿐 전체가 아니다. 학생들 스스로 제작 활동에 대한 동기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작 그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특히 ICT 교육의 확산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순수한 ‘기술적’ 측면의 제작을 강조한 나머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의 학습을 간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와 함께 미디어교육이 영상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신문 등과 같은 인쇄미디어는 배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전반적인 신문 구독률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신문은 그 자체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비판적이고 맥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교수학습 자원이다. 유럽의 미디어교육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시청각권익위원회가 신문을 미디어교육의 주요 범주로 설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디어교육의 영역과 장르는 미디어교육 개념 정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미디어교육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미디어교육의 영역, 장르, 내용 등을 다변화해야 한다.

⑦ 미디어리터러시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 방송사 등 미디어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미디어교육에 대한 정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미디어교육은 기

본적으로 미디어에서 생산, 유포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 콘텐츠는 교수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디어교육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 유포하는 당사자 격인 미디어사나 관련 종사자들이 배제되어 왔다. 이는 미디어교육을 실천하는 교육 현장이나 논의과정에서 일관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종사자가 참여한 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기자나 PD 등과 미디어 종사자들은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생산, 유통시키는 사람들로서 미디어교육을 하는데 유효한 교수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활용률 대단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 미디어교육을 추진하는 강사 구성 분포를 보면 ‘외부 전문 강사’가 33건(36.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기관 내 담당자’가 28건(30.8%)이었고, ‘외부 활동가’가 16건(17.6%), ‘학계 전문가’가 10건(11.0%), 기타가 4건(4.4%)이었을 뿐 미디어 업계 종사자는 극히 드문 형편이다.

이에 반해 외국의 경우 미디어교육에 대한 논의과정은 물론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미디어사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유럽위원회 경우 멘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산시키는 주요 전략의 하나로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에서 일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행사나 활동을 조직화하고 전국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미디어 기업과 관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미디어사가 자발적으로 나서 미디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미국 뉴욕 타임스의 경우 자체 개발한 ‘뉴욕 타임스 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3,000개 이상의 학습 플랜과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들이 쉽고 의미 있게 미디어에 나오는 사건을 수시로 교실 토픽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그 뉴스에 대해 멘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레드 라쏘(Red Lasso;

www.redlasso.com)와 같은 비디오 뉴스몰 서비스는 사람들이 로컬 TV 뉴스 콘텐츠(150개 이상)를 선택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발췌 요약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스 트러스트는 다른 사람들이 인쇄신문의 정보 콘텐츠들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뉴스평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뉴스미디어사도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뉴스 미디어의 자체 자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미디어사의 적극적인 참여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온라인 뉴스자원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뉴스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줄 것이다.

⑧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공식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은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며 조직하는가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교육과정의 개발은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의 체계,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잘 조직화하여 교육과정에 담아내기만 한다면 교과서 집필은 훨씬 수월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은 산만하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미디어교육 요소나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체계성, 일관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내용도 표피적으로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011년에 개정되고 2014학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각

교과별로 미디어와 관련된 요소들을 강화했지만 미디어교육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쓰여진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UCC를 만들어보자’라고만 할 뿐 UCC의 의미와 특징, 만드는 방법과 공유하는 방법, 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등이 그 예다. 이런 사례들은 현재의 교과체계로는 실효성 있는 미디어교육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단순한 소비를 넘어 새로운 메시지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복합적인 능력에는 언어, 그래픽 디자인, 이미지, 음성 등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구성하는 능력이 포함되고 또 이러한 스킬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능력들은 공식적인 교육환경, 특히 유치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과정에서 다루어 져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산만하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재집필과 미디어 교육이 체계화되고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해 주는 표준 교육과정을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미디어교육관련 내용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이에 따른 교과서 집필이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미디어교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독립교과로서의 미디어교육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데는 많은 논란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이미 이를 실행하고 있고 유럽을 위시한 많은 나라에서 제1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목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형태로 재구성하거나 또한

특정과목과의 통합형태로 보완될 수는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국어나 사회 등 관련 교과목에 내에 미디어 부분을 다룰 때 표준 커리큘럼의 교육내용 중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과목의 교과과정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다.

표준 교과과정 개발에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미디어교육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미디어교육의 중심이 독립교과로서의 미디어교육인지, 기존교과목과 연계된 미디어교육인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의 미디어교육인지를 감안해서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되 지금 가장 필요하고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커리큘럼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보다 큰 뼈대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용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설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⑨ 미디어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미디어교육의 특성상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교육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육 관련 전공 외에 신문, 방송, 영화에서 광고, 인터넷,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디어 영역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사회의 관계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디어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직과정에 준하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체계에서 미디어교육학은 교직과정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미디어교육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진 교사들은 많지만 이런 상황에서 배경에서 교사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교사 네트워크



를 통한 일종의 스터디 모임 등에 한정된다. 예컨대 ‘깨미둥’이나 국어교사 모임에서 하고 있는 ‘매체연구부’ 활동 등이 그 예다. 또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단기 형태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참여할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원으로서 미디어교육의 가치와 잠재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교육 현장에 편입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교육 전문 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또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국가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대학의 관련 학과에 ‘미디어교육학’ 교직 과목을 설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사범대 교육학과에 미디어교육학 교직과정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필수 이수과목으로 교직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미디어 관련 과목을 부수로 배치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교직관련 과목 40학점에 미디어 관련 과목 20학점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학의 미디어 관련 학과에 ‘미디어교육학’ 교직과정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디어관련 과목 40학점에 교직관련 과목 20학점 등의 배분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미디어교육학 교직과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이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과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즉 미디어교육이 정규 교육과정 속에 편입되고 학교현장에서 교사 수급의 요구가 확대되고 실제 수업과정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며 그 이후 교원 자격 검정 표시과목으로 제정된다면 사범대학 내 미디어교육과를 단독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는 독일에서 찾을 수 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과정에 미디어교육을 공식화한 독일의 노드라인-베스트 팔렌 주는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사범대학에서 미디어교육 전문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했다. 즉 사범대학에 미디어교육학 과정을 이수한 후에 국가 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미디어교육 교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게 했다. 국내의 경우 연극영화학 교직과정이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대학원이나 미디어 관련 대학원에 연계전공 과정을 설치하고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 특별과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이다.

현 상황에서 중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사범대학을 졸업해서 2급 정교사 자격 등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이나 미디어 관련 대학원에 미디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아직 없지만 외국의 유사 사례가 있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정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야 하며 대학원 과정에서 미디어학과 교습학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에서 미디어교육 혹은 미디어 연구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학 분야의 자격증이나 미디어 분야의 석사 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초중고 교사들의 약 69%가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연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런 요구를 충족할 만한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시도 교육청 연수원의 직무연수과목으로 설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 횟수도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학교 교사 대상 미디어교육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디어교육 연수는 1회성 연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수연수가 되어야 하며 수준별, 학교급별로 세분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시간의 연수를 이수하고 소정의 평가를 통해 교수능력이 검증된 교사에 대해서는 미디어교

육 교사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연수 교육과정도 미디어교육의 실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 전문가, 사서 및 미디어 교육자, 교육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그리고 커뮤니티 파트너 그리고 미디어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⑩ 범국가적 차원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계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홍보성 이벤트가 필요하다.

미디어교육은 그 가치와 잠재력 그리고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실행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다. 따라서 그 가치와 효과를 전국적으로 알려 줄 수 있는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미디어교육 교사 콘테스트와 컨퍼런스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사는 미디어 교육 관련 교사들에게 미디어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와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각계 즉, 교육계와 학계, 언론계, 관계 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 학부모, 기업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미디어교육의 가시적 효과를 보여 주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의 르니 홉스 교수는 미디어교육의 가시성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신문 및 방송사의 대대적인 보를 전제로 전국단위의 교사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백악관의 로즈 가든에서 그 시상식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행사와 함께 청소년과 학생 그리고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의 행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칠레에서는 뉴스에 대한 이해와 읽기를 진흥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2009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뉴스 올림피아드’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신문협회는 이 아이디어를 원용해 2011년부터 전 세계 신문사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이드림 인터뷰 페스티벌(My Dream Interview Festival)’을 개최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참조하여 가칭 ‘미디어

리터러시 올림피아드'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⑪ 학교 외 영역에서 미디어교육을 강의하는 강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성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양성에서 재교육 그리고 사후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 사회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강사들의 경우 각 단체별로 미디어교육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그 밖의 미디어센터 및 기관 등에서 미디어교육 활동가를 양성하거나 재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시민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미디어교육 교사 혹은 활동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미디어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시민 사회 영역의 미디어교육 활동가들의 경력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시민 사회 영역의 미디어교육 강사들은 오늘날 한국의 미디어교육을 이끌어 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문 강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나 조직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미루어 본다면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들의 보수교육,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지만, 사회 미디어교육이 단위 교육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통합적인 차원의 보수교육제공, 전문성 강화 교육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범주에서 다양한 인력풀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미디어교육은 교육내용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하지만 뒤집어보면 미디어교육의 목표와 진행과정, 사후 관리

에 있어서 체계성과 구조적인 틀이 미흡하다는 의미다.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들의 호칭만 보더라도 교육기관에 따라서 미디어교육 강사, 미디어교육사, 미디어강사,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 등으로 각각의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커리큘럼 또한 교육기관의 정체성에 따라서 혹은 강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시의성을 가지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현실은 사회미디어교육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체성과 방향성이 측면에서도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양태로 드러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이 좀 더 큰 범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미디어교육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 분야 또한 재정비의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처럼 공식적인 검증절차와 사후 교육이 미흡한 상태의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들의 난립은 전체 사회 미디어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자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언하자면 사회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들의 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적,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재의 산발적이고 단기적인 강사의 배출과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고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향후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들은 국가적 차원의 일정한 자격을 검증받은 후에 미디어교육사(혹은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라는 호칭으로 활동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통합 검증 매뉴얼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이 매뉴얼에는 미디어교육 강사들의 자격이 수준별, 층위별로 분류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자격 요건의 잣대 등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발적인 사회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들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즉 이들 강사들이 질 높은 자질을 갖춘 전문가로서 관리될 수 있는 공적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검증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사회 미디어교육의 구조적 체계화와 안정적 교육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미디어교육사 배출과 관련한 제도의 정비가 요

구된다. 물론 현재 각 단위 교육기관별로 시행되는 관련 제도들을 일시에 수정되기는 어려우므로 좀 더 효과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각 미디어교육기관에서 부여되는 자체적인 자격조건이나 수료증, 자격증 제도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향후 점차적으로 제도를 강화해서 학교나 기타 공공적인 기관에서 활동할 미디어교육 강사들은 국가 주도의 통합센터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간 자격의 수료증과 자격증은 현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국가 공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통합적인 미디어교육 총괄센터에서 그 자격을 부여하며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수정 보완만이 현재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중구난방식의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들의 배출, 보수교육, 사후 관리 등의 문제점들이 순차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디어교육은 국가 전략 차원으로 확대, 수립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학교 미디어교육, 사회 미디어교육 외에 미디어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그 정책적 대안들을 시안 형태로 제시해 보았다.

미디어교육에 관한 문제와 정책 대안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제시했지만 이 주제들 간의 연관성과 문제의 복합성 때문에 문제를 단선적으로 인식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각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미흡했다. 그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족하지만 여기에 제시된 시안을 바탕으로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기관 단체와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미디어교육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에스터(2012). 시민사회와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지원법 분석 및 제언  
- 시민사회영역을 중심으로.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속토론회:  
1차 토론회 자료집. 2012년 9월 20일. 10~11.
- 강진숙(2007). 미디어 능력에서 '디지털 능력'으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능력 축진을 위  
한 미디어교육 방법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53호, 5~31.
- 권주만(2007). 『청소년의 미디어 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기태(2007). 한국 미디어교육의 성격분석 및 논의.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37호,  
139~168.
- 김소영 외(2004). 『공교육으로서의 영상미디어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과정 연구』. 한국  
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아미(2008).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재개념화.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융  
합미디어서비스의 확산과 사회 변화: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와 이용자'. 7~19.
- 김아미(2009). 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동향. 『미디어교육연  
구』, 창간호, 한국전파진흥원.
- 김양은(2009).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은규(2012). 지역사회 초·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미디어교육 실천방안  
연구- 방과 후 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강사들의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A  
study for media education practice plan through after-school program in  
Local society). 『언론과학연구』, 12권 2호, 20~40.
- 김택환 외(2000). 『세계 미디어교육 모델(2000)』. 한국언론재단.
- 데이비드 버킹엄(2004). 『미디어교육』. JNBook.
- 문혜성(2004). 『미디어교육학』.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박인기(2003). 미디어 현상의 교육적 수용과 교육과정론적 의의.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  
육 연구회 발제 자료.
- 박은희(2006). 융합 환경에서의 수용자 복지 정책 유형과 추진과제. 『방송연구』, 63호,  
85~110.
- 박지선(2004). 이중적 시도: 프랑스의 미디어교육. 김영순 외(2004). 『미디어교육과 사  
람』. 연극과 인간.

- 박지선(2013). 유럽 미디어교육 동향과 사례.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구축』.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진우·황치성 외(2012).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쟁점』. 한국언론진흥재단.
- 소경희(2004). 7차 교육과정에서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방안. 『교육교과연구』 제25권 제1호, 59~82.
- 안정임 외(2009). 『미디어교육 효과측정 모델: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개발』. 한국언론재단.
- 안정임(2002).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리터러시: 의미와 연구방향 모색. 『교육정보방송연구』, 8권 3호, 5~24.
- 안정임(2006).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자 복지 정책적 함의. 『한국언론정보학보』, 36호, 78~108.
- 안정임·전경란(1999). 『미디어교육의 이해』. 서울: 한나래.
- 안정임(2010).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에서 본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의 핵심이슈. 『여성연구논총』 제25집, 91~112.
- 양철진(2004). 한국과 호주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교육연구』, 10권 1호.
- 여은주(2000).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 문헌 고찰과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정훈(2008). 미완의 미디어교육진흥법.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49호.
- 은혜정 외(2001). 『해외 우수 프로그램 비교 연구-미디어교육』. 한국방송진흥원.
- 이미나(2009). 미디어 리터러시로서의 미디어교육 수업사례 제언 Articles : A Study on Lesson Model for Media Education as Media Literacy. 『시민교육연구』, 제41권 제3호, 139~181.
- 이수광·정민승·서길원(2010). 미래형 학교교육 운영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 이정춘(2004). 『미디어교육론』. 집문당.
- 전혜인(2010). 『미디어교육 교사양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미디어교육 교사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현선(2007). 『미디어교육과 비판적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현선·심상민·박수경(2005). 『학교로 간 미디어』. 다할미디어
- 정희경(2005). 『영국에서의 초·중등학교 미디어교육 교과과정 연구』.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 미디어교육 컨퍼런스(2005-1차).
- 조연하·배진아·이영주(2007). 시청자 운동에 대한 단체 활동가 인식과 단체활동의 관련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201~228.
- 한국언론진흥재단(2007). 미디어교육 국제심포지엄 발제 논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2012b).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2005). 제2차 미디어교육 컨퍼런스 발제 자료.
-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2012). 시민사회와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법제 방향에 관



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 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2012년 9월 20일.

홍교훈(2012).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속토론회: 1차 토론회 자료집, 시민 사회와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지원법 분석 및 제언- 공공영역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의 법제 방안 2012년 9월 20일, 26~27.

홍유진 · 김양은(2013).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국내외 동향 및 정책방향. 『KOCCA포커스』, 2013-0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황치성 · 정완규(2012). 『신문 NIE 활성화방안』. 한국언론진흥재단.

Becker, S. et al, (2010). Oppurnity for all: How the American Public benefits from Internet access at U.S. libraries. Retrieved from the U. S. Impact Studies website:  
[http://impact.ischool.washington.edu/documents/OPP4ALL\\_FinalReport.pdf](http://impact.ischool.washington.edu/documents/OPP4ALL_FinalReport.pdf)

CLEMI(2003). Lecture des programmes scolaires sous l'angle de l'éducation aux médias(école primaire, collège, lysées techniques et d'enseignement général), CLEMI.

Correa, T. (2010). The participation divide among "Online experts": Experience, skills and psychological factors a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web content cre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6(1), 71~92.

EAVI(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2009). Study on assessment criteria for media literacy levels. Available:  
<http://www.eavi.eu/joomla/what-we-do/researchpublications/70-study-on-assessment-levels-of-ml-in-europe>

ENPA(2012). *Annual Report 2012*. The Voice of Newspapers and News Media in Europe, ENPA.

European Commission(2007). *Study on the current trends and approaches to media literacy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Ferrés, J. (Ed.)(2006). *Com veure la televisió*. Barcelona: Consell de l'Audiovisual de Catalunya, Ferrés, J. (Ed.) (2006). *Com veure la televisió*. Barcelona: Consell del'Audiovisual de Catalunya.

Finnish Society on Media Education(2012). Finnish Media Education Politics : Approaches in culture and education, Finnish Society on Media Education.  
<http://www.mediakasvatus.fi/publications/mediaeducationpolicies.pdf>

- Fraser, Matthew and Dutta, Soumitra, (2009). *Throwing Sheep in the Boardroom: How Online Social Networking Will Transform Your Life, Work and World*. WILEY. (SNS 리터러시에서 인용)
- Francine Cunningham(2011). 50 Ideas for the future of newspapers, ENPA. Government Policy Programmes, Ministry of Justice, Finland(2009). [www.om.fi/en/Etusivu/Ajankohtaista/Arkistoiddutsisallor](http://www.om.fi/en/Etusivu/Ajankohtaista/Arkistoiddutsisallor). (24-9-08)
- Hargittai, E. & Hinnant, A. (2008). Digital inequality. *Communication Research*, 35(5), 602 ~ 621.
- Hargittai, E. & Shafer, S. (2006). Differences in actual and perceived online skills: The role of gender. *Social Science Quarterly*, 87(2), 432 ~ 448.
- Hargittai, E. & Walejko, G. (2008). The participation divide: Content creation and sharing in the digital age. *Information Communication Society*, 11(2), 239 ~ 256.
- Hobbs, R. (2010). Digital and media literacy: A plan of action, A white paper on the digital and media literacy recommendations of the knight commission on the information needs of communities in a democracy.
- Hobbs, R Jaszi, P, & Aufderheide, P(2009). How Media literacy educators reclaimed copyright and fair use. *International Journal of Learning and Media*, 1(3), 33 ~ 48
- Jenkins, H., Clinton, K., Purushotma, R., Robison, A. J., & Weigel, M. (2006).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Media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The MacArthur Foundation.
- Kotilainen, S. (2005). Learning Together; Developing Civic Webs as an Innovatio Experiment. in Kasvio, A. & Anttiroiko, A. V. (Eds), *e-city. Analysing Efforts to Generate Local Dynamism in the City of Tampere* (pp. 449 ~ 474). Tampere; Tampere University.
- Kotilainen, S. & Rantala, L. (2008). Nuorten Kansalaisidentiteetit ja mediakasvatuc. Helsinki: Nuorisotutkimusverkosto/Finnish Youth Research Network. (In Finnish).
- Kotilainen, S. & Rantala, L. (2009). From Seekers To Activists: Youth Civic Identities In Relations to Media,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 Kupiainen, R.; Sintonen, S& Suoranta, J. (2008). Decades of Finnish Media Education. Helsinki: Finnish Society on Media Education & Tampere University Center for Mediacation ([www.nordicom.gu.se/cl/publletter.php](http://www.nordicom.gu.se/cl/publletter.php))

- Koutropoulos, A. (2011). Digital natives: Ten years after, *Journal of Online Learning and Teaching*, 7(4), 525 ~ 538.
- Livingstone, S. (2004). Media literacy and the challenge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Communication Review*, 7(1), 3 ~ 14.
- Livingstone, S. & Brake, D. (2009). On the rapid ri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New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 *Children and Society*, 24(1), 75 ~ 83.
- Livingstone, S. & Helsper, E. (2007). Gradations in digital inclusion: Children, young people and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 Society*. 9(4), 671 ~ 696.
- Min, S. J. (2010). From the digital divide to the democratic divide: Internet skills, political interest, and the second-level digital divide in political internet us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olitics*, 7(1), 22 ~ 35.
- Potter, W. J. (2010). The state of media literacy.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ic Media*, 54(4), 675 ~ 696.
- Potter, W. J. (2011). *Media Literacy*. 5th edition. New York and London: Sage.
- Len Masterman (1985). *Teaching the Media*. London, New York; Comeda.
- Laurence Corroy (2012). Intervention Assises du journalisme, Table ronde sur l'éducation aux médias.
- Ministry of Education (2008). Media Education: Measures of the Government. A presentation in the Cooperative Seminar (Finland, Germany, Estonia), titled 'Effective Youth Work and Media Protection Needs for Media Literacy' Helsinki, 1-4, September 2008.
- Ofcom (2009). Ofcom Media Literacy Bulletin Issue 24, Ofcom.
- Suoranta, J. & Vaden, T. (2008). Wikiworld. Political Economy of Digital Literacy, and Promise of Participatory Media. University of Tampere: Paulo Freire Research Center & Open Source Research Group. (<http://wikiworld.wordpress.com>) (19-09-08)
- Winsten, J. (2009, December 28). *The designated driver campaign: Why it worked*. Retrieved from [http://www.huffingtonpost.com/jay-winsten/designated-driver-campaign\\_b\\_405249.html](http://www.huffingtonpost.com/jay-winsten/designated-driver-campaign_b_405249.html)

AQA : <http://www.aqa.org.uk>

BFI : <http://www.bfi.org.uk>

CLEMI : <http://www.cleml.org>  
 CLM : <http://www.medialit.org>  
 CNDP : <http://www.cndp.fr>  
 CNED : <http://www.cned.fr>  
 Clarembaux Michel , Le Centre Audiovisuel de la Ville de Liège :  
     <http://www.csem.cfwb.be/>  
 CLEMI : <http://www.cleml.org>  
 CSEM : <http://www.csem.cfwb.be/>  
 ECM : <http://www.ecm.culture.gouv.fr>  
 Digital News Collage <http://www.digitalenieuwscollage.nl>  
 Educasource : <http://www.educasource.education.fr>  
 Educlic : <http://www.educlic.fr>  
 Eduscol : <http://eduscol.education.fr/>  
 English and Media Centre(EMC) : <http://www.englishandmedia.co.uk/>  
 ENPA : [http://www.enpa.be/en/Home\\_1.aspx](http://www.enpa.be/en/Home_1.aspx)  
 Esen : <http://www.esen.education.fr/fr>  
 EU Kids Online : <http://www.lse.ac.uk/collections/EUKidsOnline>  
     [http://hoosierpreventionpoint.ning.com/group/publicpolicy/forum/](http://hoosierpreventionpoint.ning.com/group/publicpolicy/forum/topics/indiana-needs-a-media-literacy)  
     [topics/indiana-needs-a-media-literacy](http://hoosierpreventionpoint.ning.com/group/publicpolicy/forum/topics/indiana-needs-a-media-literacy) 참조.  
 Krantenmaker : <http://www.newspapermaker.be>  
 MediaEd : <http://www.mediaed.org.uk>  
 Media Education Wales : <http://www.mairtom.demon.co.uk>  
 Mentor : <http://www.mediamentor.org/>  
 Ministère de l'éducation : <http://www.education.gouv.fr>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http://www.culture.gouv.fr/>  
 OCR : <http://www.ocr.org.uk/>  
 Ofcom : <http://www.ofcom.org.uk>  
 Onisep : <http://www.onisep.fr/>  
 ORME : <http://www.orme-multimedia.org>  
 Stafford, Roy, UK : <http://www.mediaed.org.uk>  
 WJEC : <http://www.wjec.co.uk/>  
 Youth Cable Television : <http://www.yctv.ort.org>  
 Zeitung in der Schule : <http://www.zis.at>

## 부록

### 1. 미디어교육지원법(최민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2. 8. 3.

발의자: 최민희·전정희·윤후덕·이상민·배기운·박홍근·윤호중·배재정·강동원·  
김현미·민홍철·김경협·홍중학·김윤덕·박원석·김관영·유대운·최동익·황주홍·  
김동철·한명숙·정청래·김재운·박남춘·남인순·유승희·김상희·도종환·유기홍·  
홍의락의원(30인)

#### 제안 이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기능뿐만 아니라, 오락매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일상생활에 있어 미디어를 떼놓을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막대함.

또한 기술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고 갖가지 부작용의 사례가 속출하는 등 국민에게 미디어 전반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미 학계나 교육현장,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천들이 확산되었으나 이를 제도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에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려고 함.

#### 주요 내용

- 가.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미디어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교육”이라 하고 이를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으로 구분함(안 제2조).
- 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학교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 교과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창의적재량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미디어교육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질 높은 사회미디어교육을 위하여 미디어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미디어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사.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미디어교육지원협의회를 설치함(안 제11조).
- 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미디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미디어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4조).
- 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사의 양성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시설, 교육단체,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미디어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차. 교육시설과 교육단체에 미디어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차.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디어교육사로 하여금 학교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 활용능력과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소통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방송·통신·신문·잡지·출판·영화·광고·인터넷 등 대중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행위 또는 그 내용 전반을 말한다.
2. “미디어교육”이라 함은 미디어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미디어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행하여지는 미디어교육

나. 사회미디어교육: 학교미디어교육을 제외한 미디어교육

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미디어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의 영상미디어센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미디어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미디어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실시하거나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미디어교육사”란 미디어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① 미디어교육은 국민이 미디어의 기능과 효과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미디어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교육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제6조(미디어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교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교육의 기본방향

2.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3. 교원에 대한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미디어교육사의 배치 및 처우

5. 학교미디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7.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과의 연계

8. 그 밖에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의 미디어교육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미디어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및 예산의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

① 학교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 교과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할 교과와 반영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1항에 따라 미디어교육을 반영한 교과 외의 교과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창의적재량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시·도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학교미디어교육을 실시할 때 제14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⑤ 관할 시·도 교육청은 제3항에 따른 학교미디어교육의 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종합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도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시·도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에 대한 미디어교육 연수

2. 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

3. 학교미디어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축제·발표회 등 학교 내 활동 및 행사

제8조(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시설·교육단체의 설립·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미디어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연구·교육활동 및 시설·장비
  2. 사회미디어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축제·발표회 등 활동 및 행사
-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사회미디어교육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 ④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사회미디어교육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 ⑤ 교육단체는 사회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연구·학습·활동 및 행사에 관련된 경우 교육시설의 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의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미디어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미디어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 제9조(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 ①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업무로 행한다.
  1. 미디어교육 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 미디어교육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미디어교육 교과과정에 관한 자문
  4. 미디어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미디어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심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미디어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교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학부모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미디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6. 그 밖에 미디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가 호선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합의하여 임명하되, 부위원장은 학교미디어교육 관련 위원과 사회미디어교육 관련 위원 가운데 각각 1명을 임명한다.
- ④ 위원회에는 학교미디어교육소위원회와 사회미디어교육소위원회를 두고 2명의 부위원장을 각각 학교미디어교육소위원회 위원장과 사회미디어교육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과 상근직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미디어교육진흥협의회)

- ①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미디어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미디어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미디어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미디어교육 관련 교원 및 미디어교육사로서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시·도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미디어 종사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미디어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그 밖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시설 등의 평가)

① 위원회는 미디어교육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각 호의 기준마다 계량화된 평가를 100분의 50 이상 반영하도록 한다.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미디어교육사의 역량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4. 수용자의 평가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미디어교육사 양성

제14조(미디어교육사의 자격)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미디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미디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디어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미디어교육사는 미디어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미디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미디어교육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미디어교육사가 될 수 없다.

제15조(미디어교육사 교육기관)

-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시설, 교육단체,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미디어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교육시설과 교육단체,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중 미디어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미디어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4.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미디어교육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생에게 받을 수 있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미디어교육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미디어교육사 교육을 정지시키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미디어교육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미디어교육사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해당 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④ 그 밖에 미디어교육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미디어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 등)

- ① 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교육단체는 미디어교육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기회의 제공과 연구 및 활동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미디어교육사의 배치)

- ① 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교육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과 교육단체에 배치된 미디어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미디어교육사의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 ① 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디어교육사로 하여금 학교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도록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교육사는 제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학교 교과과정 및 학교미디어교육 활동과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미디어교육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미디어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미디어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합의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제17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사의 배치와 제18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사의 학교미디어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미디어교육지원법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3. 9. 17.

발의자: 김희정·유기준·문정림·조명철·한선교·박인숙·김무성·김세연·이진복·나성린·이만우의원

찬성자: 11인

### 제안 이유

최근 디지털 기계·기술 및 통신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미디어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미디어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그 이용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파급효과로 인해 이용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 미디어 사회에서 미디어의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미디어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용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시

민단체, 언론계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미디어교육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인 기반은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임.

이에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이 법은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디어교육 지원정책을 총괄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및 기타 미디어교육 진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미디어교육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역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미디어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마. 학교의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학교의 장이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을 학교미디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시설·단체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며, 사회미디어교육에 학교시설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기관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창의적 활용 능력을 제고하여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대중에게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제2호에 따른 인터넷 신문 및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 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 마. 그 밖에 대중에게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미디어콘텐츠”란 미디어가 생산하거나 유통시키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3.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창의적 활용능력 증진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통능력을 제고하는 교육을 말하고,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학교미디어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미디어교육
- 나. 사회미디어교육: 학교미디어교육을 제외한 미디어교육
4. “미디어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미디어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미디어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 나. 제3호가목에 따른 학교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다. 제4호에 따른 교육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
- 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마.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
- 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아.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시설 중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교육시설 또는 미디어센터
-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7.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이란 교원 외에 미디어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미디어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보장·지원할 책무를 진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디어교육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미디어교육 지원정책의 총괄 및 계획수립 등

제5조(미디어교육 지원정책의 총괄) 미디어교육 지원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제6조(미디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교육에 관한 기본방향
2.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민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미디어교육진흥기관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을 미디어교육진흥기관(이하 “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2.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기타 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 미디어교육 진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법인·기관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미디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미디어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진흥기관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디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2.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협력체제 구축·운영
  3.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또는 교재 개발
  4. 교사 및 학부모 등의 연수 지원
  5. 미디어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그 관련 사업
  6.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7. 그 밖에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제2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⑥ 제5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등

#### 제10조(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 ② 시·도 교육감은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교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국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학교미디어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또는 활동에 미디어교육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수준 높은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각종 미디어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단체의 미디어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회미디어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또는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경비의 보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기관 또는 지역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또는 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시설 등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디어교육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지역센터·교육시설 또는 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 2.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진흥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기관,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대학 등을 미디어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교육기관에 대하여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기준, 교육 과정 및 내용, 교육비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①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교육기관을 지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전문인력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미디어교육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미디어교육전문인력의 우선적 활용 노력)

- ① 교육시설의 경영자 또는 교육단체는 미디어교육을 할 경우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미디어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8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2 한국언론진흥재단 간행물

## • 2012년 자체연구

- 2012-01 디지털 뉴스 콘텐츠 시장과 저작권
- 2012-02 정부광고를 활용한 정책홍보 효율화 방안 연구
- 2012-03 스마트 시대의 미디어 소비
- 2012-04 신문사 NIE 활성화 방안
- 2012-05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의 정치정보 습득과 정치적 의사결정
- 2012-06 글로벌 뉴스 미디어 2012: 현황과 쟁점
- 2012-07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쟁점
- 2012-08 한국의 뉴스미디어 2012

# 2011 한국언론진흥재단 간행물

## • 2011년 자체연구

- 2011-01 스마트 미디어 환경과 뉴스 콘텐츠
- 2011-02 트위터에서의 뉴스 생산과 재생산
- 2011-03 신문기사사업의 혁신경영: 저널리즘, 비즈니스, 조직구조
- 2011-04 저널리즘의 복원: 고품격 저널리즘을 위한 글로벌 전략과 한국의 비전
- 2011-05 NIE와 교육 효과
- 2011-06 디지털 시대의 읽기와 문화: 쟁점과 전망
- 2011-07 종합편성채널 도입 이후 광고시장 전망과 과제
- 2011-08 통일과 언론: 독일의 경험
- 2011-09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모바일 뉴스 이용
- 2011-10 한국의 뉴스미디어 2011

# 2010 한국언론진흥재단 간행물

## • 2010년 자체연구

- 2010-01 글로벌 미디어기업과 미디어정책
- 2010-02 미디어 기업의 소셜 미디어 활용
- 2010-03 2010 국민의 뉴스소비
- 2010-04 신문광고비 형성변인과 결정요인
- 2010-05 한국의 인터넷뉴스서비스
- 2010-06 멀티미디어 뉴스 콘텐츠: 생산·유통·소비의 현황과 전망
- 2010-07 국제뉴스의 빈곤과 국가의 위기
- 2010-08 한국의 파워블로거
- 2010-09 뉴스미디어의 미래: 델파이 조사와 시나리오 기법을 통한 탐색
- 2010-10 디지털 미디어환경과 뉴스 콘텐츠 유료화
- 2010-11 한국신문의 미래전략